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981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28일 수요일(주간) 제 312 호

금주 법구

높은 언덕 맑은 물 연꽃은 멀리 하고
낮고 젖은 진흙물에 망긋 피어나듯
불법도 이러 하여 우주에 그윽하니
상대적 모든 법이 하나 같이 불법일세.
-유마경 불도품-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외국기업의 '직지 찾기'

정보기술(IT)업체가 경전을 찾는다. 낯설기만 한 이 일이 지난해 9월부터 청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보저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국EMC(대표 정형문)가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직지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찾겠다는 하나의 서원이다. 직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무려 70여 년 앞선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다.

그런데 '최고'란 단순히 서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세계의 석학들은 1000년 동안 최고의 발명품으로 인쇄술을 꼽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말에는 '문명의 초석'이라는 문화사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인쇄술은 책 한 쪽을 모두 새겨 인쇄하는 목판 인쇄술이 아니라 글자 하나 하나를 따로 새겨 '다품종 대량 생산의 길'을 연 금속활자다. 따라서 직지는 특권 계급이 독점했던 지식을 대중에 확산시켜 민주주의·산업혁명·종교개혁 등을 낳게 한 문명의 원동력을 상징한다.

불교와 인연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IT업체에서 직지를 찾아 나선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혁명의 총아로 떠오른 컴퓨터는 금속활자를 디지털 폰트로 대체한 것이고 보면, 그 이면에는 인쇄술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EMC 정형문 사장은 "직지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저장·보호·관리하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EMC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회사와의 만남을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사라진 기록문화를 찾고, 그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직지찾기운동은 정보의 가치와 그 보존의 중요성에 일깨우는 것이자, 문명의 뿌리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꼭 찾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하나 하나가 모인다면 언젠가는 '직지'가 현실로 나타날것이다. 잃어버린 수백점의 소중한 성보들은 이러한 마음이 하나될 때 되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취재 2부 기자)

장 군 죽 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공동체 마을', 그 시원(始原)은 승가 공동체. (9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 오해다. 인간 중심주의는 세상을 망칠 뿐이다. '두두물물이 부처'라는 부처님 말씀을 명심하시길 …. (10면)

◇'지금 이곳'을 해탈의 소리로 장엄하는 니르바나 실내악단, 부처님 가르침을 선율에 담아 사바로 띄워 보낸다. (14면)

◇사찰 소장 국보급 문화재, 절도범의 손에 무방비 노출. 교환가치(돈)로 문화재를 보는 한 도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3면)

'자비 실천 새물결 운동'

조계종 복지재단 전개

4월 18일~5월 1일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
'1배-100원' 기금 조성

수행과 봉사를 통해 자리이타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다대적으로 펼쳐진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율해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해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법회를 여는 등 '자비실천 새물결운동'을 4월 18일부터 5월1일까지 전개한다.

4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는 '108배 릴레이 철야정진법회'는 20명이 조를 이뤄 1시간씩 정진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배당 100원씩의 기금을 내게 된다. 복지재단은 모아진 기금을 교계 단체가 후원하는 불치병 아동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법회에는 복지재단 산하 시설 종사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일반인 등 모두 1천여명이 참가한다.

또 철야정진 법회 직전에는 조계종단 집행부 스님 및 복지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비실천 새물결운동 선포식'을 갖는다.

복지재단은 지방의 사찰 및 불교단체들도 이 행사를 개최토록 유도해 노력봉사를 통한 시설중심의 자원봉사에서 수행을 통한 지역중심의 자원봉사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월 18일부터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개인불자들이 참여하는 '한마음새물결축제'가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이 행사는 각 사찰과 단체, 개인불자가 복지재단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고 해당지역의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 1만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는 '자원봉사로 부처님의 자비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을 포함한 지방 주요 도시 중심가에 불교자원봉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소개 및 불교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4월 18일에는 승가원, 연화복지학원, 원심회, 강북장애인복지관 등 교계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양주 봉선사에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마음은 벌써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을 30여일 앞둔 22일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제등행진에 선보일 나비등과 어우동갓등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한마음선원은 움직이는 용과 학 등 아름다운 전통등을 만들어 4월 29일 제등행진 때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조계종, 발상전환 촉구

불교계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조계종은 총무부장 원택, 사회부장 양산스님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화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환경·종교·사회단체들의 거듭되는 밤샘농성과 단식, 항의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2의 시화호가 될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전면적인 정책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도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간척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시행할 것, 개발위주 국가정책에서 보전과 생명살림의 국가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종단 차원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일이 교계의 환경 의식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종교 NGO 네트워크' 4월 4일 출범

불교 개신교 천주교 NGO들이 참여하는 '개혁을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가 내달 4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기독연대 평신도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참여단체들은 4월 26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시민사회와 종교'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 단체들은 공동 홈페이지 구축, 출판사업, 공동워크숍, 대중강좌, 대외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국종교의 내부 개혁을 위해 정진할 계획이다. (02)725-8231 김재경 기자

두 원장 동반사퇴 태고종 내분 일단락

28일 새 총무원장 선출

악회일로 치닫던 태고종 내분이 총무원장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의 동반사퇴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남파)는 28일 오전 11시 선암사에서 81회 임시종회를 열어 새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종연스님과 80회 임시종회에서 선출된 또 다른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7일 서울 성북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을 위해 오늘자(17일)로 동반사퇴한다"고 밝혔다. 종연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펼칠 포부도 많았지만 더 이상 종단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법장스님과 분규종식을 위한 논의를 여러 번 거쳤고 16일 종회의장 남파스님을 만나 동반사퇴하겠다는 합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태고종이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종회에서는 세칭 '7인방'으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스님들이 후보에서 가급적 배제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숙 기자



◇종연(왼쪽) 스님과 법장 스님이 17일 종단화합을 위해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게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5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호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청천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대상국사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참가비: 73만원(공항세 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결 의 문

- '민족의 영산' 한라산의 가슴에 쇠말뚝을 박지 마라 -

제주도가 국토 최남단을 지키는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추진하여 한라산의 정기훼손과 자연생태계의 대규모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백두산과 더불어 민족과 국토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한라산은 1천8백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동양 최대의 생태계이며, 식물의 보고이다. 오백나한, 영실 등의 지명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성지이자, 정신적 귀의처인 한라산의 아름답고 장엄한 품에 기대어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가치와 소중함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제주도는 명산의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첨병역할을 해 오며 오직 인간의 오르기 위한 욕구만을 충족시켜온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한라산의 가슴에 대형 쇠말뚝을 박고자 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제주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이 입장객의 분산을 통한 등산로와 한라산의 보전이라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기에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인간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강조한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존형 케이블카'는 자연파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허명일 뿐이다.

격렬하게 벌어진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 케이블카 추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강행하였다. 불교계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불참속에서 강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여론은 오차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과반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수익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다. 제주도는 케이블카 계속 추진입장을 재확인하며, 환경부에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국의 명산과 사찰의 수행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경적인 케이블카 건설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강행될 경우 범불교적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한라산의 정기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 환경부는 제주도의 한라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불기 2545(2001)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사 설

부처님 오신 뜻은 자비실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진리의 소식을 열어 보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 속에 살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법화경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부처님을 대신해 길잡이 역할을 하는 법사가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자리에 앉아 여래의 옷을 입고' 법을 설하라고 부처님은 강조하신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래의 방은 바로 자비를 뜻하는 것이다. 아무리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게 하려는 마음 즉 자비심이 밑자락에 깔린 것이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목이 말라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오염된 물을 소개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를 해롭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즉 자비심이 전제되어야만 '여래의 자리에 앉아 여래의 옷을 입고' 설하는 법이 중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제 한달여 있으면 인류의 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그 의미를 길이 기리는 뜻에서 온갖 종류의 연등을 만들어 부처님전과 어두운 곳을 밝힌다. 늘 강조해왔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중생을 자신의 친아들 위하듯 하는 자비심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봉축연등도 자비의 등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불교 1번지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찰, 우리는 선우, 재가연대 등 신행단체에서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자비의 연등 달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와 가족을 넘어선 더 큰 범위의 축복을 위한 등 켜기를 통한 보살행 실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통일의 등, 상생 화합의 등, 환경보존의 등, 자비의 등, 봉축 지하철 연등…. 여러 의미의 연등이 사회 곳곳에 피어나 자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우리 겨레는 한층이 커다란 통일의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조선불교연구소 발족 의미

한국불교는 16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흔히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융성과 발전을 강조하고 조선시대의 암울했던 역사를 지적한다. 부당한 억압으로 인해서 조선시대 불교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불교는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불교 연구는 너무나 초라하다. 관심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 기초자료도 정리되지 않았다. 70년 전의 연구 성과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불교는 억불책에 의한 핍박으로 발전하지 못한 불교라는 선입관이 작용하고, 또한 여러 자료를 수집·정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한국불교의 모습을 형성시켰던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부진은 한국불교사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흔히 억불숭유로 설명되는 조선시대 불교사에 대한 막연한 이해는 불교계에 피해의식이나 패배의식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조선시대 불교사의 정당한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묻혀진 역사를 찾고 새롭게 조명해야 하며,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기억을 상실한 집단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런데 대둔사에서는 조선불교연구소를 설립하고 황무지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고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다.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수한 대둔사는 조선후기의 그 어렵던 상황에서도 법등을 환하게 밝혔던 도량이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대둔사의 조선불교연구소 설립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다.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포교 본격화

조계종 외국인 사찰안내연합회 창립

제등행진 초청…中·日語 교육 확대

2002년 월드컵을 비롯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계가 외국인포교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외국인포교를 위한 전국 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합회를 4월 중순 창립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도 연등축제 행사에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하여 제등행진의 의미와 역사,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교계의 외국인 포교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8일 오후 2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현재 외국인 사찰 안내팀이 결성된 조계사 봉은사 불국사 통도사와 결성이 가능한 송광사 동화사 한마음선원 등 7개 사찰 외국인 안내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국 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결성한 뒤 광역시도 단위별 1개사찰에 외국인 안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원은 또 외국인 안내를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찰안내책자 2권을 4월 말까지 발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전국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합회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4월 29일 제등행진 행사에 맞춰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 제등행진의 의미와 역사를 알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8군 군악대 초청연주 프로그램도 마련,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연등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포교원 황중기 주임은 "사찰안내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영어 사찰안내자교육을 확대하여 중국어와 일어 사찰안내자원봉사자교육도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어 일어 사찰안내 자원봉사 희망불자는 4월 3일까지 포교원에 교육희망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7일 간단한 자격심사를 거쳐 14일부터 3달간 교육을 받게 된다. 문의 02) 720~7062.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자비인술' 일산병원 상량

공정 40%…내년말 개원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3월 20일 오후 2시 고양시 식사동 병원 건립 부지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상량식(사진)을 봉행했다. 상량식은 영산재로 시작해 오후 2시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도원스님(조계종 원로회 부의장), 송석구(동국대 총장), 권노갑(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7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2002년 하반기에 개원할 일산병원은 총 3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고영배 기자

상락원 원장 탄호스님

승가원(이사장 종법)은 22일 상락원 2층 강당에서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공석중인 상락원 원장에 탄호스님을 임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횡성 복지타운 내에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한편 승가원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001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한명우기자

조계종 신도교육 잇달아

31일~4월8일 지역별 개최

조계종 신도교육이 활발하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31일 오후 2시 화성 용주사와 오후 3시 조계사에서 경기남부, 서울 1지역(종로 서대문구 마포 은평구) 사찰신도회및 신도단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또 4월 1일 오후 3시에는 도선사에서 제 2지역(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노원 강북 도봉구), 7일에는 봉은사에서 제 3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8일에는 법안정사에서 제 4지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양천 구로 강서구) 사찰신도회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에서는 '5계운동의 의의와 내용' '지역사회활동 사례발표' '실천의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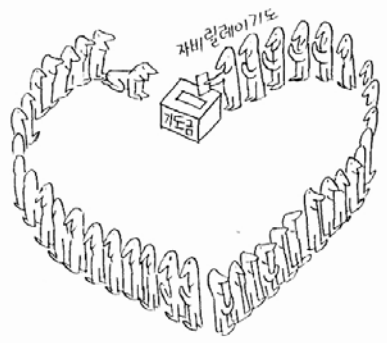
김원우기자

예불·독경 등 의식교육

서·경 포교사단, 한달간

조계종 서울, 경기포교사단은 24일 부터 4월 24일까지 신규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의식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포교원 1층 강의실에서 5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의식교육은 인묵스님(불교어산작법학교 교장)을 강사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작은 마음이 모여서…

교육·포교원장 선출 연기

조계종 임시종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20일 150회 임시종회를 열어 종헌특위·동국학원 조사 특위 위원 보선, 원로의원 추천 등 11개 안건을 처리하고 23일 폐회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선출,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 종헌 개정의 건 등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헌특위 위원 정각스님 보선 △동국학원 조사특위 위원 범종스님 보선 △원로의원 원담스님 추천 △불기 2544(2000)년 중앙종무기관 세출결산액 146억4099만원 승인.

종회는 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가야산 순환관통도로 개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반대 결의문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종회는 조계사신협 금융사고와 관련, 법적책임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판단키로 하고, 도덕적 책임은 종헌·종법에 의해 이사장의 문책을 요구하되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조계사신협특위는 이날 해체됐다. 정성운 기자

종책경쟁등 운영에 활력소

종회에 교섭단체 생긴다면…

종회 내에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하면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처음 열렸다.

21일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주최로 불교회관에서 열린 '중앙종회 기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는 "선의의 종책 경쟁을 위해 국회의 교섭단체처럼 종회 내 4개 친목단체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종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4개의 모임(무등회, 청림회, 일여회, 원융회)을 교섭단체처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활용의 측면에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방청자로 참여한 종회의장 지

대중공의 살리면 유익

이해걸려 활동제약도

하스님은 이와 관련 "보수와 개혁의 갈등과 경쟁 속에 역사는 발전한다"고 전제하고 "종회도 양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하스님은 "불교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대중공의의 정신과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현응스님과 임종훈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어느 집단이든지 몇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교섭단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4개 그룹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임종훈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상임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사무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 예산 보좌관제 운영 △입법예고의 상시화를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천도재 및 勝景地區 결계도량

귀의삼보하옵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6여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덕주의 발원으로 백화점 붕괴 이전 이후의 모든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勝景地區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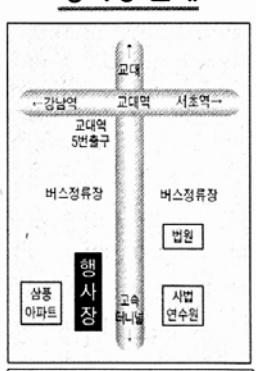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5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구 삼풍백화점 터(행정법원 정문앞)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지리산 화엄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

영가법문 :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추 모 사 : 총무원장 정대스님
영 산 재 : 인묵스님

증명 : 천운·원명·종국
봉행위원장 :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위원 : 지홍 정락 법장 현해 지명 진허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통광 성오 상수 법조 도영 다정 현봉 보선 중원 법현 부림 현고 성월 혜자 양산 종지 성국 계성 상운

집행위원장 : 화엄사 주지 종걸
위원 : 지하 청화 명진 원행 종림 현각 지현 성관 자승 세영 마근 정념 도완 도공 원담 장곡 진각 지운 선광 법등 법보 유광 혜정 장적 무이 종상 장주 수완 도각 영담 정인 석호 정각 근일 설송 지광 성오 화범 진만 종삼 영조 범종 몽산 월우 종하 탄우 대원 진원 태공 인묵 동욱 지광 현응 지욱 향적 학담 법안 혜창 정우 영배 여연 정휴 광조 장윤 원우 지홍 원명 수현 일법 본각 해주 법성 도문 운달 지형 계호 경륜

행사장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 6번출구
버스 : 36,41,78,78-2,212-2경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종걸

목어

나날이 새로운 날



'새롭다' 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날이 새롭다. 그 새로움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누구나 그 새로운 날을 진정 새로운 날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오는 시간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다른 의미의 '새로움' 이 있다. 그러한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을 쪼개어 단락을 지우고, 그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나마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것은 아닐까?

요즘 대학가는 새로운 시작을 맞는 새내기들을 맞아 활기가 가득하다. 그들의 설렘은 오랜 동안 대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져 온다. 대학 시절의 내 모습이 새삼 생각나고, 그 때 지녔던 꿈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모습에 겹쳐지면서, 자신의 불성실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쪽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설렘을 느끼고 전해받고 싶다.

시간이란 것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40대, 아니 30대를 넘기면 대개 느끼는 일이다. "한 생각이 한량없는 겁이요, 한량없는 겁이 바로 한 생각이다"는 법성게의 가르침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30 고개를 넘기고서는 세월이 갑자기 빨리 흐르기 시작하고, 40 고개를 넘으면 완전히 비탈길을 달리는 바퀴 같다는 느낌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리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시간은 그 새로워지는 내용만큼 천천히 흐른다. 그러다가 어떤 생활의 틀에 안주하고 나날을 반복적인 일상으로 채워가는 즈음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날이 좋은 날, 나날이 새로운 날' 이라는 경구를 되뇌이게 되는 것도, 이 일상의 타성을 벗어나 하루하루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리라. "어? 네가 벌써?"하는 물음으로 그들의 졸업을 맞지 않을 만큼, 나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새내기들을 맞는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타워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특별기고

근대화 주역 '빈손으로 가다'

정주영 회장 타계

3월 21일 타계한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씨를 '신화를 일군 현대사의 거목' 이라 평가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한 채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오늘날 매출 100조원대 대그룹으로 성장시키기까지 그가 남긴 숱한 일화는 그 자체가 신화가 아닐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 댐 건설과 함께 증동을 비롯한 해외건설 붐을 일으키며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이 땅에 짓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 한국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든 고(故) 정주영씨는 "현대를 통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며 높은 자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강의 기적' 을 앞서 이끌면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간 업적을 사람들은 그의 빼어난 경제감각과 놀라운 추진력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향토색 짙은 소박함과 소탈함, 성실하고 검소한 그의 인간성이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주영씨는 만년에 들어 한가할 때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비디오를 몇 번씩이나 볼 만큼 이땅의 짙은 향토문화를 사랑했다.

소떼 몰고 방북

95년 12월 옛 동양극장 자리에 들어선 문화홀에서 동양극장 개관 60주년 기념공연으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가 공연될 때는 관객과 더불어 울면서 주제가 '홍도야 울지마라' 를 함께 합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눈물조차 용납치 않는 삭막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과 함께 노래하며 울 수 있었던 정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자본가가 아니라 부유한 노동자' 로 살아왔을지 모른다.

'세계사를 변혁시킨 사람' 으로 높이 평가하며 친분을 가졌던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도 그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다. 소련 붕괴 후 고르바초프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정회장의 환영만찬에 참석했는데 '결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는다' 는 그도 정회장의 흥에 겨운 권유에 러시아 민요을 몇 곡씩이나 불렀다고 한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소박함, 동시대인과 시대의 정서를 공유할 줄 아는 이같은 뛰어난 인화력 또한 고인의 거인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98년 5백 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향하던 고인의 모습이다.

"어릴 적 가난이 싫어 소 판 돈을 갖고 무작정 상경했다. 그 후 나는 묵묵히 일 잘하고 참을성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제 그 한 마리가 5백 마리의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간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몰이 방북. 98년 10월 27일.

신계사 복원 관심

통일을 위한 북을 향한 남쪽의 첫걸음도 정회장으로 하여 이렇게 열렸으며 금강산 개발 또한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에는 금강산의 폐사찰 신계사를 복원시키겠다는 꿈도 펼쳐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의 타계에 앞서 재벌이 이끌어 온 한국경제의 파탄, 그 가부장적 경영이나 근년의 무모한 북한 투자 등이 불러 온 '현대' 의 유동성 위기 등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음인데, 그래도 우리는 '기적의 밀천은 부지런함이며 성실과 신용' 이라는 고 정주영씨의 신념과 그의 행동철학에서 배울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현대의 위기탓인지 그가 남긴 유산도 예상외로 적다 한다. 이미 "돈만으로는 크게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스스로 밝힌바 있거니와 어차피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고인 역시 알고 떠났으리라.

김 정 자 〈언론인〉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불투명'

북, '실무대표단' 평양행 거부

지원물량 늘리라는 뜻 담겨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던 남북불교 통일토론회가 북측의 태도 변화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측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은 19일 오전 박태화 위원장 명의로 종단협의회 앞으로 팩스를 보내 통일토론회 실무 준비를 위한 남측 실무대표단의 3월 평양방문을 사실상 거부했다. 조불련은 대신 이 달 27~29일 베이징에서 열 남북종교인회의 때 만나 논의하자고 밝혔다. 남북간에 실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일토론회의 상반기 개최는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베이징 남북종교인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는 회의 개최를 닷새 앞둔 2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일시와 장소를 3월 말 또는 4월 초, 금강산으로 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KCRP는 장소만 변경하자는 입장이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한 스님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남쪽에서 굳이 매달리다시피 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며, '퍼주기식'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통일토론회 개최에 적극적이었던 조불련이 돌연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나타나는 대북강경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종단협의의 대북지원량이 조불련의 예상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북한전문가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대미 · 남북 관계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예정했던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소강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협의회의 대북지원량에 대해 조불련은 지난 19일 종단협의회에 보낸 팩스를 통해 "방문 명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지현정사(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는 "남북 관계에서 현 단계는 교류를 위한 지원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즉자적인 대응보다 북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개별 종교의 별도 접촉보다는 지난 해 추진했던 남측 종교대표의 방북을 통한 남북종교인회의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는 6 ·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 직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단협의회와 조불련은 지난해 11월 북경에서 만나 5월 말 또는 6월 초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불교인의 역할' 을 주제로 금강산이나 베이징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토론회에 앞서 3월 말 남측 실무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실무준비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책 모임간 조율 실패

조계종 종회 교육-포교원장 선출 못한 까닭

결국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20~23일 열린 조계종 150회 중앙종회의 안건 중 종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누구로 선출하느냐는 것이었다.

20일 오전 개회한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당초 3, 4번 안건으로 돼있던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출의 건을 13, 14번으로 미뤄 두 원장 선출을 둘러싼 종책연구모임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예정했던 회기 5일을 하루 앞당겨 폐회하는 바람에 두 원장 선출 건은 다뤄지지도 않았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이 추천한 스님에 대해 종회에서 선출하는데,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3일까지 교육원장 포교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투표를 통해 두 원장을 뽑을 경우 종회 내 종책모임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부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6월께 임시종회를 다시 열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뽑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포교원장은 지난 1월 당시 원장 정련스님의 사퇴 이후 공석중이다. 교육원장은 일면스님이 봉선사 주지로 취임하며 지난 13일 사표를 냈다.

이번 종회에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종회 내 종책연구모임 간에 추천 내정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종무기관의 대표의 자리를 비워둬 행정 공백을 가져올 것이 뻔한데도, 소속 모임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종회를 파행으로 몰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원의 한 소임자 스님은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는 동시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원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님들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문성 부재' 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종회에서 두 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책임을 종회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쪽의 스님들은 "애초에 그쪽에서 추천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중앙종무기관의 대표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완강한 입장과는 달리, "의견조율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종회를 열어놓고서도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성운 기자

중립학교 관리위원회 주최의 최근 세미나에 대한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의 입장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세미나가 개최되기 이전에 언론에 유포된 주제 발표의 요지와 어제(2001년 3월 20일) 발표된 주제의 전문을 보면서, 우리는 법구경의 말씀을 먼저 실감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뜯는다. 말이 많아도 비방 받고, 말이 없어도 비방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 받으니, 세상에는 비방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비방만 받는 사람도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었고, 없고, 또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속절없으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누구라도 비판자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들만을 들추어내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세미나 주최측의 비난과 폄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증되지 않은 자료와 발표자의 학문적 취향을 준거로 삼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작성한 주제 발표문을 주요 언론에 미리 유포함으로써, 우리의 인격 훼손에 그치지 않고 종립 학교인 동국대학교는 물론이고 불교계 전체의 위상이 실추된 결과에 직면한 우리는, 바미얀 석굴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는 종단 차원의 실질적인 후원과 원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적 변화만을 촉구하는 교계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모두 떠안아 감내하면서, 그것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지금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우리에게 쏟아진 요구와 기대는, 상아탑에 안주하지 말고 전법의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과 상아탑에 파묻혀 오로지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불교학을 더욱 계발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인으로서의 우리는 전자에 충실해야 하고, 학자로서의 우리는 후자에 충실해야 하므로,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 같은 요구와 기대는 우리를 항상 곤혹스럽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극히 열악한 불교계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연구 수준에는 미흡할지언정 "학자들 게을러 연구 저조"(동아일보, 3월 16일자)라고 매도당할 만큼 연구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국대학교가 평가 기준을 갈수록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수 업적 평가는 불교대학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 교내의 다른 대학 교수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립 대학만도 70여 개 이상이 되고 불교 학자만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본 불교계의 현실, 20명 안팎의 우리가 연구 이외의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는 한국 불교계의 특수한 현실을 세미나 주최측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과 입장이 다른 외국의 대학 또는 국내의 일반 대학을 준거로 삼아, 우리에게 각성과 의욕을 고취하기보다는 모멸감과 허탈감을 강요하는 그 같은 비판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멸시가 아니라, 결국 불교계 전체에 미칠 멸시입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대동소이하게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교육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선의의 발로일 것이라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라도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항변을 자제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학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불교대학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세미나에서 표방한 고언을 참고로 하여 불교학의 발전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주제 발표에, 대한 논평으로써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발표자들도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시인하는 보도로써,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불교계의 위상을 크게 훼손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학자의 연구 업적은 짧은 기간에 양산될 수는 없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면서 검증을 거쳐서야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불교대학의 향방과 우리의 결실을 좀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3월 2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일동

일주문



워싱턴 보림사서 법문

월서 조계종 호계원장은 25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보림사서 법문하고, 27일에는 LA 관음사에 들렸다.



불교대학원 동창회장

도성 제주 백우정사 주지는 지난 19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5기 동문회에서 제4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보현행원품' 강의

수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前 해인승가대학장)는 4월 3일 울산불교교육원에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강의한다.



석가모니 외불상 점안법회

한정섭 상락향수도원장은 4월 1일 오전 10시 석가모니 와불상(37미터)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31)534-0657



문화학교 초빙교수 위촉

전흥수 한국고건축박물관장(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은 최근 한국문화학교(총장 김병모) 초빙교수에 위촉됐다.



현대수필문학상 수상

맹란자(수필가)씨는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로 30일 이화회관에서 제19회 현대수필문학상을 받는다.



대성 스님 초청 법회

김정도 부산거사림회장은 27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김해 은하사 주지 대성 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수필집 출간 기념회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은 26일 그 동안 발표한 글을 모은 수필집 〈뭐하고 살았나〉 출간 기념회를 가졌다.



히말라야 요가강의

이태영 한국요가연수원장은 24~25일 인도 히말라야 요가행자인 빤디트 아슈토시를 초청, 요가강의를 실시했다.



백화산 삼존불 친견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장은 4월 1일 충남 태안반도 백화산 마애삼존불을 친견하는 순례법회를 갖는다.

"자자·포살 가풍 되살리겠다"

교단 자정센터 준비위원장 장병옥 씨



"교단 자정활동의 목적은 '스스로를 맑게 하는 역량(自淨力)'을 높여, 출·재가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수행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는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준비위원장에 선임된 장병옥(68·한국차문화연구원 부원장)씨는 "모든 문제를 교단내의 제도와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대화와 토론으로 여법하게 해결하는 열린 기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최소한의 시민사회 윤리의식과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문제를 조속히 정화함으로써 교단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승가를 시대의 사표(師表)로 외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스로 허물을 고백하는 '자자(自恣)'와 대중이 지적하는 허물에 대해 참회하는 '포살(布薩)'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혜결사와 백련결사 등 내적 수행과 사회적 회향의 모습을 보여온 한국불교의 현대적 개혁의지에,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주는 것이 교단 자정센터의 역할이란 설명.

"교단의 자정능력에 대한 자포자기와 냉소주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바른 교단운영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장 위원장은 "교단 내의 부정한 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고 중재하여 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바른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재학시절부터 신행활동을 해 온 정 위원장은 국방연구원 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 대불청 고문 등을 맡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집집마다 자비광명 밝히자

Focus

조계사가 21일 서울 인사동 한 블자가정에서 가족의 발원을 담은 연등 다는 것을 시작으로 '집집마다 연등 달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부처님 오신날에 각 가정에서 연등을 밝혀오던 풍습을 되살리고 봉축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 조계사는 25일(음력 3월 초하루) 법회에서 '가정용 등표'를 신도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4월1일부터 한 달간 등 만들기 체험마당 행사를 펼치고, 이때 제작된 연등을 무료 배포하는 등 '집집마다 연등 달기' 캠페인을 뒷받침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새생명 준 불자은혜 잊지 못해"

뇌종양 수술 도움받은 사이폴하 씨

"새 새명을 주신 생명나눔실천회와 불자님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인 모하마드 사이폴하(36·사진 왼쪽)가 지난 19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생명나눔회를 찾았다. 96년 한국에 입국, 노동자로 일하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1월말 수술을 받은 사이폴하씨는 1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웠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명나눔실천회는 모금운동을 벌였고, 사이폴하씨는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

사이폴하는 "생명나눔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한국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 소양 갖춘 전문인재 육성"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개설

강선태 부산 신도회장



"부산불교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은 요즘 부산에서는 최초로 여는 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 개설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신도회 차원에서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5월 11일 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 일반 불교교양과정과는 달리 불교 지도자급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색. 학장은 강 회장이 맡는다.

강 회장은 "지도자들이 개인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현안들을 불교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라고 교육의 효과를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되는 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은 불교사상의 재인식, 현대불교 신앙의 방향, 참여불교, 불교NGO의 전망, 시민사회와 불교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5개월 동안 진행된다. 또한 강사진도 가산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 아카데미과정 이사장인 정여 스님,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정진홍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엄현섭 동의대 한의대 학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강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증폭되는 불자들의 기대를 수용하는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강의와 더불어 사회지도층 강사를 초빙한 특강, 수련회, 문화기행 등의 다양한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정대 스님, 이영덕 회장과 월드컵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19일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이영덕 회장의 예방을 받고,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대 스님은 "월드컵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계가 앞장서서 질서·친절·청결·정직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장학금 전달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원혜)은 20일 복지관으로 지역 장애인 및 장애가정 중·고생 3명을 초청,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열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부관장 명궁 스님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학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교인권법당 길상사 이전법회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20일 서울 안국동에서 '불교인권법당 길상사포교원' 이전·개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월탄 전 법주사 주지, 법장 수덕사 주지, 청화 조계종중앙종회 부의장, 마키노 일본 묘법사 주지, 산디마 미얀마선원 원장, 김근태 새천년민주당 부총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구미불교대학(학장 정우)은 15일 구미불교회관 개원 및 구미불교대학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성 직지사 주지, 법등 도리사 주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학장 정우 스님은 "입학정원 300명에 350명이 지원하는 등 신도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철선사상연구원 2001년 학술연구비 지원 공모



연구논문 지원(6편)

- **지원분야 :** 불교학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분야를 선정 대상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① 선불교와 그 관련분야
  ②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거나 참신한 내용으로 불교학의 지평을 연 논문
- **지원자격 :** ① 각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② 각 지방승가대학의 강사 이상
- **지 원 금 :** 편당 100만원
- **신청사항 :** ① 기간 - 2001년 4월 2일~4월 21일(21일자 소인 유효)
  ② 양식 - 본 연구원의 소정양식을 이용할 것(신청서는 www. SONGCHOL.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논문 제출일 :** 2001년 8월 31일까지(심사용 출력본 3부 제출)
- **선정 방식 :** 신청서 접수 후 논문 제출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 **기 타 :**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본 연구원 연학위원에게는 지원자 선정에 우선권을 드립니다.
  ③ 최종 선정된 논문은 『백련불교논집』 제11집(2001년 12월 발행)에 게재합니다.

윤독회 지원(5팀)

- **지원분야 :** 선어록 및 불교학 관계 원전(성철스님과 관련된 자료의 윤독을 우선함)
- **지원대상 :**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윤독회(단,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 포함할 것)
- **지원기간 :** 2001년 5월~2002년 2월(10개월)
- **지 원 금 :** 각 윤독회에 100만원
- **신청사항 :** ① 기간 - 2001년 4월 2일~4월 21일(21일자 소인 유효)
  ② 양식 - 본 연구원의 소정양식을 이용할 것 (신청서는 www. SONGCHOL.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136-031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2층
전화 744-1541 / 팩스 744-1542
http://www.SONGCHOL.net
E-mail : academy@SONGCHOL.net

제4기 백련학당 수강생 모집

- **기간 :** 2001년 4월 2일 월요일~6월 22일 금요일(12주), 오후 7시~9시
- **개설 과목 (교재는 별도 구입)**

	강 좌	교 재	강 사	특기사항
월	선어록입문	柳田聖山, 『語錄の歷史 : 禪文獻の成立史的硏究』	인환 스님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교수)	8:00 부터 시작
수	불교영어	Etienne Lamotte, "History of Indian Buddhism"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금	불교일본어	柳田聖山, 「ダルマ」	사토오 시게키 (동국대 일문과 객원교수)	일본어로 수업 진행

- **수강료 :** 강좌당 5만원(연학위원께는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강의 중 수시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수강료는 은행의 온라인 구좌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신한은행 355-05-009990 백련불교문화재단)

제4기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위원 모집 안내

선불교의 연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젊은 연구를 펼쳐나갈 제4기 연학위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와 선사상의 현대화에 동참하실 젊은 연구자를 모십니다.

- **자격 :** 각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상, 또는 각 지방 승가대학의 중강 이상
- **모집 기간 :** 2001년 4월 2일(월) ~ 4월 28일(토)까지
- **지원 방법 :** 본 연구원 소정양식에 따름
  (신청서는 www.SONGCHOL.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연학위원에 대한 혜택 :**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논문 지원, 윤독회 지원, 백련불교논집 간행 등 연구원의 모든 일에 우선권을 드리며, 젊은 불교학자들의 열띤 토론장인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발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백련학당'의 강의를 수강하실 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학위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앞으로 본 연구원의 硏究員으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의료혜택 못받는 이웃에 '자비 인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로 구성된 직장직능불자회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자비인술을 베풀고 있다. 특히 노숙자, 중국 연변 조선족, 오지 마을 주민 등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불우이웃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동체대비심을 실천하고 있어 불교의 대 사회적인 이미지도 높이고 있다.

선재마을 의료회 서울역 노숙자 무료진료
경상대 보련회 中 연길 조선족 의료봉사
전국병원 불자련 오지순회 · 봉축의료서비스

선재마을 의료회(회장 강경구)는 28일부터 서울역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무료진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지원금 3천9백만원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4천4백만원 등 총 8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역 역전파출소 옆 중구여성복지상담소 내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다. 무료진료를 위해 의사 간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진료단을 구성한 선재마을 의료회는 내과를 중심으로 일반 외과는 물론 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진료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노숙자들을 국공립 의료기관과 연계해 입원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선재마을 의료회는 노숙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재활의지를 심어줄 방침이다.

선재마을 의료회는 99년 5월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첫 진료를 시작해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도시 빈민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내 · 외과 진료를 실시해 오고있다.

경상대학교 병원불자회인 보련회(회장 강석휘)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4박5일간 중국 조선족 자치지구인 길림성 연길시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9개과 교수 10명, 간호사 10명, 행정지원 11명 등 총 31명의 의료진을 구성한 보련회는 지난 11일 진주시청 앞 '죽향'에서 일일찻집을 개최, 기금을 조성해 이미 1천만원 상당의 약을 구입했다. 또한 이번 봉사에 참가하는 의료진들도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항공료, 숙식비 일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97년 11월 창립한 보련회는 그동안 13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2천 1백만원을 지원, 매년 부처님 오신날 병원 전체 환자에게 떡, 과일 등 위문품 전달, 환자위문 음악회, 의료봉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정신병원, 경희의료원 등 7개 병원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 이하 병불련)도 내달 8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원평야외수련장에서 의료봉사를 펼친다. 병불련은 우선 의사, 간호사 30여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하고 안과, 치과, 내과, 한방과 등 4개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자신들이 익힌 지식을 회향하는 의미로 부처님오신날 거리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 혈압, 당뇨, 건강상담을 하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연합대법회에서도 긴급 구급반을 구성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8월 창립해 아직 1년도 안된 병아리 불자회인 병불련은 올해에 오지 마을 의료봉사, 연합 법회, 연합 성지순례 등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들의 신심을 높이고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의 오지마을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약사들로만 구성된 블자보리약사회(회장 장준수)도 탑골공원에서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무료 투약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달 실직자, 지역주민 등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 1천여명에게 무료투약을 하고 있는 약사보리불자회는 그동안 3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비인술을 베풀었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인드라망 생명운동 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4월 7일 오후 7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2층 설법전에서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과 생명운동원리'를 주제로 제2차 화엄광장을 연다. 발제는 전재성 한국빠알리어성전협회 대표가 맡는다.

석불硏 아산지역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8일 충남 아산 영인면 신현리 미륵 불상과 영인석불, 평촌리 석조여래입상을 친견하는 석불,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성북구 법륜회 사찰순례



성북구청 법륜회(회장 정후시)는 18일 양평 사나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사나사 주지 회암스님으로부터 사찰 유래와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설법을 들으며 신심을 키웠다.

철불협 신춘 연합법회

철도청불교협의회(의장 박창식)는 20일 관문사에서 재경단체 신춘 연합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로 · 성북 · 안산 승무사무소 법우회와 서울열차사무소 법우회원 70여명이 참석해 관문사 교무 지도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었다.

새만금 간척 반대 단식농성

200여 단체 생명평화연대 발족
수경스님등 참여…정부청사 시위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상임대표인 수경스님은 20일 정오부터 1시까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새만금살리기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200여개 종교 · 환경 ·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공동대표 수경스님 등 6인)는 19일 공식 발족식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새만금 사업이 반환경적이고 반경제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 정부는 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31일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영락 목사 등 각계 대표들과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참여한다.

단식농성과 함께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함께 펼쳐진다. 생명평화연대는 △농림부장관의 새만금 매립면허 직권 취소신청 △사진전 등 대국민 선전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 범국민집회(28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모든일에 주인되자"

한빛은불자회 창립2돌 법회

한빛은행불자회(회장 소병식)는 20일 본점 4층 소회의실에서 창립2주년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덕명불원 원장 덕천스님을 비롯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덕천스님은 "육바라밀, 팔정도를 실천하여 내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 모든 일에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소병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20%정도의 불자들이 회사를 떠났지만 꾸준히 매달 한차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며 "어려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덕천스님은 이날 〈불교교리강좌〉 30권을 보시했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노인보조품 무료대여=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팡이, 휠체어 등 노인보조용품을 1개월간 무료로 대여해준다.(02)929-7950

▲전문상담실 운영=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전문상담실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가족갈등, 알콜, 흡연, 치매문제에 대한 상담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고소고발, 소송, 이혼, 채권채무 등 다양한 법률상담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형사고소고발사건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02)385-1351

강좌

▲밀린다왕문경=금강정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8시 두차례씩 밀린다왕문경 강의를 실시한다. 강사는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이미령씨이고 교재는 민족사에서 발간된 〈밀린다왕문경 1, 2권〉이다.(02)893-2700

▲불교상담 기초교육=광주 자비신행회는 4월 10일부터 3개월간 불교상담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진행된다.(062)222-1165

모집

▲교육원 계약직 종무원=조계종 교육원은 계약직 종무원을 모집한다. 1974년 이후 출생자로 대졸이상 종무원법상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심있는 불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이며 원서접수는 28일까지이다.(02)732-4923

▲합창단원=조계사 청년회 보리수 합창단은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 신심 깊은 불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17)746-4680 오미경

▲신입생=광주불교대학은 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 구비서류는 입학원서,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불교를 알고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62)375-7603

부음

▲황국근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의 모친 이순이(76)씨가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051)851-5209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북한 고아 돕자

JTS 10일 후원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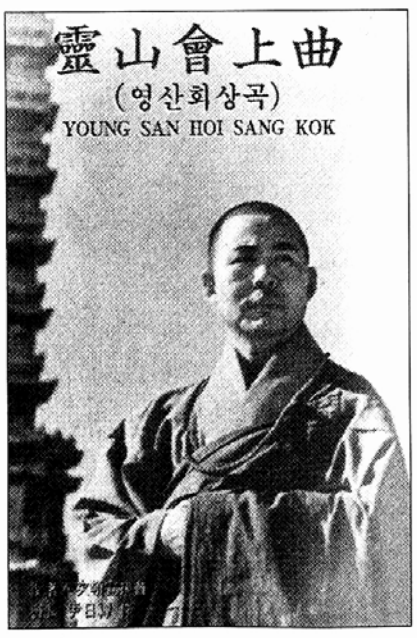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는 4월 10일 오후 7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행사'를 가진다.

북한 고아원 어린이들을 비롯한 제3세계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목스님의 사회로 탈북자 이명실씨, 인도 수자아카데미의 슈레쓰 찬드라 교장이 북한과 현지 빈민 어린이들의 실상을 보고하고, 국내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대신할 예정이다.

이어 성악가 엄정행, 피아니스트 주은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051)557-6372.

김재경 기자

靈山會上曲
(영산회상곡)
YOUNG SAN HOI SANG KOK



가격 : 4,000원(3월 24일부터)

천상에서 선녀들이
부처님을 찬양하시는 노래이시다.

靈山會上曲 (영산회상곡)

한국전통불교범패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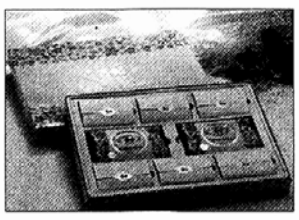
영산회상곡은 천상의 노래이자 부처님을 찬탄(贊歎)한 노래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인도(印度) 영취산(靈鷲山)에서 칠십이세부터 팔십세까지(팔년동안) 대승실교묘법연화경(大乘實敎妙法蓮華經)을 설교하실 때 전 불국토에서 모인 모든 보살과 사부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탈(解脫)에 이르게 되었으니 천상에서는 환희심(歡喜心)으로 꽃구름 속에서 선녀들이 여러가지 악기로서 노래를 연주하였다. 이름하여 영산회상곡(飛天像)이다. 영산회상곡의 음률에 따라서 범음성(梵音聲)이 시작되었고 오늘의 범창의식(梵唱儀式)과 각종 일반의식(염불)과 그리고 세상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도 영산회상곡의 음율로서 시작되었다.

이 곡은 韓國專門國樂士님들이 총출연(總出演)하여 오아시스 주식회사에서 정밀(精密)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불기 2545년 (2001년)3월 24일
조계종 沙門 尹日禪 作

주문처 전화 : 031-952-7031 휴대폰 : 011-9941-5818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1리 117번지 (임진강부근)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장의염불'로 남 위한 기도실천

신행현장 조계종 포교사단 서영부 거사

이름 서영부. 나이 61세. 학력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3학기 재학중. 직업 대정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특기사항 조계종 포교사. 활동 조계종 포교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경기 포교지단 장의염불 1팀장, 조계사 거사법회 의식법등장. 장래희망 불교실버타운 건립.

19일 일정. 오전 6시 부천 소사구 집에서 1시간동안의 기도를 마친 후 영등포 회사에 도착, 주요서류 결재. 오후 1시 견지동 포교사단 도착, 각종 기획 작성 및 포교사단 회의. 오후 2시 연화회에서 불교의식 강의. 오후 6시30분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수업.

서영부 거사의 개인신상과 활동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장의염불이고, 또 하나는 불교재가의식. 이것을 빼면 서 거사의 일상은 텅 빈 공간으로 남는다.

19일 오후 불교장례봉사단체인 연화회의 장의염불 봉사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의식 강의.

"자 보세요. 목탁은 가슴에서 주먹하나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바르게, 깨끗한 마음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여법하면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여법한 것입니다…"

'여법'. 서 거사는 '여법함'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활동의 준거로 삼고 있다. 불교재가의식과 장의염불에 뜻을 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에서 틈틈이 기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사업에 실패하고 설악산 봉정암에서 4박5일간 기도정진을 하면서 문득 남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장의염불이었습니다."

서 거사는 그 길로 연화회에서 장의염불 등 장례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상을 당한 불자가정이나 병원 영안실, 화장장을 찾아다니며 염불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불교계는 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거의 없을 때라서 서 거사의 이같은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서 거사는 여건만 되면 무조건 달려갔다.

서 거사는 96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말 그대로 여법한 장의염불을 하기 위해서는 포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포교사단의 장의염불팀과 조계사 거사법회에서 장의염불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장의염불은 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발원입니다. 이처럼 진실로 남을 위한 기도가 또 어

무연고자 임종봉사 계획

조계사 거사회 의식법등장

불교실버타운 건립 '발원'

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종교에 관계없이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노인들에 대한 임종봉사도 할 생각입니다."

서 거사의 장의염불에 대한 이같은 신념은 느지막한 나이에 향학열의 불을 지폈고, 지난해 동국대 불교대학 장례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됐다.

서 거사의 또다른 관심분야는 불교재가의식. 조계사에서는 거사회 의식법등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통일되고 쉬운 의식을 고집하는 서 거사의 주장은 주위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서 거사는 곧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불교의식 전문화교육에 나설 생각이다.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포교사단 1주년 법회에서 집전을 하고 있는 서영부 거사.

서 거사는 매일 아침 한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강화 보문사나 관음기도도량을 찾아가 철야정진을 하고, 매년 연말에는 설악산 봉정암에서 4박5일 기도로 새해를 맞는다. 이렇게 기도정진해 온 지도 벌써 8년째.

서 거사는 아침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

"뜻맞는 도반들과 힘을 합쳐 불교실버타운을 건립하고 그 안에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노스님들과 노인불자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향하겠습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홀로 독립된 존재는 없다

나는 '나'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남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로서 나를 위하고 나를 아낀다. 그러기에 남과 경쟁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도 사양하지 않는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는 '이기는 나', '으뜸가는 나'이다. 그런 '나'일 때 우리는 대체로 살 맛을 느낀다. 나무로 비유하면 언제나 잎과 가지가 무성하고, 둥치가 굵고, 뿌리가 튼튼해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모양 좋게 잘 자란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다. 대기와 태양과 토양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나무는 생명체로서 그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대기·태양·토양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다.

모든 생명체는 독립·개별적인 존재일 수 없다. 사람도 그점에선 다르지 않다. 단 한 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고 살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영양공급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홀로 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이는 '열려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관계는 생명체와 자연 사이에서만 그러한 게 아니라,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남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덕분에 잘 지내고 잘 살아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어찌 저 혼자 잘났다고 하랴. 빵 한 쪽만 나눠 주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거늘 나를 살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데 어찌 은혜를 모른다 하랴. 어찌 겸허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앞에서 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생명은 단 한순간이라도 독립적일 수 없다. 이것이 순리요 자연의 법칙이자 질서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밖으로만 봄구경 말고 마음도 새봄맞이 하세요"



화암스님
양평 사나사 주지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합니다. 쌓인 눈을, 매주 한 두 번씩 마을까지 치우기에 너무도 힘겨운 겨울이었지만, 이렇게 쌓인 눈만큼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산사의 봄은 달력의 절기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사에 봄이 왔다는 것은 자연의 소리로만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계곡으로 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꽁꽁 얼어있었던 그 곳에 말입니다.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이 흐르다니, 이제야 봄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사의 봄은 계곡의 물소리, 자연의 숨소리와

찾고자 하는 모든 것 자기안에 다 있는법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 물소리와 자연의 향기에 어느 스님의 게송이 생각나더군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어라,
농두산 꼭대기 구름 덮인 곳까지
짚신이 다 닳도록 헤매었지만,
지쳐서 돌아와 보니
가득한 매화 향기에 미소를 짓네,
봄이 벌써
매화나무 가지에 가득히 차 있음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봄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봄이 있음을 모르고 밖으로만 봄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중생의 마음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려는 마음으로는 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봄을 찾지 않고 밖으로만 봄을 찾아 나선다면 오히려 겨우내 꽃을 가꾸기 위해 애써 준비해 놓은 봄의 향기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는 '옷 속에 든 보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술에 만취되어 그곳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친구가 급한 용무로 외출을 하게 되어, 남아 있는 친구의 옷 속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넣어 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옷과 먹을 것을 찾으러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에 우연히 가난한 친구를 만난 부자친구는 "어리석은 친구여, 그대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넣어 두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옷과 먹을 것을 구하러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이제 이 보물로써 필요한 것을 산다면, 항상 모자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소중한 이들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떠나기 전에는, 지쳐서 돌아오기 전에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분별을 만들어 내고, 그 분별에 의해 밖으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당이나 극락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 돌리면 바로 여기가 천당이고 극락인 것을….

올 봄은 안으로 향해 떠나는 여행, 참나를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행캘린더

3월 28일 (수)

■재가연대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교단자정센터 발족식= 재가연대는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교단자정센터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한다.(02)725-6231

■보현문화회관 영가천도재 및 청화스님 초청법회=대전보현문화회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후 5시 큰법당에서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재를 개최한다. 또 오후 7시 설법전에서는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42)6555

3월 29일 (목)

■총화종 국난극복 및 국민 안녕 기원법회=총화종은 오후 1시 경주시 감포읍 문무왕 수중릉 앞에서 국난극복 기원 및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수륙대재를 봉행한다. (031)592-8891

3월 30일 (금)

■겁외사 성철대종사 생가복원 및 창건 회향 법회=산청 겁외사는 오전 11시 성철대종사 생가복원 및 창건 회향 법회를 봉행한다.(055)973-1615

3월 31일 (토)

■군불교진흥회 논산훈련소 수계법회=군불교진흥회는 오후 3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불자장병 650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749-5135

■조계사 청년회 3000배 철야정진=조계사 청년회는 대한불청 서울지구와 공동으로 오후 8시~4월 1일 새벽 3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년불교 활성화와 전국불청대회 원만성사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02)735-3724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서울경기지구 창립법회=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서울경기지구는 오후 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17)9728-1341 류성현

4월 1일 (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은행나무 심기=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식목일을 앞두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용인 선봉사에서 은행나무 심기 행사를 펼친다.

■상주 복장사 괘불친견법회=상주 복장사는 오전 10시 영산회상대불탱 친견법회를 개최한다.(054)533-5103

■강남구청 불심회 성지순례=강남구청 불심회는 고창 선운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구청 정문 앞.(017)709-2727 양승원

판매품
○ 元 白 (한방화장품)
○ POINT 24 (비만해소)
○ 元 白 (한방비누)
○ 원 백 (맛사지재)

전국지사

고전불가비법

■ 불자로서 대규모로 사업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개인사업 하실분
■ 현 유사업종에 종사 하시는분

대리점 모집

개발품
○ 般 若 (두뇌개발)
○ 감로화정 (당뇨)
○ 太平水 (숙취해소)
○ 淸心精 (기도용)

대한불교 太聖宗 총무원
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華林寺

대구 북구 읍내동 801번지(2F)
TEL : 053)322-8377(대표)
322-8302-3
FAX : 053)322-8307

복지마을 華林園
주식회사 일광한방

※ 본사업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화림원·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건립의 재정으로 쓰여 집니다. ※



박태원 교수의 30

불교로 보는 인생

봄날의 어떤 대화

"곧 출가합니다. 행자교육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축하합니다. 새 인생 시작되는군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출가 결심은 확고해졌는데, 걸어야 할 길은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직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도 수행법들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런 저런 마음 공부법에 돌두하며 힘든 마음 덜어보기도 했지만 얼마 안가 한계를 느끼곤 했기에,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방황을 끝내고 싶은데 아직 견해가 확립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공부 경험이 궁금하군요." "억눌린 욕구나 은폐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기를 유도하는 마음 공부법을 만나 몰두한 적도 있습니다. 억압된 욕구나 감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풀려나는 해방감도 맛보았고, 미처 감지 못하거나 둔감하여 오해했던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도 선명히 느껴 마음나누기가 쉬웠습니다. 인간 관계가 훨씬 좋아지더군요. 그러나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한계의 실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연에 몰두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공부법의 기본 원리에 내재된 한계일 겁니다. 사회 관행이나 이런저런 여건에 의해 타율적으로 제어받거나 억눌리던 욕구나 감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치유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문제를 억압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드러냄의 방식 역시 여러 한계를 안고 있지요. 자칫 욕구나 감정에 불필요하게 민감해져 새로운 예속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욕구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모습에 신선한 호감을 보내는 타인의 시선을 어느 듯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고도 하더군요."

"일단 해 보아야 안다고 하면서 미리 따져보는 것을 금기시들 하던데요." "수행의 언어들은 결국 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 해 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려 깊은 음미로 공연한 시행착오나 후유증을 피할 수 있지요. 마음 공부라며 다양하게 등장하는 수행법들에 무조건 몸을 맡기기 이전에, 그 수행 원리에 내재한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 예상되는 변화의 의미 등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공부법이건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인간 이해와 세상에 대한 관점 등 사상이 있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이나 원리의 의미나 가치를 깊이 음미하는데는 관심이 없고 일종의 마음 변화 테크닉들에만 몰두하는 듯 보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하는 길도 일단 눈 부릅뜨고 충분히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부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런 태도를 권하고 있기도 하고요."

"출가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한마디 부탁합니다." 굳이 듣고 싶으시면 평소의 개인적 감상을 몇 마디 밝히지요. 출가 수행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구도에 필요한 자유로운 탐색, 그 아무 전제 없는 순신의 자유가 스님이라는 특수한 입장 때문에 오히려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이 되고서도 지금처럼 누구하고나 허심탄회하게 공부며 인생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아마도 특별한 마음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불교계에는 이런 저런 불필요한 관행들도 있다고 봅니다. 책을 읽거나 지성을 다듬는 것을 수좌의 결격 사유처럼 여기는 풍조 같은 것을 극복해야겠지요. 전문 성직의 길에 널린 종교 권력의 합정들도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고. 이거 주제넘는 말이 너무 길어졌군요. 멋진 인생 펼쳐갈 앞날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봄 날 어느 오후, 그렇게 한 사람이 다녀갔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초보자 50분좌선 적당 눈 감지말고 반쯤 뜬채

참불자의 길

참선實修, 이것이 궁금하다

주말 상설수련회나 참선강좌, 주말 선방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의 참선 토론방이나 불교동호회 사이트 등에 참선수행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좌선의 올바른 자세를 비롯 망상을 없애는 방법, 시간, 호흡법 등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궁금증을 모아 최은섭 불자가 혜거스님(금강선원장)께 여쭈어 보았다.

-하루중 참선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불가에서는 참선할 때 특별히 좋은 시간이 있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양철학에서는 자정부터 낮 12시를 '살아 있는 시간' 이라 해서 '생기(生氣)' 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사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생기인 오전 6시부터 낮 12시에 참선을 하면 온 삼라만상의 충만한 기를 얻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근기와 생체리듬에 따라 언제라도 무방합니다.

-참선할 때 수식관과 호흡관찰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요?

오전 참선 효과 좋아

▲참선 할때 숫자를 헤아리는 수식관은 초보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참선법입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셌다가 다시 거꾸로 반복해 센다든지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참선만 하면 졸음이 오거나 번뇌가 생기는 이들에겐 가장 적합하지요. 또 수식관을 할때 의식을 단전에 보내 호흡시 단전의 팽창수축하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호흡관찰입니다. 이런 호흡관찰은 수식관을 반드시 겸하는 것이 이상적인 참선 방법입니다.

-좌선시 손과 입, 눈 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몰입할 수 있는지요?

▲좌선할 자세가 정비되면 먼저 오른손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 가부좌한 오른쪽 다리위에 수평이 되도록 올려놓고, 그 위에 왼손도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올려 놓아 양손의 손가락이 서로 포개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의 엄지손가락은 서로 끝이 맞물리도록 가볍게 밀면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법계정인(法界正印)' 이라고 하지요. 또 입은 가볍게 다물며 턱은 앞으로 끌어 당겨야 합니다. 좌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인데 눈은 감지 말고 반쯤 뜨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시선은 약 1m 앞쪽을 15° 각도로 응시해야 합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좌선시 바른자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좌선을 오래하다보면 몸이 경직됩니다. 어떻게 몸을 푸는 것이 좋습니까?

1m앞 15° 각도 응시

▲초보자들의 좌선 시간은 보통 40~50분 정도가 알맞습니다. 이때 30분이 지나면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생기고 50분 정도 좌선을 하면 몸이 빳빳하게 경직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몸을 풀려면 오히려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10~20분 정도 더 좌선 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선방 스님들은 참선할 때 몸이 굳어지면 선체조를 하기 보다는 보통 수식관을 통해 몸을 풀어줍니다. 즉 참선을 하면 통증이 하체보다는 상체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정신을 집중하고 좌선 자세로 20분 이상 아픈 부위를 관하면 통증이 가시면서 몸이 풀어지게 됩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번뇌와 잡념, 졸음 등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이를 물리칠 좋은 방법은?

▲허리를 펴고 눈을 감지 않는 바른 참선 자세가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면 번뇌망상과 졸음이 찾아오게 마련이지요. 만약 바른 자세를 취했는데도 계속 졸음이 오거나 삿된 생각이 생기면 꼭 이루겠다는 원력과 분심을 일으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삿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자체를 화두로 잡아버리면 더 없이 좋은 수행이지요.

김주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⑦

증시랑에 대한 답서(5)

분별의식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상(世間相)을 부수고 실상(實相)을 구하는 것이며 생멸(生滅)을 떠나 적멸(寂滅)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을 공부한다고 하면 고요한 곳에서 말없이 앉아 잡념을 내지 않고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거나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병에 응하여 약을 사용하는 임시적인 방편을 마치 선 공부의 필수과정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선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숨김도 없이 드러나 작용하고 있는 자성(自性)을 깨닫는 것이다. 즉 선은 견성(見性)하여 자신의 본래면목을 아는 것일 뿐이다.

자성은 말할 때나 입을 다물고 있을 때나, 움직이며 돌아다닐 때나 고요히 앉아 있을 대나, 어떤 생각에 골몰할 때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한결 같을 뿐이고 어떤 차별도 없다. 자성은 본래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차별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상(差別相)을 지어서는 안된다. 즉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고 버리고 취하고 한다면, 이것은 분별의식(分別意識)의 환상 위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뿐이고, 자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자성이 어떤 분별의식에도 속하지 않는 보편성을 가지는 까닭은 스스로에게 어떤 차별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바로 본다면, 고요한 때와 시끄러운 때가 차별이 없고 세간상과 실상이 다름이 없으며 생멸과 불생불멸이 같은 것이다. 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상은 아니지만, 또한 차별상을 떠나서 따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옛 스님은 "흐름을 따라 성(性)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고 하였고, 유마거사는 "비유하면 높은 등성이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 연꽃이 난다" 고 하였으며, 붓다는 "진여는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일체 만법을 성취한다" 고 하고, 또 "인연을 따라 감응하며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늘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성이 어떤 차별상에도 구속됨 없이 언제 어느 경우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선의 공부에는 어떤 특별히 정해진 필수적 공부과정이란 있을 수가 없다. 정해진 과정은 정해진 결과에로 이끌게 되지만, 선에는 어떤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이다 혹은 저것이 선이다 하고 정하는 순간 바로 변견(邊見)에 빠져서 선과는 어긋나버린다. 임제(臨濟) 스님이 법상에 올라 첫 마디에 "말을 하면 바로 어긋나버리며 발붙일 곳이 따로 없다" 고 말한 것이 이 까닭이다.

그러므로 선의 공부란 특정한 과정을 거쳐 특수한 기능을 연마하거나 어떤 숨어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다. 마조(馬祖) 스님이 "도(道)는 닦는 것이 아니다" 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요사이 몇몇 단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 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의 요소는 두 가지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공부인 스스로의 발심(發心)이다. 돈 · 출세 · 명예 · 학식 · 사랑 등 세속의 좋은 일들은 결국 나를 구속하고 나를 번뇌하게 하는 원인임을 알아서 이러한 모든 세속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발심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의 감로수를 눈 앞에 가져다 주어도 그것을 마시지 못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때로 마음을 직지(直指)하여 견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스승의 존재이다.

이 두 요소가 갖추어지면 선 공부는 반드시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슴 깊은 곳에서 간절한 발심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견성의 계기는 언제 어디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한 마디 법어로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셨던 성철 큰스님!
큰스님께서 속인의 모습을 나투셨던 생가터가 時空을 벗어난 절
'겁외사' 와 성철스님기념관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지리산 푸른빛에 눈이 밝아지고 경호강 맑은 물에 귀가 시원해지는 곳,
우리 곁으로 성큼 걸어오시는 성철 큰스님의 형형한 눈빛과 만나는 자리에
부디 동참하시어 그 광채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5(2001)년 3월 30일(음 3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지리산 겁외사(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210번지)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은 보시 큰 기름-자비의 쌀'로 이 회향법회를 장엄하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께서는 화환을 대신하여 다음 계좌로 보시금을 보내 주시면 산청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시주자의 이름으로 자비의 쌀을 성심껏 전달하겠습니다. (쌀 20kg 1포기준 50,000원)
우체국 014001-02-020105 예금주 : 여무의 (원택 스님)

성철대종사 생가복원 및 겁외사 창건 회향법회

· 지리산 겁외사 (055) 973-1615
· 서울사무소 (02) 744-1511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겁외사, 산청군청 • 주관 : 해인사 성철스님문도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법보종찰 해인사, 문화관광부,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진주KBS, 진주문화방송

이렇게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참과 거짓 살피는 지혜"

▩ 왕은 다음의 세 가지 일로 나라를 망친다.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성현에게 묻지 않고 충언을 듣지 않는 것. 즐겨 남의 나라를 치고 어진 백성을 양성하는 않는 것. (잡보장경)

▩모든 교활과 아첨 거짓과 사기나 훌림도 겉으로는 정직을 위장하였지만 속으로는 간사함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과 거짓을 냉철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잡보장경)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원인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어진 백성 즉 전문가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 여론도 묵살했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정부는 비전문가 장관을 임명하고 당과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 없다"는 말만 듣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것이 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반대 여론과 비판에 귀를 막은 것도 한몫(?)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간부는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묵살됐고 결국 해직까지 됐다는 후문이다.

부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할 것이다"라고 설한 것처럼 여러 비판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전문가들의 철저한 보완작업을 거쳤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비판을 듣기 싫어하면 독선을 부르고 그것은 곧 파탄에 이른다는 진리를 보여준 셈이다.

건강(의료) 보험 파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빚어지는 당(黨) · 정(政) · 청와대간의 책임 공방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차례나 '자신 있다' 고 말해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의약분업은 관료들의 책임이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청와대) "추진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 공약 지키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결정한 일인데 복지부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복지부)

이밖에도 '수습이 우선이다' '인책을 병행해야 한다' '모두 바꿔야 한다' 등 서로간의 반목질시(反目嫉視)가 무성하게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의 무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깊은 반목과 논쟁으로 빠져든다" 고.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감한 자기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아와 연기사상을 여러 방편을 통해 수없이 강조한 것도 참나(眞我)를 향한 자기 혁신일 것이다. 한낱 자기의 인생관과 정치관 그리고 자존심의 부질없는 형상에 끄달려 편협함을 자초하는 이기를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부처님의 이 같은 사상은 또 다른 인간의 세계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대학교육 체계 흔드는 '고학력 실업'

불자 세상보기

교수-학생간 불신 가중
국가적 인적자산 방치
다양한 해결책 필요



송일호
동국대 교수
경제학

실업자가 IMF이후 다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년 가까이 정규교육을 끝내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졸업자들의 신규채용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할 국가적 인적자산임을 감안할 때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현재의 실업은 경기적 실업 외에 격변하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졸 미취업자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일부러 졸업을 늦추기 위해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든가 하는 다소 여유있는 선택을 하는 반면에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박람회에 참여구직 등록을 하고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의 구성을 원만히 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고학력자가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이어 사회의 각 주체들 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실용성 측면에서 저평가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회의를 품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급자는 나름대로 교육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특성상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모든 학생의 취업을 위해 커리큘럼을 그 쪽으로 바꾸고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동서분주해야 한다면 대학의 학문적 위치와 교육 본연의 임무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와 강의를 잘하는 교수 보다 취직을 잘시키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 존경받는 현실에 대해 허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선진국의 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정서나 환경을 고려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규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장래를 보장하는 보험과 같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대학 가길 원하고 이를 위해 부모가 그토록 희생하고 있는가? 출세를 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교육에서 찾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또한 학맥이라는 연줄망을 통해 입신출세의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어설픈 바람도 없어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학문적 요구와 열망에 의해서만 대학교육의 수요가 발생하여야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규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같은 다양한 대안교육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을 통해서만 국가의 인적자원이 축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용학문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으로 대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실행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바미안 대불 파괴라니 남의 종교도 소중한데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대불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이 문명시대라는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흔히들 종교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세계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종교만큼 국경이 뚜렷한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종교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종교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신념체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공존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믿는 종교만이 참 진리라고 확신한 나머지 남의 종교를 폄하하거나 멸시한다면 공존의 원리가 깨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믿는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 종교간의 우열을 논한다던가 내 종교만이 옳다는 식의 편협한 주장은 버려야 한다. 남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석준 · 경주불교청년회 지도법사)

성직자 본분 망각하면 결국 공든탑 무너져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혜진스님이 여직원과의 관계로 물러난 것은 몹시 가슴아픈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차적으로는 스님의 잘못이며, 또 스님이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불자들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세상은 갖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심지어는 혼돈스런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른 길을 가며 살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술, 노름, 마약, 이성, 돈, 명예, 출세 등 탐진치로 얽혀 있어 잠시라도 한 눈을 팔게 되면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혜진스님도 바로 그런 경우다.

우리는 혜진스님 문제를 혜진스님의 개인문제로만 치부하거나 말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누구나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함은 비단 성직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법회에서 한 스님이 행자들에게 "중은 하루에 한번씩 제 머리를 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스스로의 본분을 늘 잊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스님이든 불자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김광조 · 충남 천안시 쌍용동)

물고기 방생 지양하고 자연 살리는 방생 찾자

방생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진작에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반가웠다.

정월보름이나 초파일을 앞두고는 어김없이 물고기 방생을 하는 것이 불교계의 관례다. 하지만 명목만 방생일 뿐이지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환경이나 생태학적인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방생으로 풀어놓은 물고기들이 죽은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본다. 이럴 때마다 불자로서 안타까움에 앞서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직도 많은 사찰에서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무시한 채 물고기 방생법회를 강행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더이상 상식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물고기를 방생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불우한 이웃을 돌아본다면 몇 천배 뜻깊은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은 인간에게 조건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왔다. 하지만 인간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기만 했을 뿐이다. 자연에 대한 섣부른 간섭은 자연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 물고기 방생은 분명히 자연생태계 파괴다. 이제는 이런 방생문화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생문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김갑숙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기고

'1인 시위' 나서는 두 스님 모습서 불교의 미래 본다



이상효
실천승가회
사무차장

지난 8일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이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한 · 미간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0일에는 수경스님이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단독 시위를 벌였다.

이 두 건의 시위는 스님이 시위를 벌였다는 단편적 사실보다는, 양국간의 상호평등에 기초한 소파협정을 마련할 것과 환경을 파괴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사실 불교계가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사회참여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굳이 분야를 나눠서 말하자면 환경과 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민감한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불교의 사회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 인권, 환경, 마약,폭력과 같은 사회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참여와 폭을 넓히고 있다. 티베트불교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내에 일고 있는 참여불교는 그 좋은 예이며, 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활발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스님의 사회참여를 수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역사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어져왔다. 그 둘 모두 역사의 주인공인 것이다.

수행하는 스님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불평등과 불합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스님의 모습에서 밝은 불교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2545년 봉축 현수막

13도 칼라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2545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같이 5월 1일 사월초파일 도선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가능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마음청정 나라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연등축제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불법제작 판매 불허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 종합불교관(051)816-2926 ■대구-삼영불교서적(053)425-4097 ■광주-무등원(062)232-0904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 용해불교(042)283-3727 · 중앙불교(042)222-7840 ■경북상주-고려문헌사(054)541-5599 ■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455-1068 ■충주-중원불교마당(043)851-8477 ■공주-시대불교사(041)856-3280 ■경기광주-광주만물(031)762-1083 ■의정부-삼보불교사(031)856-1020 ■경남밀양-밀양불교사(055)355-5742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 · 4307 · 4309 FAX.(02)738-8682

사·부·대·중

스님과 신도 사이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드라마 '아줌마'가 끝이 났다. 이 드라마의 재미는 지식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감칠맛나는 대사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온갖 철학적인 용어와 사회학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이해하기 힘들게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자기변명에 급급한 말들이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었다.

입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과 달리 속은 시궁창 같고,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보다 학벌이든 무엇이든 외형적으로 쳐진 듯하면 대놓고 무시하는 속물 지식인, 추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뿐이지만 그걸 이루는 방법은 인맥이나 학맥을 동원한 줄대기와 뇌물, 아부밖에 없다. 이것을 드라마에서는 '장진구'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 '장진구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불교계에는 이런 '장진구한' 일들이 없는 것일까? 드라마의 '장진구'로 대표되는 지식인 사회와, '아줌마'로 대표되는 일반인 사이의 괴리는 일부 스님들과 신도 사이의 그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 '아줌마'는 늘 계몽시켜야 할 사람으로 보는 '장진구'처럼 스님들은 신도를 가르쳐 깨우쳐야 할 대상으로만 이해한다.

특히 신도들, 또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법문을 하는 스님은 '장진구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법문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설하는 것이라고 해도 앞뒤 맥락 없이 던져지는 어려운 한자어들은 암호처럼 들릴 수 있다. 속제를 통해야 진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데 직접 진제의 언어들이 펼쳐지니 그것을 받아 보는 '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산은 산, 물은 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쉬운 우리말로 된 법어를 발표하셨던 전 조계종 종정 성철 큰스님의 생가가 기념관으로 조성되어 그 회향법회가 3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장진구한' 세상에 새삼 성철 큰스님이 그리워진다.

목탁소리

반가운 동반사퇴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이 17일 전격 동반사퇴함에 따라 태고종의 내분이 일단 마무리됐다. 주위의 우려처럼 물리적인 충돌이나 중징계 등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결국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낸 데 대해 "과연 정통종단답게 대화로써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칭찬을 들을만 했다. 사실 불교계 최대 축제인 초파일이 엄마 남지 않은 데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종단이 둘로 쪼개져 종도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결국 공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팽배해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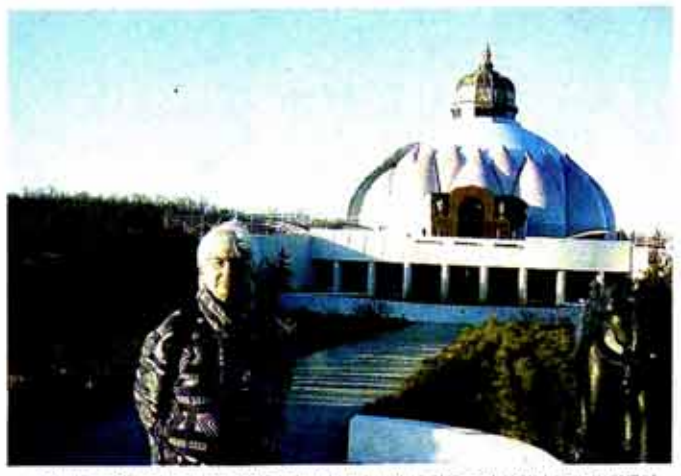
쉽지 않은 결정을 흔쾌히 내린 종연스님에게 박수를 보낸다. 십여년 전부터 성주암의 사찰재정공개를 어느 사찰보다도 먼저 실시한 일에서 주지하다시피 종연스님은 참신한 이미지로, 변화와 개혁을 염망하는 젊은 스님들의 추대와 지지로 총무원장에 당선돼 기대를 한몸에 모았다. 따라서 원장으로 자신의 포부를 채 펼쳐보이기도 전에 자질시비가 일어나 물러나게 됐으니 당사자로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많았을텐데도 모든 것을 깨끗이 접고 용단을 내려 화합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대해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높이 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두 총무원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태고종은 앞으로의 행보가 더 관심거리이다. 여법한 선거절차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될 덕망과 자격, 능력을 지닌 적합한 인물이 선출되고 새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이번에 드러난 종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여는데 종단의 총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7인방' 스님들을 비롯 태고종단 전체가 마음을 합해 원만히 해결해 간다면 이번의 분규사태는 비온뒤의 땅이 굳어지듯 종단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화합 차원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의 대승적인 희생심이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며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태고종은 명심했으면 한다.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트윈오크스 주민들은 매주 1회 사롯스빌에서 모임을 갖고 사회운동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12개 종교인들의 수행공동체인 요가빌의 로터스 성소. 각 종교의 상징과 교조, 경전들이 모셔져 있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 '美 공동체마을 생활체험' 보고서

"더불어 사는 삶, 아름다운 삶"

오늘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운동의 하나인 공동체운동은 생태주의운동가, 페미니스트, 종교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7일 서울 정토회 강당에서 두 달간 미국의 주요 공동체마을에서 생활체험을 하고 돌아온 유정길 사무국장의 보고회를 가졌다. "공동체 주민들은 공동체운동의 역사를 언급할때, 승가공동체를 가장 먼저 말했다"는 유정길 국장은 "공동체 탐방을 통해, 공동체운동은 정토와 불국토란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노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보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살맛나는 공동체 트윈오크스

700여 공동체 서로 연결 전형적 생태마을 운영



유정길
사무국장

"낮에는 열심히 농사짓고 그물침대를 짜고, 두부도 만든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에는 언제나 마을사람들과 노래와 놀이, 춤추기와 토론회, 그리고 다양한 축제가 벌어진다. 조용히 연못가를 거닐기도 하고 조그만 강을 따라 카누타기를 즐긴다. 저녁 무렵에는 언덕 위 나무에 메어있는 그물침대에 누워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기도 한다. 100여명이 함께 밥을 먹고, 탁구 등의 게임을 하며 영화를 보기도 한다."

이 곳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사회가 아니라, 현실에 염연히 존재하는 사회의 일부분이다. 미국 버지니아의 주도(州都)인 리치먼드 근처에 있는 트윈오크스 공동체(Twin Oaks Community)이다.

미국의 경우 '공동체 편람'에 나오는 공동체만해도 약 700여개가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공동체인 트윈오크스는 반문화운동이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등 서구에 한창 풍미하던 시절 67년에 시작됐다. 이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B. F. 스키너의 〈월덴투(Walden 2)〉를 읽고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공동체는 미국 전역 700여 공동체를 네트워크하는 구심점인 FIC (Fellowship of Intentional Community)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30년간 전형적인 생태마을로서 대안적 에너지와 새로운 인간관계, 어린이 교육 등이 시도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곳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미국의 반문화운동, 학생운동과 히피의 세대들이다.

트윈오크스는 20여개의 크고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1,820만 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 모든 건물은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에도 환경을 고려하여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 자원 재활용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고,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두부를 생산하여 팔고 있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다. 제도교육은 아이들의 인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수행공동체-요가빌

12개 종교 이타적 어울림 "모든 종교 숭배의 대상"

스리 스와미 사치다난다(Sri Swami Satchidananda)가 이끄는 수행공동체인 요가빌(Yogaville)의 로터스성소는 연꽃모양으로 지어져 있다. 둥글게 12개 종교의 상징과 교조, 그리고 경전들이 모셔져 있다. 12개의 종교(불교 도교 신도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아프리카종교 시크교 자이나교 인디언주술 유교 등) 모두가 인류에게 깨달음과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공통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종교 이념을 내세우는 이곳은 사원에 여러 성인들의 사진이 걸려있으며 예배를 보기 전에 경(Chant)을 읽는데, 뒷부분에는 여러 종교의 주력을 외우는 대목이 나온다. 모든 종교가 숭배의 대상으로서, 이곳의 모토는 "진리는 하나이다. 단지 많은 길이 있을 뿐"이다.

이곳은 하타(Hatha)요가와 라자(Raja)요가 카르디악(Cardiac)요가를 통합해서 수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사치다난다 이외에 주황색 가사를 입은 수행하는 스와미가 16명 있다.

■ 도시공동체-가나스

사회운동가들 개방적 삶 '공동작업 마음나누기'

뉴욕 스테튼 섬에 있는 가나스(Ganas: Strong Motivation)는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도시공동체로서 재활용매장 4곳을 운영하여 100여명이 함께 살고 있다. 아침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일에 대한 마음나누기를 하고 6시30분까지 작업을 하고 사람들끼리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

가나공동체는 개방적 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실험장이다. 이것은 달혀진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며,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집중하여 완전히 개방을 한다. 이의 목적은 갈등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The Foundation for Feedback Learning'은 1978년에 시작했다. 1979년에 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5명으로 증가하여 큰 가족을 이루었다.

■ 가톨릭일꾼공동체

행려병자 · 홈리스 등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맨하탄의 남쪽끝에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이들의 공동체인 가톨릭워커 공동체가 있다. 이곳에는 성요셉하우스와 매리하우스가 있으며, 이곳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과 행려병자와 홈리스등이 함께 50여명이 살고 있다. 도로시데이(Dorothy Day)와 피터모린(Peter Maurin)에 의해 시작된 공동체로 미국 전역에 약 150여개의 공동체가 있다.

인격주의, 탈중심적인 사회, 녹색혁명, 비폭력, 손으로 하는 육체노동,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농경공동체사회 등이 가톨릭일꾼운동의 철학이자 기본방침이다.

뉴욕주변에는 브루더호프라는 아주 성공적인 기독교공동체도 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②

지난번 부처님 열반재일에 상쾌한 소식 하나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다. 3년 동안 무문관 수행을 하시던 어느 대덕스님이 회향식을 가지려 하니, 1500여 불자가 모여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선사왈 "세상의 관심이 줄었을 때 조용히 나오겠다"고 하시며,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이라고만 이르셨다는 내용이다. 무문관 수행이라도 우리 가풍에서는 밥 먹고 발우 닦는 일상사에 지나지 않는데 따로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은 피고,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는 일상사 속에 모든 깨우침의 소식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화엄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눈을 부라리고 노려보는 것은 성이 났다는 표시이며, 급하다고 교통규칙을 어기는 것은 차서 보리나무 아래서 정각 이루고 / 중생들을 제도하려 몸을 나타내 구름처럼 오는 세상 끝없이 가득하도다."

"중생들의 의심은 모두 끊으며 넓고 크게 믿고 알음을 내게 하시며 / 그지없는 괴로움 덜게 하시며 부처님의 즐거움 얻게 하네."

화엄에서는 광명의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광명운(光明雲)이오, 공양 역시 공양운(供養雲)이다. 그래서 대중이 많이 모인 것을 운집대중(雲集大衆)이라 하니 〈화엄경〉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즈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입과 치아에서 한없는 광명을 뿜어내신다. 화엄에서는 모든 수행자를 보살대중이라 일컫는다. 또 〈화엄경〉 80권에 열 번 이상의 방광(放光)을 볼 수 있는데, '현상품'에서는 두 번의 광명을 보이신다. 치아 속에서 광명이 나오고, 눈썹 사이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보살행이 곧 성불의 길

부처님 안계신 곳 없어 "처처법당 사사불공"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 불단에 올리는 과일 한 접시, 공양 한 그릇도 정성을 다해야 하리라.

〈화엄경〉은 부처님의 성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세상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성불을 계기로 함께 모여 자신의 수행담, 얻은 바 경계를 게송으로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화엄경〉 전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관심사에 대해 이렇게 설법하고 있다. 첫째,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곧 보살행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고 둘째, 수행을 어떻게 하여 성불할 것인가? 곧 보살행을 잘 닦는 것이 곧 성불의 길임을 한결같이 웅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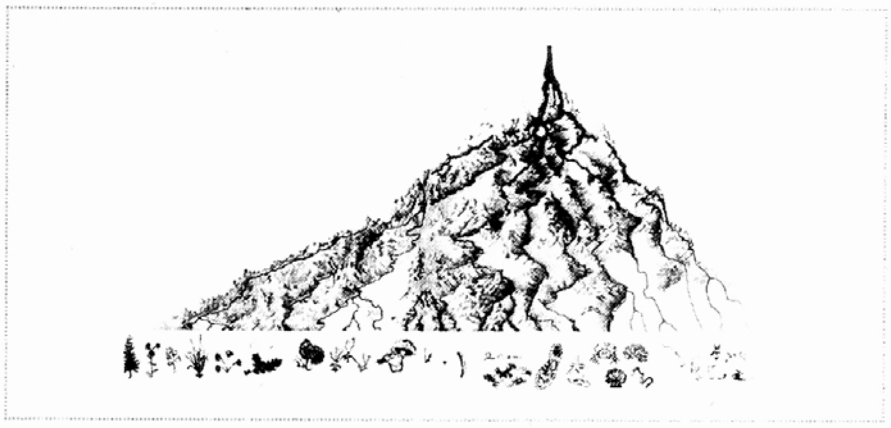
이제 다음으로 둘째 품인 '여래현상품'으로 이어보자. 찬탄을 마친 대중들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일고 있었다. 이런 의문점을 품고 있을 때 또 공양구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게송으로 법문을 청하는 장면이다.

"한량없는 겁 동안에 수행이 말이다. 경문을 보자.

"그 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입과 치아로서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광명을 놓으셨다. …, 그 때에 좋은 음성을 가진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 곳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 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보리좌(菩提座)에 항상 계신다. 여래께서 보리좌에 앉아 계신데 한 털끝에 많은 세계 나타내시며 털 하나하나에 나타냄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온 법계에 계시는구나."

아주 유명한 게송이다. 부처님의 몸이 아니 계신 데 없으시니 선 자리에서 합장하고 염불하면 감응이 내리신다. 처처법당(處處法堂)이요 사사불공(事事佛供)이다. 영상으로 부처님을 모셔놓고 인터넷으로 일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유명한 기도처가 아니라도 정성만 지극하면 영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불교와 과학 〈23〉

인간중심 사고 환경위기 불러

생명의 평등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는 35억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자연의 책을 써왔다. 그런 자연의 책은 최초의 아미노산 유기성분의 성립에서부터 영장류의 최고라고 하는 오늘날의 인간종에 이르는 기나긴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런 생명의 역사 속에서 개별 생명체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관계와 섭동을 거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표류하는 존재였다. 표류하는 가운데 삼엽충같은 생명종은 2억 년 전에 이미 진화의 역사 너머로 사라져 버렸지만, 아메바나 도마뱀 같은 생명종은 끈질긴 관계와 섭동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렇게 진화의 표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전히 방향과 끝을 모른 채 생명의 진화는 표류하고 있다. 그런 시간의 진행 속에서 오늘날 남아 있는 생명종들은 식물과 동물로 갈라졌고, 양서류나 포유류 등으로 갈라져 진화의 종착점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식물은 동물보다 진화적으로 우월하고, 포유류는 양서류보다 우월하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이런 생명종의 우위비교는 인간종의 아주 못된 습관 중의 하나이다. 인간인 '나'만이 진화적으로 가장 우월한 영장류 중의 영장류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심보와 같다. 인간의 이런 못된 심보는 생명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진화거쳐 똑같이 살아남은 생물
다른 種보다 우월한 생명없어

사람들은 생명종들을 비교하면서 은연중에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다툼과 뽐냄이라는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생명의 역사에 투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의 진화에서도 더 잘 적응한 것과 덜 적응한 것으로 생명종들을 분류하면서, 인간종은 스스로의 지위를 가장 적응도 잘 하고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생명종의 역사는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혹은 덜 적응된 것은 없다. 그냥 모든 생명종들은 모두 잘 적응한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개구리는 차가운 온도변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에너지를 갖고서도 생명을 존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겨울잠을 선택함으로써 최적화의 적응을 이루어 낸 것이다. 겨울 철새들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쪽을 향해 3000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한다. 철새는 따듯한 날씨를 찾아 옮겨 갈 수 있는 탁월한 비행능력과 방향감각이라는 고도의 적응력을 갖추게 되었다. 펭귄과 물표범은 두터운 지방피부를 가짐으로써 매서운 추위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종의 하나인 인간은 인위적인 옷과 불을 만듦으로써 겨우 추위에 적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물분류학의 하나는 계통발생학에 관한 것이다. 35억 년 진화의 시간동안 최초 유기체 성분이 모여서 단세포 원핵생명체를 만들고 이것이 진화하여 진균류로, 이어서 수생동물로 이어지고 수생동물은 양서류로 진화하다가 파충류로 이어지고 파충류에서 시조새나 혹은 후일 포유류로 되었다가 영장류로 진화하고,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인간종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진화의 가지가 단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 위에만 성립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이 최고라는 우월적 지위를 못 버리고 있다. 그러나 진화의 나무는 단 하나만의 가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지를 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각각의 생명종들은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진화의 완성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보자. 민둥산 산꼭대기에서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린다고 하자. 그러면 꼭대기의 물방울들은 처음에 같이 흐르다가 금새 나뉘어져 길을 달리한다. 순전히 우연적인 방식으로 물방울들의 흐름은 계속 갈래를 치고 다시 갈래를 쳐서 마지막 바닥에 와서 갈래치기가 끝날 것이다. 이러한 물방울의 갈래치기 흐름이 바로 물의 표류이다. 이를 생명 진화에 비유시킨다면 물길의 다양한 갈래치기 분화현상이 바로 진화의 표류이며, 그 결과는 새로운 생명종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도착지는 바로 오늘 현존하는 생명종들의 현주소가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진화의 도착지에 도달한 현존하는 모든 생명종 혹은 생명개체들은 누가 더 우월하거나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자연의 험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진화의 섭동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환경위기이다. 그런 위기를 자초한 것은 결정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인간 이기주의에서 연유하며 이는 곧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에 대한 천시에 있다. 무수히 많은 생명개체들이 오늘날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앞서의 이야기를 잘 새기기만 해도 아마도 인류가 안고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유정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도법스님이 한 말을 인용해본다. "생명 위에 생명 없고 생명 아래 생명 없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여러 종교 가지니 유익하고 즐거워요"

지구촌 불교 / 獨 1인 다종교 붐

독일인들이 1인 1종교의 틀을 깨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디에이피(DAP) 통신에 따르면 독일인들이 에조테릭(Esoterik)과 같은 영적 체험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 나머지, 전통 종교의 신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이 같은 체험을 추구하는 주요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흔들고 있다.

예를 들면 쾰른시에 사는 빌이란 여성은 중국의 태극권을 연습하면서, 일년에 한번씩 명상 캠프에 참가하고, 동시에 인디언 추장의 생활지도 세미나를 찾아간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신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다.

심지어 중년의 어느 여의사는 교회 성가대에 속해 있으면서 명상을 배우고, 수피 인디언 교사를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성경이 놓여 있지만, 음식은 인도의 베다 요리방법을 따라 만든다.

비밀스런 의식을 뜻하는 '에조테릭'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함부르크시의 레이지(Lurage) 서점은 3만 명의 단골손님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들 중 1만 명 정도는 서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정도로 골수 회원이다.

기존 종교 식상 타 종교 체험 늘어

기독교인 태극권 배우며 인도 명상

서점 주인 립 씨는 에조테릭의 성공 요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 둘째는 재미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종교가 에조테릭과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미 부분이다. 다시 말해 독일인들이 전통 종교의 진지함이나 경건함보다는 재미나 즐거움이 결합된 영적 체험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지난 2년 사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탈퇴한 사람만 6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예시해 준다.

디에이피 통신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사회가 효율성을 추구하고 개인이 단자화(單子化) 될수록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영성의 체험 욕구는 더욱 커진다"는 종교심리학자의 진단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인들은 이런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종교, 또는 상이한 초월적 체험의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종교심리학자 에버츠 씨는 이러한 현상을 "종교적인 것의 분산"으로 정의한다. 독일과 같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종교도 삶의 스타일만큼이나 다원화하며, 이에 따라 한 종교의 독점 욕구는 불가능한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비판적 기독교 신자인 종교사회학자 외르크 씨는 "기성 종교는 신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찾는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에이피 통신은 결론에서 "종교는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적 경험과 영적 체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

六壬來情秘法

改訂增補版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993-8680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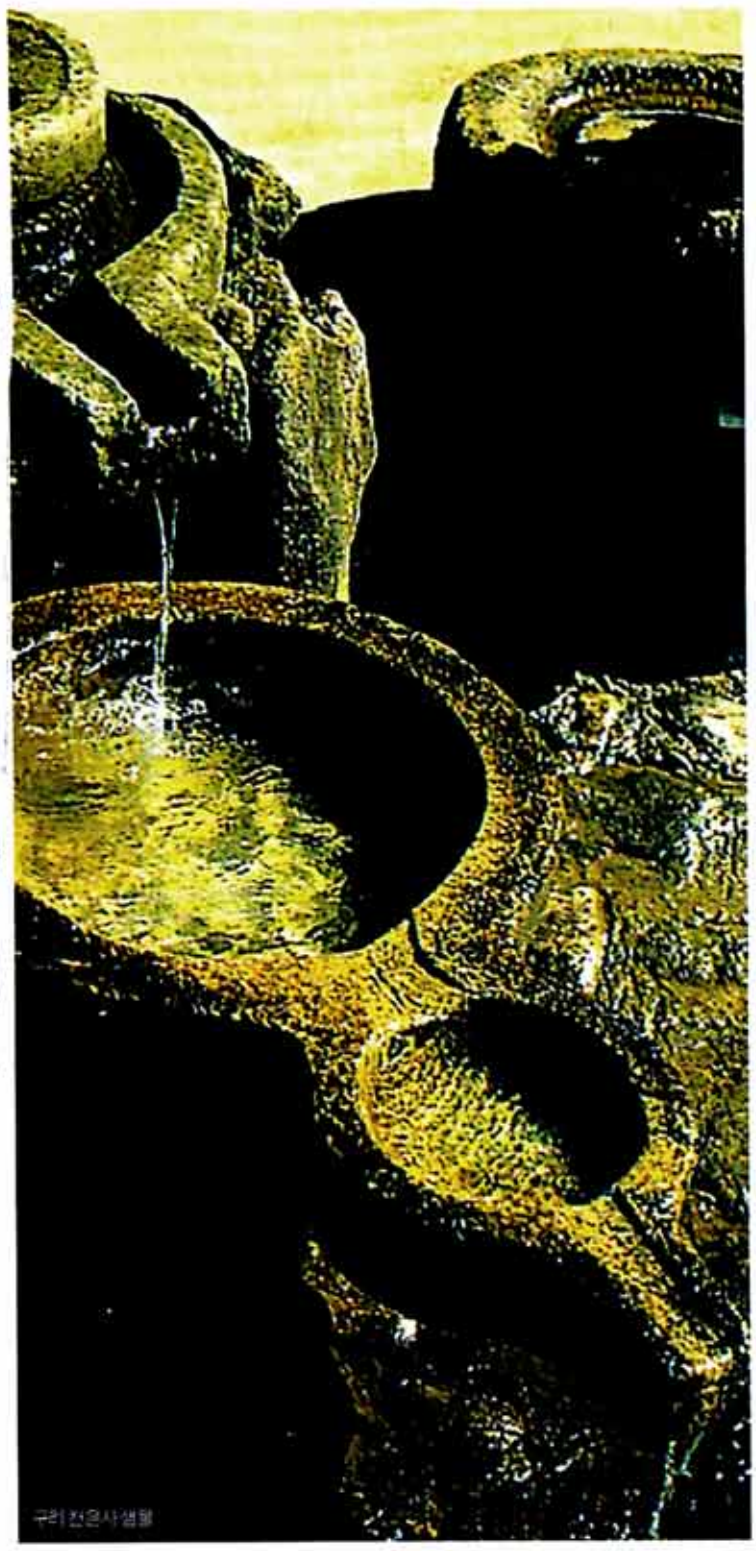
도서출판 卜 問 율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17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구리 천은사 샘물

산사의 샘물-약수

돌틈으로 솟은 단물 한 모금 머금으면 나와 우주가 하나


영월 영령약수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젖줄이다. 생명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물과 함께 한다. 인간은 잉태되면 어머니 뱃속의 양수 속에서 인체조직이 형성되고 발육되며, 달이 차면 양수와 함께 세상에 나온다. 우리 몸은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체중의 약 80%, 성인은 60~70%, 노인은 50~60%가 물이다. 그래서 노화를 '건조의 과정'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물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 신앙의 한 가운데에는 샘이 있다. 첫 새벽 샘터에서 길어 떠놓은 맑은 물 한 그릇은 이미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물'이 아니다.

조선 후기 다성(茶聖) 초의선사는 〈동다송〉이라는 책 '품천(品川)'에서 좋은 샘물의 조건으로 8가지를 들고 있다. 맑고, 차고, 가볍고, 부드럽고, 무색, 무취, 무미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샘의 자연미를 강조한 것이다. 땅 속의 수백이 지층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광물질을 함유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지표면을 돌고 나오면서 이뤄진 샘을 이른다. 사실 샘물은 지표로부터 지하 30~40cm의 지층을 거치지 않으면 증류수와 다름없는 맹물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요즘 시판중인 먹는 샘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대부분 지하 수백 미터에 쇠파이프를 박아서 퍼 올리기 때문이다. 땅에 쇠파이프를 박는 일은 자연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요, 그렇게 해서 뽑아 올린 물은 자연으로부터 강탈한 물이어서 자연의 섭리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좋은 물이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물이다. 주변의 들꽃 내음과 새 소리, 청초하기 그지없는 산 기운과 해맑은 하늘까지 담고 있는 물은 그대로 자연미의 극치를 이룬다.

일체의 사물을 불성의 현현으로 보는 불교에서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찍이 원효대사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신 뒤 깨달음을 얻었고, 석대지장샘은 '성불의 샘'이라고 불린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절 가운데는 약수나 샘물로 이름난 곳이 많다. UN이 정한 '물의 날'(22일)을 맞아 물맛 좋기로 소문난 절을 알아본다.


수정암 우통수

오대산 수정암 우통수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은 한강 물을 사서 먹었는데 강물 한가운데로 흐르는 물을 한중수(漢重水)라 하여 다른 물보다 3배나 비싸게 쳤다고 한다. 이 물이 바로 오대산 우통수다. 우통수는 오대산 수정암 사립문 앞에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물이 마르기 시작한 뒤부터는 수정암에서도 암자 뒤 바위틈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먹고 있다.

승주 선암사 약수

이른 봄의 매화가 특히 아름다운 선암사에는 800년 전통의 다원이 있다. 당연히 선암사엔 맑고 그윽한 샘물이 넘쳐 흐른다. 경내 곳곳에 있는 샘물에는 어김없이 봄꽃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물맛을 더한다. 입에 머금으면 마치 꽃잎을 삼킨 듯 입 안 가득 꽃내음이 고인다.

곡성 태안사 돌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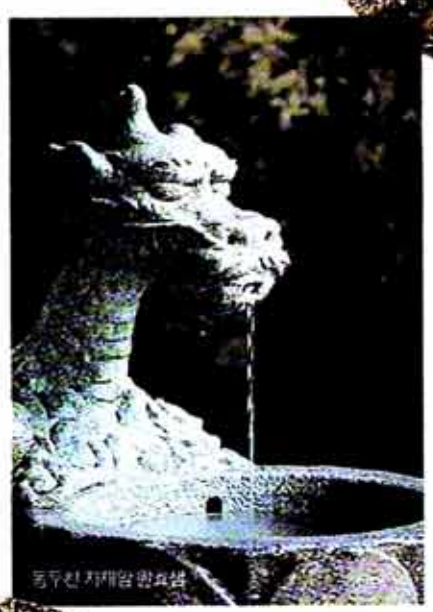
지금의 태안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구산선문의 유서 깊은 절로 한때 화엄사를 거느리기도 했다. 경내에는 지름 20m쯤 되는 큰 연못이 있고 가운데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는 석탑이 있다. 대웅전에서 선방으로 가는 길을 따라 2, 3분쯤 가면 계류가 나오는데, 그 계류에 걸린 돌다리 아래에 이끼를 잔뜩 머금은 석간수가 돌샘이다.

구례 천은사 감로천

창건 무렵 절 앞뜰에 '정신을 맑게 해 준다'는 감로천이 있어 절의 이름을 감로사라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타 중건하면서 절 이름을 천은사로 고쳤다. 절을 중건할 때 감로수를 지켜 주던 구렁이를 죽인 후 감로수가 말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홍루를 지나 사천왕문으로 오르는 계단 왼쪽에 커다란 석조가 있다. 감로천 옆 찻집 앞에도 작지만 예쁜 샘물이 있어 수객의 아쉬움을 달랜다.

구례 화엄사 옥천

화엄사는 쌍계사와 함께 우리 나라 차문화의 중심지다. 차의 맛은 물에 있다는 말이 있듯 물맛 또한 유명하다. 법종각 북서쪽 산자락의 울창한 동백숲 아래서 솟는 옥천이 바로 화엄사 차맛의 전통을 지켜온 샘물이다. 귀한 샘물이라 이름도 '구슬 옥(玉)' 자를 썼다. 요즘도 스님들은 차를 달일 때 이 물을 쓴다고 한다.


동두천 자재암 원효샘

두륜산 일지암 유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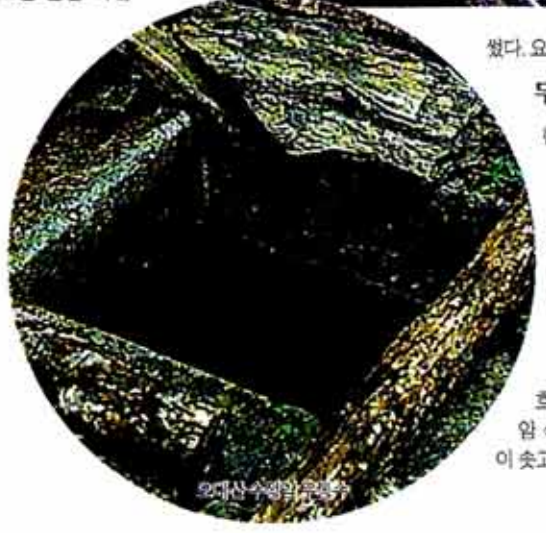
일지암은 조선 후기의 선승 초의선사가 우리 나라 다도를 중흥시켰던 곳이다. 일지암 유천은 초의선사가 좋은 물이라 자랑하던 샘물로 초의선사가 강조한 물의 여덟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부여 무량사 샘물

무량사는 매월당 김시습이 말년에 머물던 곳이다. 극락전 앞뜰 한켠에는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다. 조각해 놓은 용머리의 입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본당 위쪽 태조암의 물맛도 좋다.

동두천 자재암 원효샘

원효대사는 이 땅 곳곳에 수많은 절을 세운 것으로 나오는데, 스님이 세운 절에는 대개 맛좋은 샘물이 솟고 있다.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소요산 자재암 역시 원효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나한전이 자리잡은 동굴에 원효샘이라는 맛좋은 석간수가 흐른다. 차를 즐겼던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이 곳을 지나다 자재암 석간수 물맛을 보고는 감탄하여 '원효가 찾아드니 돌 틈으로 단물이 솟고'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오대산 수정암 우통수



글=권형진 기자(jnny@buddhapia.com)
사진제공=민병준(여행 칼럼리스트)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죽순직화구이

신라 화랑의 대표격인 김유신은 전국 산천을 돌며 솔잎과 생쌀을 먹으면서 심신을 연마했다. 자식을 훈육할 때 김유신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할 만큼 그의 용맹과 명성은 천하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김유신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 할 지병이 있었는데, 바로 건망증이었다. 원래 솔잎을 많이 먹으면 치매증상이 오게 되어 있다. 솔잎에는 혈액 속에서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 있어 이것이 몸에 축적되면 모세혈관을 막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음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화류계에 명성이 자자했던 절세미인 천관(天官)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신해진미가 나오는 다른 술집과는 달리 천관녀의 집에서는 달랑 두 가지의 음식만 나왔다. 처음에는 푸대접을 받는다고 오해했지만, 천관녀의 집에서 술을 먹고 나오면 늘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 후 그는 더 자주 그녀의 집을 찾았고 천관녀와의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천관녀의 집에 발길을 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애마가 술이 만취한 김유신을 등에 태우고 늘 가던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가자 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네 이놈, 감히 네가 나를 노류장화 더미에 떨궈" 하면서 애마의 목을 순식간에 내리쳤다. 그리고 어느 날 김유신은 천관녀로부터 작은 꾸러미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집에서 늘 먹던 콩과 죽순이 들어 있었다.

그 후 재상에 오른 김유신은 천관녀가 자신에게 한을 품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관사를 지어 혼을 달랬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죽순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소변 잘 통하고 중풍에 효과

죽순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얼굴에 열이 나거나 머리가 자주 상기되는 사람에게 좋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죽순, 들기름, 참기름, 간장, 초고추장, 은행

요리법 ① 죽순은 반을 갈라 쌀뜨물에 삶아서 아린 맛을 빼낸다.
② 들기름을 발라서 석쇠에 살짝 굽는다.
③ 구운 죽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볶은 은행을 곁들여 담는다.
④ 기호에 따라 참기름과 간장을 섞은 양념장이나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효능 뇌압이 높거나 안압이 높은 사람에게 효험이 있고, 어린 아이의 경기, 화로 인한 담과 말 못하는 중풍, 고열 등에 좋다. 단, 췌장 계통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몸을 냉하게 하므로 먹지 말 것.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㉕

隨其心淨 卽佛土淨 法寶記壇經云
수기심정 즉불토정 법보기단경운
心地但無不淨 西方去此不遠
심지단부부정 서방거차불원
性起不淨之心 何佛卽來迎請
성기부정지심 하불즉래영청
薦禪師云 識心方生唯心淨土
수선사운 식심방생유심정토
着境只墮所緣境中 如上佛祖
착경지타소연경중 여상불조
所說求生淨土之旨 皆不離自心 未審
소설구생정토지지 개불리자심 미심
離自心源 從何趣入
이자심원 종하취입
如來不思議境界經云 三世一切諸佛
여래불사의경계경운 삼세일체제불
皆無所有 唯依自心 菩薩若能了知諸佛
개무소유 유의자심 보살약능요지제불
及一切法 皆唯心量 得隨順忍
급일체법 개유심량 득수순인
或入初地 捨身速生妙喜世界
혹입초지 사신속생묘희세계
或生極樂淨佛土中 此其證也
혹생극락정불토중 차기증야

以此而推 雖不念佛求生 但了唯心
이차이추 수불염불구생 단료유심
隨順觀察 自然生彼 必定無疑
수순관찰 자연생피 필정무의
近世多有義學沙門 捨命求道
근세다유의학사문 사명구도
皆着外相 面向西方 揚聲喚佛 以爲道行
개착외상 면향서방 양성환불 이위도행

이렇게 미루어본다면 염불하며 왕생을 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마음에 있음을 밝게 깨달아 그대로 관찰해 나간다면 저절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요즘 경을 배우는 사문들은 목숨을 버리고 도를 구하면서도 모두가 바깥의 상(相)에 집착하여, 서방을 향해 앉아 소리 높여 부처를 부르는 것으로 도행(道行)이라 여긴다.

前來學習發明心地 佛祖秘訣
전래학습발면심지 불조비결

以謂名利之學 亦謂非分境界
이위명리지학 역위비분경계
終不掛懷 一時棄去 旣棄修心之秘訣
종불괘회 일시기거 기기수심지비결
不識返照之功能 徒將聽慧之心
불식반조지공능 도장총혜지심
虛用平生之力 背心取相謂依聖敎
허용평생지공 배심취상위의성교
諸有智者 豈不痛傷
제유지자 기불통상

그리고 전부터 배우고 익혀 마음을 밝혀놓은 부처와 조사들의 비결을, 오히려 명리(名利)를 얻으려는 학문이다 하거나 또는 자기 분수에는 맞지 않는 공부라 하면서 마침내 생각에 두지 않고 일시에 버리고 만다. 이미 마음 닦는 비결을 버렸으니 마음을 관조하는 공부는 알턱이 없고, 단지 세속적인 지혜로 평생의 힘을 헛되이 소비하면서 마음을 등지고 상(相)을 취하는 것으로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한다 하니, 어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 마음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겠는가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해진다' 하였고, 〈법보기단경〉에는 '마음이 깨끗하면 서방정토는 여기서 멀지 않지만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아주겠는가' 하였다.

수선사는 '마음을 알면 바로 유심정토(唯心淨土)에 나고, 경계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그 경계에 떨어진다'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처와 조사들이 말한 바 '정토에 나기를 구하는 취지는 모두가 자기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겠는가? 〈여래불사의경〉에 '삼세의 모든 부처가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에 의지해 있다. 만약 보살이 부처나 일체의 법이 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안주하며 움직임 없는 경계 즉 수순인(隨順忍)을 얻으면, 초지(初地)에 들어가 몸을 버리고 묘희(妙喜)의 세계에 나기도 하고 혹은 극락의 깨끗한 부처 나라에 나기도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그리고 전부터 배우고 익혀 마음을 밝혀놓은 부처와 조사들의 비결을, 오히려 명리(名利)를 얻으려는 학문이다 하거나 또는 자기 분수에는 맞지 않는 공부라 하면서 마침내 생각에 두지 않고 일시에 버리고 만다. 이미 마음 닦는 비결을 버렸으니 마음을 관조하는 공부는 알턱이 없고, 단지 세속적인 지혜로 평생의 힘을 헛되이 소비하면서 마음을 등지고 상(相)을 취하는 것으로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한다 하니, 어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종안스님

태안사 가은암 주석

"오욕락의 세상살이가 지옥"

보성강의 한 물줄기로 흐르다가 섬진강으로 빨려드는 곡성 죽곡면 동리산 자락. 태안사는 섬진강과 백운산에서 한발짝 물러난 아늑한 산자락에 숨어있었다. 이리저리 휘어져 산허리를 감고 도는 오솔길을 따라 40여분. 강너머 지리산의 그늘에 가린 탓에 여태 때가 묻지 않은듯 청정한 도량이 나타난다.

'속세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면 다시 돌아오라' 귀래교(歸來橋), '아무리 바빠도 마음부터 씻으라'는 정심교(淨心橋)를 건넌다. 마음을 착 가라앉게 만드는 숲길을 걷다보면 돌난간이 쓰러진 반야교를 건너고 다시 해탈교를 지나 능파각(凌波閣)에 닿는다. 계곡과 물굽이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는 뜻의 능파각은 '속세'를 벗어나 도량으로 들어서는 문이다.

신라말 구산선문 중 하나인 태안사. 도선국사의 스승인 혜철스님이 1,200여년 전에 이 도량에 동리산파를 개창했다. 결제 때마다 방부를 들이려는 수좌들이 많아 힘에 부칠 정도라는 선원은 아직까지 흙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선원이 들어선 오른쪽 계곡 안에는 앞산 바래봉아래 구룡마을에서 태어난 신승겸 장군을 추모하는 전각이 있다.

그는 왕건을 도와 개국에 공을 세우고, 후에 팔공산에서 후백제와 대접전을 벌일 때 궁지에 몰리자, 왕건 대신 자신이 왕의 의복을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 불교를 숭상한 고려 왕조가 그의 제사를 올리는 태안사를 크게 중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 만하다.

가은암은 선원 입구의 작은 개울을 건너 숨어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속 개울에서 축대를 쌓고 있는 거사에게 가은암의 위치를 물어 보아도 잘 모른단다. 이 때 개울 건너에서 갑자기 나타난, 갓을 쓴 노스님. "가은암은 여긴데요" 하신다.

"그럼, 스님께서 종안 큰스님이세요?"
"그런데요."
"스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큰 스님 친견하러 온 기자입니다."

큰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줄 알았던 가은암은 개울 건너 숲속 언덕에 살포시 앉아 있었다. 종안 스님은 마침 축대 쌓는 울력을 돕기 위해 개울가로 내려오던 참이었다. 일꾼에게 몇가지 작업지시를 내린 스님은 기자를 암자의 큰방으로 안내한다. 가은암은 선방과 큰방, 작은방, 마루로 이뤄진 아담한 토굴이었다.

스님께서 방문을 열자 창가에서 지저귀던 곤줄박이가 방안을 휘돈다. 스님이 손짓하자, 손 위에 와 사뿐히 앉는다. 스님은 간식거리인 잣을 곤줄박이에게 나눠 준다.

새들은 아침 저녁, 끼니 때에 맞춰 날아든다고 한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수시로 날아와 잣을 물고 간다. 노스님의 마음이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니, 곤줄박이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된지 오래다. 스님에게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몸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잣을 새와 나눠먹는 이치다.

신기해 하는 기자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무심이 되면 짐승과도 마음이 통하는 법이지요." 담담하게 말씀하신다.

"산새들이 나를 두려워 하지 않듯이, 나도 짐승들과 한마음이지."

스님은 문득 30년전 지리산 반야봉 아래 좌선대에 직접 토굴을 만들어 수행하던 당시, 곰이 토굴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노스님의 살림살이 누비옷 한벌과 삿갓 염주와 석장뿐 일과는 참선과 울력

"온 세상이 눈으로 덮혔던 그때, 곰이 토굴안에 들어와 마루 앞에 쪼그리고 있는데 무심코 옷깃이 스치고 눈이 마주쳤어. 혼자 토굴 수행을 하던 당시에는 이미 공포심도, 세상에 대한 집착도 떨어져 나가서인지 곰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지. 굶주린 모습이 가여워, 얼마 남지 않은 내 먹거리를 주었지."

스님은 사람이 무심이 되면 범과 곰도 무심하게 되고, 사람이 겁내고 몸을 사리면 짐승도 경계하게 된다고 말한다. 상에 걸린 중생심을 버릴 때, 미물이나 축생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 하신다.

불혹(不惑)의 나이 마흔에 출가해 세속나이로 올해 일흔여덟이 된 종안 스님.

누비옷 한벌과 삿갓, 염주, 산길을 다니는 동안 벌레들이 밟혀 죽지 않도록 길을 트는 석장. 38년간 참선만 해 온 스님의 살림살이 전부다. 전화도, 라디오 · TV도 없다. 들리는 건 산새들의 노래소리 뿐.

몇년전까지 일종식을 해오다, 연세가 많아진 요즘엔 오후불식을 하고 있는 종안스님은 참선하는 시간(동안거 때는 17시간)과 잠을 자는 네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울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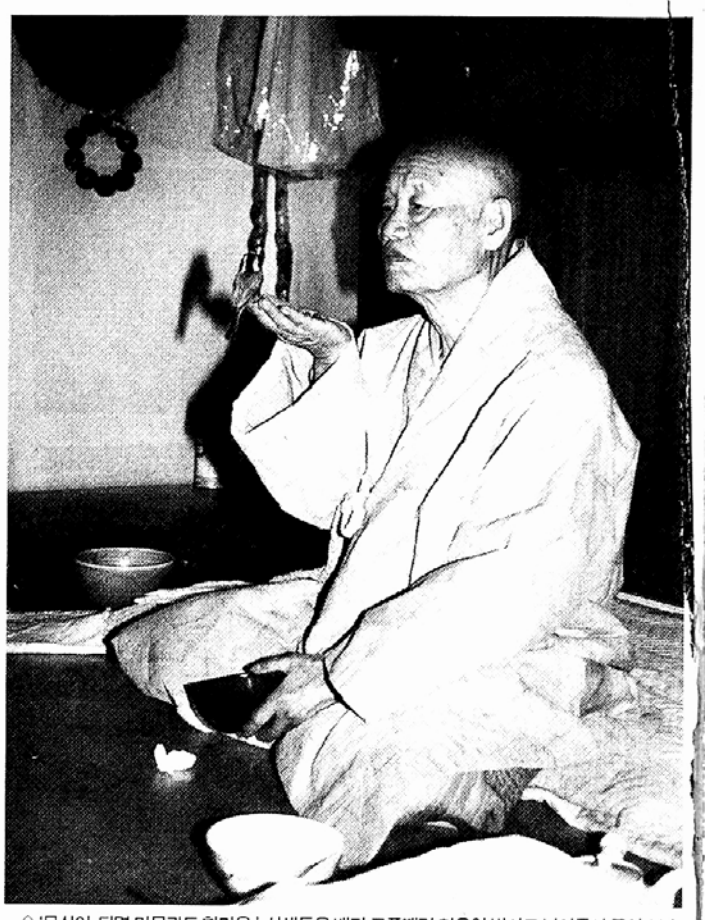
나무 하고 장작 패기, 축대 쌓기, 도량 청소는 기본. 매번 수행처를 옮길 때마다 토굴을 직접 짓는 것도 스님의 일이다. 여든 가까운 세수에도 스님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공양을 하지 않는다. 스님은 '백장청규'를 철저히 지켜왔다.

흐트러짐 없는 용맹정진의 원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40세까지 세상살이에 찌들대로 찌들었던 스님은 마흔 나이에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룡산 갑사를 찾았다. 당시 갑사 주지 혜원스님과의 문답은 이랬다.

"뭐하러 왔소?" (혜원스님)
"마음 밝히러 왔습니다." (종안스님)
"맑은 물에는 고기 없습니다." (혜원스님)
"……." (종안 스님)
"이 불법은 오욕락의 세상살이를 완전히 끊어야 알 수 있습니다." (혜원스님)
"오욕락을 끊고 산다면 중생계를 벗어나겠군요." (종안스님)
"불법은 인과 그대로 입니다." (혜원스님)

종안 스님은 혜원 스님의 마지막 '인과'라는 말에 그동안 지녀온 의문이 일거에 해소됨을 느꼈다고 한다.

초발심이 컸기에, 스님은 철저히 하심



◇'무심이 되면 미물과도 한마음.' 산새들은 배가 고플때면 가은암 방사로 날아들어 종안스님이 주는 잣을 얻어먹는다.

일시	4월 3일 (화) 오후2시 4월 12일 (목) 까지	마음으로 보는 설봉스님 도예전	장소	부산 국제신문 제1전시실 (4층) ☎ (051)500-5385

백자앞에서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랴!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웠으랴!
어둑한 가마 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너의 싱싱한 숨소리가
가마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굳은 듯 떨리는 두손이
감히 너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넋을 풀어놓고 주저 앉아 있을때
너는 한점 더러움 모르는 하얀 가슴으로
나를 안고
혼탁한 세상 점잖게 밀치며
가마 밖으로 나왔다.
밤새 심술부리던 바람도 고개 숙였고
아침 햇살도 놀라
너의 넉넉한 어깨 위에서
토닥토닥 뛰었다.
시리도록 하이얀 너의 신비로움에 밀려
하늘도 자꾸만 멀어지기만 하던날
너는 내가 한점의 티끌임을 알게해준
스승일레라.

설 봉 합장

마음으로 보는 설봉스님 도예

설봉 스님 도자기 작품
일본사람이 갖고 싶어
값이 오르고 또 올라도
일본 북해도가 아니고는 줄 수 없다는
스님의 명작
"별이 쏟아지는 해변"
"설중매"
어떤작품인지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
보고 싶은 마음 한 해를 넘기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다
오늘에야 보게되니…
같이 간 도반들
한결같이 감탄사
끊어지지 않는 시간이다.
보람 있는 시간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품위, 책임과 명예, 임무이다.

설봉 스님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자기 명인
스님의 작품 그리 物質的 작품이 아니다.
道가 가득한 작품이다.
수없이 다듬고 다듬은
정성이 담뿍한 작품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하는 세계이다.
파도 같은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게 하는 위력이다.
실타래와 같이 엉클어진 마음도
풀어지게 하는 명작이다.
보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의 內面性을 回光되게 하는 作이다.
뭇사람들의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作이다.
인간의 限界를 뛰어넘는 神秘의 作이다.

무애원은 해병대 법당이다.

군인 중의 군인
용감한 해병대들 가슴에
높고높은 佛心을 꼭꼭 심어주는 佛事에
스님의 全生을 다 쏟아붓는 것이
스님의 願이고 스님의 뜻이 가득 담긴
밝은 얼굴이다.

군포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끼던
작품을 모두 출품한 이번 부산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나 스님의
군포교에 큰힘이 되길 바란다.

佛國 正觀 心

종안스님은?

40세 출가 38년간 참선 3년동안 목숨건 두타행

1924년 충남 조치원에서 태어난 종안스님은 어린시절부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5세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쳐음 배울 때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이란 문장을 읽고, 이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9세 때 부친이 사망하면서 인생에 대한 무상을 쳐음 체험하고 한학 공부를 단념했다가, 14세 때 다시 유명한 서당에서 유가·도가 경전을 읽었다.

스님은 젊은 시절에는 도가 수행에 몰입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고가정을 꾸렸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이란 무상을 절감했다. 도가의 공부로는 생사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불문에 귀의했다.

40세의 늦은 나이에 갑사로 출가했다. 1970년 뒤늦게 화엄사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이후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등지의 토굴과 화엄사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묘향대 칠불암 봉암사 등 유명 선방을 돌며 정진했다. 확철대오를 서원하며 5년전부터 태안사 가은암을 짓고 보림에 들었다.



◇'하루 일 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종안스님은 참선정진 시간 이외에는 항상 울력을 하신다.

(下心)공부부터 시작했다. 6년간은 일부러 수계를 하지 않고 부목으로 살았다. 오이 호박 배추 등 채소를 기르고, 땔나무를 하고, 밥을 정성껏 지었다. 다섯 명의 행자가 있었지만, 종안스님이 도감을 맡았다. 행자들이 밭갈고 나무할 때 게을러지면, 곧잘 이런 법문을 하며 격려했다.

"농부들은 고추밭의 잡풀과 병난 고추는 뽑아 버리고 좋은 고추만 잘 가꾼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쁜 마음 씻어버리고, 선한 마음 갖는 것이 좋은 고추와 나무 가꾸는 일과 다름없다. 일하는 것 어느 하나 도(道)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고된 행자생활을 6년이나 자청해 하면서도 주경야독하는 공부를 쉬지 않았다. 밤에는 낮에 행한 모든 일을 되돌아 보고 참선과 주력 수행을 부지런히 했다.

"만고 풍진을 겪어야 사람이 되지. 세상 무상을 알고 덤벼야 해. 오욕락의 세상살이가 지옥임을 알아야 공(空) 도리를 깨달을 수 있어. 원래 마음은 공해서 한 티끌도 붙을 수 없거든."

세상 사람들은 상(相)에 걸려 산다.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현상에 집착하고 휘둘리며 산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실상(實相)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다. 현상에 얽매여 살면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실상에서 살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게 스님의 설명이다.

실상을 볼 수 있으면 이(理)와 사(事)에 다 통한다. 진여(眞如)의 세계를 보니 미물과 축생의 생멸을 다 알고, 생명체의 불성이 다 같음을 본다. 부처님께서 열반 후 '곽시쌍부'의 이적을 보인 것은 생사가 없는 실상을 보인 대표적인 예라고 하신다.

생사 없는 실상은 마음 비우는 공부를 통해 볼 수 있다. 완전한 무상을 체험하고 무심으로 살아야만 자성(自性) 자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스님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무(無)'자 화두를 든다. 스님은 이를 "사람의 도는 없는 데(無)서 밝아진다. 비우면 비울수록 밝아진다"는 말로 설명한다.

스님의 법문은 무심에서 나온 것이어서 무량했다. 출가이후 경전은 전혀 읽지 않았지만, 〈육조단경〉의 내용을 눈으로 본 것처럼 자세히 묘사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었다. 마음에서 우러난 법문은 걸림이 없고 더 진실에 가깝다. 경전공부를 통해 지견이 나면 좋은 법문은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통해 불법의 대의를 요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직관적인 체험이 없는 법문은 얼마나 공허한가.

스님의 이런 무심의 경지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치열한 구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물론 당신은 "무심의 경지는 여여하나, 확철대오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겸손해 하신다.

> 산새들이 나를 두려워 않듯 나도 짐승들과 한마음 이지"

스님은 한동안 무인지경인 덕유산 은신암 토굴에서 홀로 용맹정진 했다. 3년째 생식으로 일종식을 하며 수행하던 중 문득, '부처님 은덕으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생식가루 타먹으며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편히 수행하면 언제 대도를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발심으로 부처님의 6년 설산 고행을 본받아 3년간의 두타행(頭陀行)에 나서기로 했다. 내면의 목소리는 스님에게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첫째 묵언할 것, 둘째 오래 좌선할 것, 셋째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할 것, 넷째 추녀 안에 들지 말고 한데(露地)서 잘 것, 다섯째 거리에 앉아서 먹을 것, 여섯째 발끝 닿는대로 갈 것, 일곱째 무덤 옆에서 무상관(無常觀)을 할 것, 여덟째 옷은 단벌만 입을 것, 아홉째 6바라밀 짚신을 삼아 신고, 열번째 갓을 쓰고, 열한번째 하늘을 보지말 것 등등.(경전상의 12두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스님은 얼어죽지 않기 위해 포행을 하며 겨울을 나는 등 고행을 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문득, 이렇게 노래했다.

육바라밀 행을 닦아 아승지겁 뛰어넘고/ 무명속에 뛰어들어 나고죽는 생사고를 뛰어넘고/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있고/ 불생불멸 조국통일 상락아정 무위도를/ 사람마다 다 알 줄로 팔만장경 유전했네/ 사람되어 못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일을 알다보면/ 닦는 일은 앉고 서고 서고 앉아 일동일체로다/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의심타파 하십시오 의심타파 하십시오/ 의심타파 하고보면 삼세로 지은업장 역력히 다 알소라/ 역력히 내다보니 적적한 명월아래 바늘 끝도 틈이 없네/ 몽중 오는 소식 누가 알으리까/ 내외명철 밝아지면 생사 없는 보배가 거기에 잠겨있네.

그러나 스님의 두타행은 3년째 회향을 몇 달 앞두고, 곡성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좌절됐다. 짚신에 누비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걸식하는 걸인을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간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 스님은 3년간의 두타행을 마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이 때보다 나날이 깨우침이 큰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 겨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의식은 더욱 성성해졌고 깨달음은 더욱 깊어만 갔다. 목숨을 내어놓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계는 날마다 새로웠다. '고통 받는 이 몸뚱어리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무상관이 여실했다.

스님은 두타행을 통해 현상과 실상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몸뚱어리가 있어야 도를 닦을 수 있고, 환상이 있어야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만물만상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스님은 그후 지리산, 등지의 토굴과 화엄사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묘향대 칠불암 봉암사 등 선방을 돌며 정진했다. '일체중생을 스승 삼아 배우는 것이 보림' 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본 기자는 스님과 함께 저녁 9시부터 잠들기전 10시까지 선방에서 정진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 "짧지만 정진을 좀 하고 가야 찾아 온 보람이 있지" 하시는 권유에 따라 새벽 2시 벽에 걸린 부처님 상호를 보며 예불을 마친 후, 아침 공양시간인 6시까지 4시간동안 쉬지 않고 스님을 따라 좌선에 들었다.

1시간이 지나자 본 기자의 다리와 허리가 아파오고 온갖 번뇌가 고개를 쳐들었다. 노스님도 함께 정진하는데, 젊은 후학이 나태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 뭣고' 화두를 다시 다잡았다.

정진이 끝난 후 스님 말씀, "오래 잘 앉아 있구만, 그려."

미망속에 헤맨 4시간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종안스님이 80 가까운 나이에도 젊은 수좌 못지않게 용맹정진할 수 있는 것은 두타행 하던 때의 용맹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스님은 일상생활 속의 수행을 다시 금 당부하셨다.

"현상 속에서 그대로 배워야 해. 육안으로 무상을 느끼고, 무심으로 행동해야 돼. 자기 자신을 떠나야만 무상을 배운거야. 망상을 죽이고, 진여를 살리는 공부를 잊어선 안돼. 수좌는 업으로 뭉쳐있는 몸뚱이와 싸워, 고통을 인내로 참아넘기면서 업장을 녹여야 해. 결국 도의 진미를 알게 되면 기가 막혀, 즐거움에 웃음만 나오지. 의단이 제대로 서면 등정일여에 따로 화두 들 것이 없어. 무아·무심하면 도 아닌 것이 없느니라."

곡성=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적인스님

어쩌다 길을 갈때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외치며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말하는 "말씀"까지 한 장 쥐어주고 간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복과 염주를 '사탄'으로 보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래도 길을 갈 때는 괜찮은 편이지만 버스 안이나 전철, 기차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치러야 하는 곤욕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인수하여 장엄하게 불보살의 도량으로 변모시켜 '말씀'을 걷어내는 작업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이를 두고 무어라 말할까.

여기 그 작업을 스스럼없이 해낸 스님이 한 분 계시다. 바로 적인 스님이다.

적인 스님이 수행하는 도량은 참으로 특이하다. 조치원 역에서 내려 금방이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은 전통의 사찰이름, 즉 사(寺)나 암(庵)이 아닌, 문화원으로 불린다. 불교문화원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절이라는 수행처로 이해하기 보다는 불교의 문화를 전달하는 장소 정도로 착각하기 쉽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으니 말이다.

적인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동학사로 출가하여 동학강원과 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복지 시설에 들어가는등 복지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교회 인수 법당으로 꾸며 청소년 교화 남다른 노력

스님이 조치원 문화원과 인연을 가진 것은 9년전. 불심이 깊은 그곳의 몇몇 신도들이 모여 문화원이란 공간을 만들었고 또 스님을 한 분 모시고 싶다는 원력으로 적인 스님이 인연이 되어 가게 되었다. 스님이 그곳에 가서 일년쯤 되었을까, 부근 교회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새로 절을 짓는 번거로움 보다 교회를 인수해 법당으로 꾸민다면 이 지역에 이보다 더 큰 포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임원 신도들에게 말하였지만 흔쾌히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하나는 재정적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 인수라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를 일일히 설득하여 간신히 그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자 교회측에서도 절이 들어선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지 한동안 밀고 당기고 결국 스님의 원력대로 교회를 인수하여 십자가를 걷어내고 부처님을 모시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당연히 가질만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부수어 버린, 정말 용기있는 스님이 아닐 수 없다.

조치원 불교문화원은 다른 사암과는 다르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절집을 닮은 형태는 없지만 참으로 개성있는 도량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우뚝 솟은 교회 건물에 절을 상징하는 만(卍)자를 달고 부처님을 모신 모습을 말이다.

조치원 부근에는 사찰들이 꽤 있지만 적인스님 만큼 청소년 포교를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스님은 드물다. 매주 어린이 법회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 시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사찰 안에서 10여명이 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집에서 공부가 안되는 학생, 약간 문제성은 있지만 그 문제성을 스님의 힘으로 교화해 보겠다고 받아들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 문화원 스님 품으로 와 함께 생활하고 공부한다. 스님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그들중 어떤 아이는 전교 1, 2등의 성적을 올리게 됐다. 일요일 어린이법회 때는 그들 모두가 지도교사가 되어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매일 매일 피어난다. 늘 어린이 청소년들과 부대끼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말 살맛 나는 포교를 하는



곳이 그곳이다. 그렇다고 그곳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찰은 결코 아니다. 들어오는 보시금을 어떻게든지 다 신도들에게 회향하는 적인 스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연마하고 다듬어 가느냐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적인 스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스님들 각자의 원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모두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해 낼 수 있고 만들어 질 수 있는 멋진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다. 작은 사찰이든 큰 사찰이든 그것을 이끌어 가는 스님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그 지도자들이 앞에서 부처님일을 열심히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펼쳐 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불자들의 몫이다. 누구나가 제 몫을 하고 제 자리를 찾을 때 이 사바는 불국토로 만들어 질 것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교도까지도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원사 주지

아미타 부처님 몸에핀 열여섯송이 친견 무차 대법회
(삼존불 개금 및 관음백불 점안 대법회)

경진년(경진년) 섣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뼉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회장 강 공덕화
저무 이 보륜화
신도회 합장

법 회 안 내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3월 30일(음 3.6) 금요일 오전 10시
- 법 문 : 법흥 대종사(연합회 중명큰스님) 및 영산재 큰스님 기간 단체장 및 유지인사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3월 31일(음 3.7) 토요일 오전 10시
- 법 문 : 정각 큰스님(연합호 상임 부회장), 기도 및 축원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4월1일(음 3.8) 일요일 오전 10시
- 법 문 : 박완일(동국대 교수), 삼존불 개금 및 일백불 점안 대법회(오색사 드림)

◐ 신도님 철야기도 : 3월 30일(음 3.6), 3월 31일(음 3.7), 4월1일(음 3.8)
※ 교통난이 우려되니 봉고 이용 바람 : 3일간 봉고 3대 운행 합니다.
동 부산대학 입구(아침 8시 30분,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종류 : 3W, 5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대원기업 자매회사 단청 외
종합불교전시장 : 032)868-5898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

처음공개하는 '연꽃 든 부처님'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 스님)이 31일부터 6개월 동안 박물관 중앙홀에서 제5회 괘불탱(掛佛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 공개되는 괘불탱은 통도사에서 1767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이다. 이 괘불에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두흔, 성징 등 11명이 그렸으며 동래지역 신도들의 시주로 제작된 것이다.

이 괘불탱은 삼베에 채색으로 그려진 높이 12m, 너비 5m에 달하는 대형이다. 석가모니부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려진 기존의 괘불과 달리, 미소띤 얼굴에 두손으로 연꽃을 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독특한 괘불이다.

박물관측은 이번 특별전과 관련해 오는 31일 괘불탱을 법회장소로 옮기는 이운의식(移運儀式)을 비롯해 나비춤, 바라춤 등 불교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의식을 재현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0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음악포교 '바쁜 4월'

대전-대구-서울 봉축·노숙가정 돕기 4차례 공연



◇지난해 월평균 2.5회의 연주회를 가져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올해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음악포교활동에 나선다.

눈푸른 외국인 지휘자와 잿빛 승복의 스님 소프라노가 한 무대에 서고, 현악과 피아노, 장구와 대금이 한데 어우러지고, 손가락 장애를 딛고 일어선 소녀 피아니스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출연하는 독특한 음악회가 열린다.

이 모든 것은 교계 유일의 니르바나 실내악단(단장 강형진)이 초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정기공연과 봉축기념음악회,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준비한 것이다.

99년 창단이후 불교와 서양음악의 만남, 새 시대에 걸맞는 창작음악으로서의 불교음악 알리기에 힘써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지난해 평균 월 2.5회의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음악을 통한 포교활동에 매진해 왔다.

올해 공연은 4월 1일 동화사 승가대학 주최로 대전 대덕과학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봉축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 8일에는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15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또 4월 23일에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노숙자가정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펼친다.

이번 연주에는 동유럽의 명 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레예프(마케도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초청해 토시니의 소나타, 비발디의 사계, 드보르작의 세레나데 등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정률스님, 테너 윤승호씨, 젊은 불자 중창단 LMB 싱어즈 등이 참가해 동서양과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특히 매년 정기연주회 때마다 우리 전통음악에 기초한 창작음악을 선보여 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이번 연주에서도 피아노와 대금, 피리, 25현 가야금 등이 어우러진 창작곡 '일승원향(日昇月恒)'을 연주할 예정이다.

봉축기념음악회와 정기연주회에 이어 열리는 '노숙자가정을 위한 자선연주회'에는 선천성 손가락 기형을 딛고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서울 주몽 중학교 3학년 이희아 양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단장 강형진씨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교계에서 정통 실내악단을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불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가운데 안목이 높아지고 그것이 다시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스님들 전시회 잇달아

상묵 스님 '걸망에 담은…'

봄을 맞은 화랑가에 스님들의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화가 상묵스님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사동 대원갤러리에서 '걸망에 담은 산승이야기-비구노사나전'을 연다. 지리산자락 토굴에서 10여년 동안 머물며 구도의 방편으로 그려온 그림들을 선보여 온 스님의 11번째 개인전이다. 02)723-7771



◇상묵스님 作 '기도'

정각·묘각 스님 불화전

정각 묘각스님의 '목거노인 돕기 불화 및 서화전'은 4월 4일~10일까지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부처님 고행도' '달마대사 법상도' 등 묘각스님의 불화와 정각스님의 '반야심경 병풍' '자연 연옥 다라니경'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서울 전시에 이어 5월 4일~16일에는 부산 국제신문 제2전시관에서도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02)705-5308

설봉 스님 '마음으로 보는…'

도예가 설봉스님의 '마음으로 보는 도예전'이 4월 3일~12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새로 개발한 유약을 이용한 백자를 선보인다. 백자에 모시, 옥양목, 삼베, 명주, 광목 등 우리 옛 옷감의 빛깔을 그대로 재현했다. 051)500-5385



◇설봉스님 作 '별빛 내리는 바다'

동화 '오세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설악산 만경대 오세동자의 전설을 다룬 '오세암'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마고21에서 기획, 제작중인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을 원작으로 오는 11월 경 선보일 예정이다.

'오세암'은 다섯살배기 고아 소년 길손이와 앞 못보는 누이 감이가 설정스님의 절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폭설로 인해 길손이가 암자에 갇혀 지내다 한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송한 끝에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배경속에 천진무구한 어린 소년과 스님과의 우정,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독특한 동양적 캐릭터의 이미지로 그려내게 된다.

마고21은 "오세암은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와 성인들에게까지 폭넓게 사랑 받을 있는 뛰어난 작품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면서 "불교 단체와 문학단체 또 국내 필름 페스티벌과 해외 필름 마켓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하철을 탔다. 맞은 편 좌석에는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그러다 시선을 돌리는 순간, 생각에 잠긴 듯 유난히 해맑은 얼굴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우연히 마주친 처음 보는 저 얼굴을 이 순간만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뭔가 허전하면서도 한편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라는 신비감도 느껴졌다. 그때 미국 출신으로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한 에즈라 파운드(1884~1972)의 시 '지하철역에서'가 떠올랐다.

군중 속에서 마주친 얼굴
젖은 검은 가지에 핀 벚꽃

이 시가 탄생한 경위는 이렇다. 늦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시인이 파리의 콩코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침 열차가 도착했는지 군중이 우루루 몰려 나왔다. 우중충한 날씨에 모두들 외투 깃을 세우고 바삐 스쳐 지나가는데, 문득 그 사람들 틈에서 어느 여인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아주 짧았지만, 너무나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시인은 그 이미지를 처음엔 30행의 긴 시로 적어보았지만, 어딘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6개월 뒤 반으로 줄여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 동양의 단시를 접하면서 마침내 흡족한, 단 두 줄의 시가 탄생했다.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작은 인연을 승화시킨 이 시는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이미지즘 시운동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간결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 심상(心象)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한시(漢詩)들을 번역하면서 파운드는 동양적 예술론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영미 최초의 자유시, 구어시(口語詩) 운동인 이미지즘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바깥의 사물이 문득 빛나며 나의 내면에 잠든 감성을 깨우는 마술을 부릴 때가 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지가 탄생한다. 이 시에는, 비록 짧지만 두 구조가 중첩(superposition)되어 있다. 첫 줄은 사실을 기록하고, 둘째 줄은 벚꽃의 상징이 대비되고 있다. 이 중첩 구조에 의해 어느 여인의 얼굴에 관한 절묘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오래 전 한때, 한국인의 '얼굴'을 찾은 적이 있었다. 가장 한국인다운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떤 때에는 마주친 어느 얼굴에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까지 연상되어 내심으로 놀란 적도 있었다. 그 뒤 시인 윤동주의 얼굴이나 '압록강은 흐른다'를 쓴 이미륵, 혹은 경봉 스님의 얼굴에서 한국인다운 이미지의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인연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선 이 자리를 돌이켜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비다.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기를 마시며 마주친다는 사실은 더욱더 큰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문학평론가

실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 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마산,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 TG 반도체

새천년의 발원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단아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 강) (노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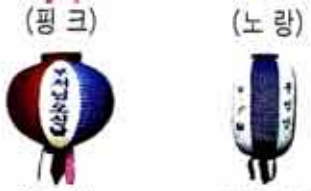


(오 색) (차걸이등)

만 월 등



(핑 크) (노 랑)



(오 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활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마음의 눈 틔우는 깨침의 목소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볕이 잘 드는 쪽에는 이미 봄의 온기를 머금은 나무와 풀들이 새순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모두 계절의 무상함을 알리는 자연의 '산 법문'이다. 하늘과 땅이 싱그럽고 풋풋한 봄 내음으로 넘실거리는 이 때, 불서의 향기에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수행자의 법향이 가득한 깨달음의 책 2권을 권해 본다.



봄이 오는 길목 눈길끄는 불서 2권

현각스님 엮음 선의 나침반



'나는 누구인가' 물음이 참선
숭산스님 설법 모음

숭산(화계사 조실) 스님이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설법해 온 가르침을 집성한 〈선의 나침반 1·2〉(현각 스님 엮음, 허문명 옮김, 열림원)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수필집이다.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이들에게 바른 구도의 길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오랜 수행의 결과로 터져나온 말씀이기에 내용 전반에 걸쳐 생동감이 넘친다. 그렇다고 심오한 깊이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바른 수행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 참선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질문을 깊이 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하여 '오직 모를 뿐'을 깨달아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눈뜸'이다."

이 책은 숭산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승·대승·선불교의 3대 영역으로 나누어 법문한 설법 모음이다. 1부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불교의 목적과 소승·대승·선이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불교 전통과 불교를 구성하는 불·법·승 삼보에 관한 개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불교에 대한 논의가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전개된다.

이 책의 제목이 '선의 나침반'인 것은 고해인 우리 인생에서 윤회에 빠지지 않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혜의 배가 있어야 하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숭산 스님은 당부한다. "이 책을 읽되 말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수행 정진"하라고. 값 7천5백원.

재연스님 지음 빼빼



내가 꿈꾸는 만큼
세상은 보여
인생 깨닫는 우화집

지리산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정진하고 있는 재연 스님이 내놓은 우화 소설 〈빼빼〉(문학동네). 이 책은 어린 집오리(빼빼)가 나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우화 소설이다. 이야기는 '왜 오리들은 날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아득한 옛날, 화산 폭발이 있었다. 북쪽을 향해 날아가던 무리 중 튼튼한 오리들은 화산재와 연기를 뚫고 힘차게 날아갔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우리 속에 갇힌다. 긴 세월을 지낸 오리들은 나는 방법마저 잊어버리고 집오리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인 어린 빼빼는 자신만의 꿈을 찾아 험난한 수행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진리를 터득한다.

비둘기 할머니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거든 먼저 네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야 돼. 세상은 네 스스로 가슴에 품고 간직한 만큼이란다"며 사랑을, 소쩍새 아줌마는 "자기 틀을 버리고 나면 눈에 띄는 것 모두가 온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 된다"며 자신의 틀에 세상을 끼워 넣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다. 또 두루미에게서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명상법을, 올빼미에게서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배워 빼빼는 마침내 날아오는 데 성공한다.

오리이면서 날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못생긴 오리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관습과 제도와 일상에 길들여진 집오리 빼빼는 바로 '나'다. 집오리처럼 먼져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날아오르기 위해 험난한 고행의 길을 택할 것인가. 글쓴이의 대답은 명쾌하다. "고행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행의 쓴맛을 본 자만이 날아오늘 수 있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불교의 이해와 실천 1·2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은 계속돼 왔다. 불교 출판가도 예외는 아니다. 이중표(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지난 95년 내놓은 〈불교의 이해와 실천 1·2〉(대원정사)도 그런 시도로 세상에 나온 책이면서도 '교리 입문서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기 앞서 불교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속단을 경계하는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불교는 세간을 뛰어넘는 진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자신의 생각으로 불교를 이해하여 쉽다고 속단한 사람은 결국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올바른 불교관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글쓴이는 강조한다. 그는 그 지침서로 부처님의 근본교설이 담긴 〈아함경〉을 제안한다.



아함경 바탕 교리 해설
사회문제 처방전 제시
이론보다 실천 중시

이 책은 바로 〈아함경〉을 모본으로 하여 삼귀의(三歸依), 중도(中道), 십이입처(十二入處), 오온(五蘊) 등 불교의 핵심교리를 강의식으로 친절하게 풀어 내고 있다. 논리적이기 보다 실천적인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이 책의 내용이 교리 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와 연관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경쟁의 심화와 반목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독서의 대상이자 '신행과 연구'의 대상이다. 그것도 심도 있는 신행의 대상이다.

이 책은 신행에 앞서 튼실한 불교 이해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책이다. 교리의 이해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혀 놓았다는 점도 이책을 권하는 이유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화해의 눈으로 타종교 보기

김진 목사 '이웃 종교인과 함께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웃종교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찰, 불상 파괴나 장승, 단군상 파괴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 동안 개신교의 배타주의는 건강한 종교문화 형성에 걸림돌이 되곤 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상임연구원 김진 목사는 그 원인을 불철저한 성서 이해에 있다며 개신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신간 〈이웃 종교인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한울)는 목사인 그가 이웃 종교인에 대해 때론 무관심으로 때론 경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적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성서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또한 이웃 종교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여러 경전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성서를 이웃 종교와의 화해와 평화의 가르침으로 읽게 도와 준다. 이러한 성서 읽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웃 종교를 단지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종교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재미 곁들인 인도문화 탐방

인도사상과 문화



알쏭달쏭한 지명이나 경박한 감성으로 가득한 인도 답사기에 실망한 독자라면 〈인도의 사상과 문화〉(여래)가 대안이 될 것 같다. 인도사의 주요 흐름을 역사·문화·사상별로 묶은 이 책은, 인도의 사상과 문화 읽기의 깊은 재미를 맛보게 해준다. 동국대학교와 선문대학교 등에서 인도의 사상과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글쓴이 문을식 씨는 "살아 있는 현실의 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전체를 자연환경, 역사, 사상 그리고 종교의 4장으로 나눠 조명한다.

이 책은 인도의 자연환경과 인종 그리고 언어와 같은 인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인도 사상과 문화 이해의 실마리로 삼는다. 그리고 문화사적 입장에서 인도 역사를, 우파니샤드와 힌두의 6파 철학 그리고 근·현대 철학자들을 통한 인도사상을 깊이 있게 고찰한다.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장 '인도의 종교'다. 이 장에서는 힌두교에 한정시켜 인도의 종교문화를 탐구한다. 글쓴이는 인도문화는 힌두 문화라고 할 정도로 힌두교는 인도문화와 사상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즉 힌두교의 이해 없이는 인도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대 인도문명이 우리에게 여러 문화예술과 과학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는 거시적인 관점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대학 교재로 출간된 이 책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수준을 유지한 '인도의 역사와 문화 사상 대중화'의 본보기를 제시한 책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禪이 오늘에 주는 의미

원연 스님 '선과 21세기'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잠시 가부좌를 하고 좌선을 해 보라. 그리고 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성해 보라.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의 참선에 대한 수준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선과 21세기〉(들꽃누리)는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선(禪)을 분야별로 정리한 선 해설서다. '선이 무엇일까'라는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쓰여진 책. 글쓴이는 〈선방의 아침〉을 내놓았던 원연 스님. 스님은 선의 역할을 비롯해 좌선, 간화선, 묵조선, 염불선, 선의 변천, 선과 21세기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 책은 실참에 앞서 수행자들이 필요한 선에 대한 지식, 즉 선의 개념에서부터 수행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값 6천6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금강경 강의	혜 거	브리스트웰컴
3	선의 나침반	숭 산	열 림 원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빛다의 마을
6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7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 레
8	선의 역사와 사상	성 본	불교시대사
9	아함의 중도 체계	이중표	불 광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 우	민 족 사

도서 안내: (02)737-0695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트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당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불교학 디지털化 서두르자"

학술단체 홈페이지 10여개 개설 불구 연구성과 유용정보 가공노력 부족

교계학술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연구 성과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고 디지털 학술정보를 축적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계 안팎에서 불교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데 교계학술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한 교계학술단체는 13여 곳〈도표참조〉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학회 정보와 세미나 일정, 운영위원회 소개, 게시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이중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성철선사상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등은 해당 학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의 색인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없다. 각 학회에는 100~4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정보를 전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문의 데이터베이스화란 논문 목록을 색인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툴(검색엔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교계학술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자들은 키보드 조작으로 논문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다운로딩(가져오기)해 컴퓨터 상에서 책을 읽듯이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의 학술 지원 단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년 전부터 학회의 지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회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회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디지털 인프라를 중요 평가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계학술단체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게 됐다.

울산대 철학과 박태원 교수는 "국내에서 불교학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다른 인문학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교계학술단체들이 학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역사학회(hongik.ac.kr/~yoksa/)의 경우 1872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저서 및 논문 6만 6천여 건을 정리하고, 이를 관련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은 학술정보가 전자 인프라로 가공될 때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불교학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해주동국대 교수) 스님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불교학이 학문의 중심에 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주 스님에 따르면 전자 인프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학 연구성과물을 타 전공자와 공유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불교학술지 지면이나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세미나 현장에 머물던 불교학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계층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회의 역할이다. 학회는 우선 디지털 컨텐츠를 구축하는 데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그 효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컨텐츠 소유자 측인 학회와 디지털화하는 솔루션 개발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21세기는 디지털 인프라 시대다. 잘 갖춰진 그릇(하드웨어, 네트워크)에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소프트웨어, 컨텐츠)가 넘칠 때 한국불교학은 21세기에도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교계학술단체 홈페이지

고려대장경연구소	www.sutra.re.kr
대각사상연구원	www.taegak.or.kr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wwwk.dongguk.ac.kr
동국대 전자불전 연구소	ebti.dongguk.ac.kr
불교학연구회	www.bulgyohak.org
선어록연구회	www.sinology.or.kr
성철선사상연구원	www.songchol.net
원효학연구원	www.wonhyo.org
인도철학회	bora.dacom.co.kr
보조사상연구원	www.bojosasang.org
한국불교연구원	www.kibs.or.kr
한국불교학회	myhome.netsgo.co.kr
한국선학회	seonstudy.org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20일 개최한 '한국불교 발전과 동국대 불교학 연구의 현주소' 주제 세미나 모습.

'불교학 연구성과' 열띤 공방

'불교학 현주소' 세미나 발제자-동국대 신경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하담 스님)는 20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한국불교 발전과 동국대 불교학 연구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이 종립학교로서 불교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연구 풍토와 그 성과를 처음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종명(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씨는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활동'을 통해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은 지난 10년 간 평균 0.46권의 저서를 출판해 한국 교수 평균 출판율인 1.6권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96년 이후 전문 학술서적을 한 권도 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씨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란 논문에서 "동국대학교의 불교학 연구는 아직도 개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학 정신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닫힌 불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논평에 나선 김호성(동국대 교수는 "동국대 불교대학이 일궈놓은 근대불교학의 성과는 도외시하고 오류와 역기능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탁(연세대 교수 역시 "김종명 씨는 모든 것을 수량화해서 비교하고 있지만, 논문에서 불교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준(동국대 교수는 "근거 없는 주장과 편협한 시각, 신중하지 못한 추측과 표현이 많다"고 논평했다. 박해당(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씨는 "전재성 씨의 지적처럼 동국대에 불교 관련 어학연구소나 교육원이 없는 현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헌학만이 불교학의 전부라는 전 씨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은 21일 학장실에서 이번 세미나에 대한 불교대 교수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광스님 등은 "실증되지 않은 자료로 사실을 왜곡한 발표문을 언론에 미리 유포한 것은 동국대뿐만 아니라 불교계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묵서 화엄경' 측천무후字 연구 획기적 자료

문화재청 보고서 펴내

현존 최고(最古)의 화엄경 사경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 · 묵서 화엄경)에 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한국문화재연구회에 의뢰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묵서 화엄경은 측천무후자(則天武后字)가 등빡 담겨있고 필사 연도가 정확해 측천무후자 연구에 획기적 자료로 밝혀졌다. 묵서 화엄경에 사용한 측천무후자는 초(初), 년(年), 월(月) 등 모두 13종 508자. 측천무후자는 측천무후 집권기(690~704)에 만든 이체자로 이후 125년간 사용됐다. 묵서 화엄경 발견 전까지 최고의 사경이었던 일본 정창원의 화엄경(768년)에는 이 측천무후자가 보이지 않아 묵서 화엄경이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역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경으로, 신라사경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 이 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사경의 발문에서는 유일하게 사경 절차와 그와 관련된 불교의식을 설명하고 있어 신라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사경에 참여한 19명이 관직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 신라사회의 관등과 신분관계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자료라고 집필 책임자인 박상국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말했다.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앏은 벅지에 먹으로 사경한 묵서 화엄경은 화엄경 80권 가운데 권 제1~10과 권 제44~50까지의 17권이 두루마리 2축으로 전하고 있다. 1978년 발견 당시 한 축은 뭉쳐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1988~9년 보존처리를 통해 권 제1~10까지임이 밝혀진 바 있다.

권형진 기자(jnny@buddhapia.com)



◇현존 최고(最古)의 화엄경 사경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18·19세기 불화 분석 민화연구 한단계 발전"

정병모 교수 주장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선호했던 민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18, 19세기 불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나왔다.

정병모(경주대 박물관장 · 사진) 교수는 16일부터 3일간 미국 L.A. 카운티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사 국제심포지엄'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불화에 나타난 민화 표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씨는 "18, 19세기 불화에는 민화적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불화와 민화의 비교연구를 토대로 민화의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화 속에서 민화의 기원과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정 씨의 주장은 봉정사 극락전, 통도사 나한전, 남장사 보광전, 신륵사 극락전, 보광사 대웅전, 선원사 칠성각, 범어사 독성각 등 조선시대 중요 사찰에서 민화의 소재를 사용한 불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정 씨에 따르면 중·하단 탱화에서 민화적 요소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관룡사 감로탱(18세기)을 보면 김홍도의 풍속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이 당시의 풍속화 풍으로 묘사되어 있고, 흥천사 감로탱(19세기)에서는 전화를 거는 장면, 양복을 입고 싸우는 장면, 전봇대에 올라가 전기를 고치는 장면, 터널을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 등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정 씨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신중탱·시왕도·나한도·산신도 등에서 민화의 소재로 즐겨 사용된 지물이나 기물이 증가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정 씨는 결론에서 "이것은 불화가 당시 유행했던 회화의 유행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화 연구의 걸림돌이었던 제작연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한국선학' 창간호 발간

한국선학회는 〈한국선학〉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월례발표회에서 소개된 논문 10여 편과 논평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 논문마다 영문초록을 덧붙였다. 창간호에는 '13세기 수선사의 현실대응과 간화선'(조명제), '화엄과 선의 돈교논쟁'(인경스님), '원효와 들뢰즈-가타리의 만남'(장시기), '불교와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양형진) 등이 수록됐다. (02)2260-3135

백련학당 수강생 모집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제4기 백련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이번 강의에는 '일본 선어록 입문', '일어청취', '영어로 읽는 인도불교사' 등이 개설됐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연구논문 및 윤독회에 대한 2001년 학술연구비 지원 대상자도 공모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02)744-1541

※ 기사님처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쉽니다.

중국 서안 선유사 신라고승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황실사원 법문사 불지골(佛指骨)사리 친견 및 지장성지 구화산 지장왕보살 육신보전 천도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6월 13일 중국 서안 선유사 현지에서 중국 불교계, 관계 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 휘호 현판과 함께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화의 대륙 중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국의 국보사찰에 한국인 기념비가 최초로 건립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유사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중국의 황실사원 법문사에 봉안된 세계 최대의 불사리이자 유일한 불지골(佛指骨)사리도 친견합니다. 법문사 불지골사리는 역대 황제들이 9차에 걸쳐 영봉했고, 전투기들의 경호하에 국왕의 전용기로 태국 외유에 나섰으며, 중국 반환 이후 홍콩섬에 잠시 머물렀을 뿐 법문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불지골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윤달을 맞아 지장성지 구화산 신라왕자 김교각스님의 육신보전에서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증명:청화큰스님)

반야여행사에서는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많은 인연과 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구화산 육신 보전〕

■ 참 가 안 내

▌일 정 : · 1차 : 6월 11일 ~ 16일 (5박6일) · 2차 : 6월 12일 ~ 17일 (5박6일)

▷ 협찬 : 벽제 정안 공원

▌동 참 금 : 98만원 (포함내역 – 항공, 현지숙식, 일정상 입장료, 화청지 유황온천욕, 1억원 여행자보험, 중국 비자 비용, 신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문의전화 : 조계사 (02) 732-2115 · 반야여행사 (02) 730-0020

자세한 일정에 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팩스 및 E-mail로 일정표를 보내드립니다.

◆ 장소 및 일정 관계로 인하여 3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기념비 제막식 및 구화산 천도재에 동참하신 불자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조계사반야여행사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

강가에는 배가 보이지 않았다… "저 놈 잡아라"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㉕

㉔ 무승 철타의 공세

무승 철타는 동태사에 도착하는 즉시 군졸들을 풀어 절 주변을 겹겹이 에워싼 다음, 사미승을 불러 내어 절문을 열게 했다. 철타의 행동거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철타는 스승 통미장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제보대로 보리달마가 동태사에 들어갔다면 절 안에서 하룻밤 유숙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보다도 통미장로가 앞장 서서 달마를 보호할 것이라 생각했다. 통미장로의 성품으로 미루어 왕궁에 보고할 리도 없거니와 달마를 붙잡아서 내 준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철타는 호위군졸을 이끌고 절문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법당에서 새벽예불을 준비하던 스님이나 마당을 쓸던 행자승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상대가 낯익은 철타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절에 머물면서 기도를 드리던 신도나 시주들은 꼭두새벽부터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철타와 군졸들이 마구잡이로 방문을 열어젖히고 샅샅이 검색했기 때문이다.

이 새벽에 웬일이냐

그러나 아무리 뒤져 보아도 달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아 있는 오직 한 곳은 장로의 거실뿐이었다. 철타의 머리에 문득 의구심이 일었다. 혹시 통미장로가 달마를 숨겨 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장로의 방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철타는 군졸들을 이끌고 주지의 방으로 향했다. 통미장로는 벌써 일어나 앞마당에서 운기를 하면서 선무공(禪武功)을 연마하고 있었다. 장로는 이미 철타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다. 예삿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일부러 아침수련을 앞마당에서 하는 중이었다.

철타가 허겁지겁 달려오는데도 장로는 모르는 척했다. 두 눈을 지긋이 감고 내공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철타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곧바로 통미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대사님, 소승 철타 문안인사 드리옵니다."

통미장로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살며시 눈을 떴다.

"이 새벽에 웬일이냐? 절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온 것이냐?"

철타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합장의 자세로 예를 올렸다.

"그런 것이 아니옵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난 거냐?"

철타는 마치 통미장로의 속내를 아는 듯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대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온 것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서천(西天)에서 온 달마입니다. 달마가 이 절에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음, 그런가…."

통미장로는 요사채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저쪽 선방에 가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게."

철타는 손을 가로 흔들면서 대답했다.

"벌써 찾아보았습니다. 샅샅이 뒤진 끝에 이 곳에 온 것입니다."

철타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방을 힐끗 훔쳐보았다. 통미장로는 순간 동요했다. 스승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변화를 놓칠 철타가 아니었다. 그는 달마가 거실에 숨어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철타는 일어서더니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아니 네가…."

통미장로는 철타의 무례한 행동에 크게 노했다. 손으로 철타를 잡아끌어 제자리에 앉히고 꾸짖었다.

"네놈이 미쳤구나.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더냐!"

철타는 얼른 예를 갖추면서 말했다.

"스승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반드시 달마를 데리고 황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사님께서 자비심으로 그것을 막으시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이니 너그러이 굽어살펴 주십시오."

"성상께서 조사를 황궁으로 다시 모셔오라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죽이려고?"

"아닙니다."

"그를 천축으로 다시 몰아내려고?"

"아닙니다."

뒷창문 열고 몸을 날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리달마를 찾는다는 것이냐?"

철타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대사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황제께선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서를 보내 달마를 황궁으로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달마는 성상의 공덕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옷소매를 휘두르며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황제께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달마를 찾아 궁 안에 머물게 하고 싶어하십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통미장로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게 그렇게 된 일이란 말이냐?"

"성상의 성격은 스승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동태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달마를 황궁으로 모셔가지 못하면 스승님도 그렇거니와 저도 성상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통미장로의 입가엔 웃음이 꽃피었다.

"좋다. 네가 때맞춰 잘 왔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조사께서는 강을 건너 북쪽 땅 위 나라로 갔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내가 조사께 아뢰고 모시고 나올 테니…."

주지는 거실 문 앞으로 다가가 몸을 굽혀 공손히 말했다.

"조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성미 급한 철타는 방문을 열려고 한 걸음 나섰다. 그러나 통미장로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렸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몸을 굽히면서 말했다.

"조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의외의 정적에 두 사람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철타가 말했다.

"대사님, 조사께서 아직 잠자리에 계신 것이 아닐까요?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통미장로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철타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침대 위엔 이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큰일났다!"

철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달마가 또 사라졌다."

장로는 마음 속으로 크게 놀랐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방 안에선 조사의 숨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던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감출 수 있단 말인가? 조사께선 누구 못지않은 신통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절을 빠져 나가신 것일까? 그렇다면 조사께선 어떻게, 어디로 가신 것일까?

보리달마는 장로의 거실 안에서 방밖의 상황전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통미장로와 철타의 대화를 들은 후 새삼스럽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통미장로에게 더 이상의 번거로움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거실의 뒷창문을 열고 몸을 날려 빠져 나온 다음 감쪽같이 문을 다시 닫았다. 달마는 빠른 걸음으로 강가로 치달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러나 자욱한 안개 때문에 강가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달마의 발걸음에 따라 안개는 흩어지기도 하고 피어 오르기도 했다. 달마는 마치 자기 자신도 안개처럼 느껴졌다. 나부끼면서 매이지 않는 안개. 천지에 노닐면서 작은 오솔길을 달리다간 큰 산허리도 감싸는 안개. 보리달마의 마음은 안개처럼 가벼웠다. 여태껏 이처럼 홀가분하고 상쾌한 적이 없었다. 달마는 순간 해탈의 자유를 누리며 끝없이 펼쳐진 넓은 강물 위에 몸을 실었다.

양자강은 바로 눈 아래 흐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수면 위에서 솟아올랐다. 강물은 출렁이고 그때마다 금빛으로 반짝였다. 멀리 고깃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이 달마에겐 한 폭의 그림인양 여겨졌다. 달마의 마음은 스스로 그림 자체가 되었다. 기쁨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강가에 도착했다.

한 줄기 바람과 함께 파도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 순간 달마의 머리엔 화면이 바뀌었다. 궁 안에서 무제와 논쟁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마음 속에 실망감과 막막함이 또 다시 엄습해 왔다. 그러나 한쪽에선 기쁨과 자신감이 심장의 고동소리와 메아리쳤다. 달마의 머리엔 보살계를 구족한 승려로서 그리고 천축의 조사로서의 위상이 뚜렷이 떠올랐다. 진정 이곳 진단 땅으로 온 목적은 무엇인가? 달마는 스스로 자문했다. 하나(一)의 진법을 동쪽 땅에 회귀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양 무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바른 가르침을 이해하기엔 무제가 너무나 세속화된 범부가 아니던가? 그렇더라도 이 곳에 머물러 교화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달마는 모든 일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았다. 자기가 소망하는 바와 남이 받아주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쨌든 이 곳 양 나라는 떠나야 할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다시 결론지었다. 설령 이 곳에 남아 무제와 재회한다고 하더라도 옥신각신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북쪽의 위 나라는 어떨까? 강가의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 달마의 마음 깊은 곳에선 잔잔한 물결이 고동쳤다. 달마는 마치 장승처럼 강가에 우뚝 선 채 움직이는 것조차 잊은 듯싶었다.

갈대숲에서 노랫소리

새벽녘의 짙은 안개는 이윽고 흩어지고 붉은 태양이 온 누리를 비췄다. 달마는 모든 생각을 멈춘 채 멍하니 강물의 흐름만 바라볼 뿐이었다. 한 줄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달마는 뱁을 때리는 바람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로소 타고 건널 배를 찾기 시작했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새벽녘에 그렇게 많던 고깃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멀리 갈대숲 사이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봄을 찾아도 봄은 보이지 않고 / 짚신은 해지고 정신은 피로하네. / 동풍이 불어 강물의 파도를 일으키니 / 봄은 갈대 끝에서 벌써 짙어 가누나…."

달마는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다. 몇 사람의 농부가 강변에서 낫으로 갈대를 베어 한 묶음씩 묶어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함소리와 함께 철타가 이끄는 군졸들이 달려들었다.

"잡아라! 저놈 잡아라!"



군졸들이 마구잡이로 동태사 방방마다 샅샅이 수색했다

키슈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

피로 신경통, 관절염, 허리통증, 혈액순환장애, 근육피로에

금강약돌 라빙스톤 안마 건강매트

-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 뜨끈! 그리고 안마 맛사지 까지"



◆ 지압 맛사지로 전신에 기(氣)와 활력(活力)을!
◆ 16가지 기능으로 온몸을 안마 맛사지 하십시요
◆ 금강약돌로 안마와 원적외선 온열 찜질을 동시에..

금강약돌 건강매트 특징
- 원적외선이 96%로 가장 풍부
- 돌침대용 카본사 및 동섬유 사용하여 수맥, 전자파 차단
- 사계절용이며, 이동, 보관이 간편
- 1년 무상 A/S 및 평생 A/S 보장

라빙스톤금강 약돌 안마 - 찜질 효과
- ♦맛사지와 지압 효과 - 지친 신경조직 강인하게!
- ♦혈압, 동맥경화 순환기 기능에 최고의 효과 - 경직된 혈행을 원활하게!
- ♦근육피하조직 지방막을 터뜨려 군살제거, 체중감소 효과 - 뭉친 근육을부드럽게!

금강약돌 건강매트를 이런분에게
- 수험생 : 긴장연속, 수면시간 부족 → 쾌적한 기상, 컨디션 조절에
- 직장인 : 만성피곤, 과다업무스트레스, 견통(특히 컴퓨터 사용자)
- 노약자 : 어린이에게는 더욱 강한 체력, 노약자에게는 체력, 기력유지로 중풍후유증, 별후회복, 교통시간 후유증, 아파트 생활자 등에
- 주 부 : 피부노화, 비만, 쑤씨고 결리는 분, 냉·대하, 생리통, 수족냉증, 교통, 산후조리에

복합이 자랑하는 三大 명산품
금강약돌, 개성인삼, 신창버섯

라빙스톤
☎ 02)424-9427/2203-7821

서산대사 탄신 제 481주년 봉찬행사 초대

서산대사의 禪사상과 호국정신을 오늘에 꽃 피웁니다

초대의 글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서산 휴정스님의 정신을 오늘에 꽃 피우고자 합니다.

대둔사(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이래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하여 조선시대 선교양종의 대도량으로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서산 휴정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교육, 연구, 수련, 장학, 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호국성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이어 '조선불교연구소'를 발족하여 조선불교를 새로이 조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서산대사 탄신 제 481주년을 맞이하여 봉찬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서산휴정스님의 禪사상과 호국정신이 오늘날 계승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봉찬행사에 두루 참석하여 주실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행 사 안 내

■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사업 출범식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4일(음3월1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해남 대둔사

■ 호국성지 건립발원 10만등불사 점등식(오후5시)

■ 제7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오전9시)

■ 대둔사 제1회 학술세미나
주 제 : 조선시대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 시 : 불기 2545(2001)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조계사 교육문화관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 (061) 534-5502.5503.5588 전송 (061) 535-5357
홈페이지 : http://daedu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둔 사

조실 천운 상원 주지 보선 합장

"불교 명절·각종 기념일 향·초·염주 선물하자"

청소년문화硏 세미나 제기 … 포교효과 기대

발렌타이데이나 화이트데이날 초콜릿과 사탕 대신 향과 염주, 초 등을 선물하면 어떨까.

27일 파라미타 중앙사무국에서 '각종 시기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이란 주제로 열린 청소년 문화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 이학송 법사(광동여고 교감)는 청소년들에게 불교 명절은 물론 기념일날 불교용품 선물 주기 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또 이 법사는 "입학식법회, 수능 합격기원법회, 방학 수계법회 등 일선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춰 법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세미나에서 양동효 연구위원(광동여고 교법사)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전내용을 연극으로 각색, 불교 캐릭터나 불교만화 개발, 단청이나 탱화 배우기 등에 관련된 특별 활동반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문화연구소가 월 1회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활용한 참신한 내용의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들이 쏟아져 나와 청소년 포교 담당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선 포교 현장에

부적응 학생 교화지도
좌선·산책명상 등 좋아

있는 연구위원들의, 현장 경험을 살린 내용들이 많아 실천 가능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소년 법회 및 포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인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가 결성된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학송 법사를 중심으로 한 10여명의 포교사와 교법사들이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현장감 있는 청소년 포교 방안을 연구 논의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어 연구위원 한 명이 매월 한차례 주제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회 월례세미나'에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만화, 캐릭터 등 관련된 각 학교 특별활동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는 양동효 교법사의 주장을 연구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문학 활용, 명상교실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이 잇달아 발표돼 구태의연한 주입식 불교 교리 강좌나 형식적인 행사를 통한 포교에서 벗어난 참신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6년째 청소년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최시선 교사(충주여고)는 교사들이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대신 명상교실을 운영해 좌선, 산책명상, 선체조, 명상록 쓰기를 지도하면 인성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발표해 참석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학송 소장은 "현재는 연구위원들 중 대부분이 교법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점차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전국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월례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중 대부분이 일선 포교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내용들이 많아 각 학교에서 실행에 옮긴다면 청소년 포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청년불교 활성화 3천배 정진

대불청 31일 조계사서 철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이하 대불청)가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3천배 철야정진을 벌인다.

대불청은 31일 저녁 8시부터 4월1일 새벽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국 불교 청년회 활성화와 전국불청대회 원만성사를 위한 '3천배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부다피아 청년공동체 건설을 위한 밀알결사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입재식에 이어 5백배씩 정진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규범 대불청 회장은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회원 개개인의 재발심"이라며 "이번 정진은 침체된 청년불교를 다시 중흥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준비물은 법복을 비롯해 108염주와 공양물 등이며30일까지 조계사 청년회로 접수하면 된다. (02)735-3724

김주일 기자

단신

대불련 9기교리강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승배) 부설 KBUF 불교아카데미는 22일부터 조계종 포교원 4층 법당에서 '제9기 불교교리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총 12강좌로 구성된 이번 학기의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등의 주제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에 정식 등록된 1년제 교육대학인 불교아카데미는 각 학교의 불교학생회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본교리 및 경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시켜 대학생 불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곳을 졸업한 수강생 중 현재 20여명이 군법사, 대학포교팀장 등의 포교사로 활동중이다. 02)732-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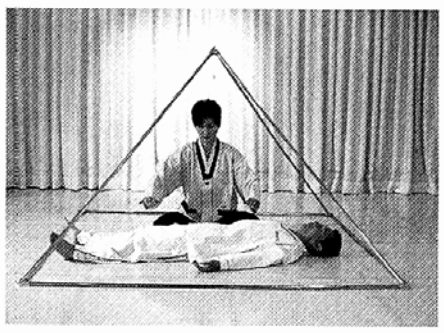
디지털상담실 남도기행

청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실장 홍자운)은 1일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으로 '춘계 문화기행'을 떠난다. 이번 행사는 상담실 가족들이 혜능보육원 학생회원 및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 출발시간은 오전 7시30분. (043)259-5711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퇴행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베일속의 영(靈)
영의세계

영(靈)의 세계는 그 누구도 다 안다고
말할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
신(神)에 대한 궁금증!
신(神)에 대한 시달림!
신(神)을 받을 운명들 ...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상쾌한 메세지..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운명을 이길수 없듯
신(神)에 환란도 면키어렵지만
신(神)을 잘다스리면
전화위복이 된다.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1-4호)
◎전 화 : 02-2242-1049 ◎팩 스 : 02-2245-9041
◎핸드폰 : 011-9090-1049
◎온라인구좌번호 우체국 : 012088-01-000035 예금주 : 미타종

▫ 전통침구요법대전 16절찬 617쪽 정가 150,000원
▫ 정통경혈학 16절판 180쪽 정가 40,000원
▫ 선도기공 신국판 302쪽 정가 20,000원
▫ 침구수첩 317쪽 정가 40,000원
▫ 신편스족요법 16절판 453쪽 정가 120,000원

현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3개월 특별속성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5기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49재·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마감 : 2001년 3월 31일까지(현재 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 2001년 4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출구
(기업은행 정문)

■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사원, 공무원, 연구원, 벤처 기업인, 사업인 10년전통의 노하우·
좋은 만남 될때까지

■ 大卒, 조·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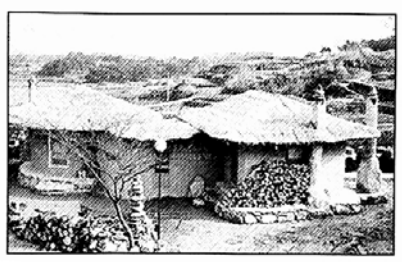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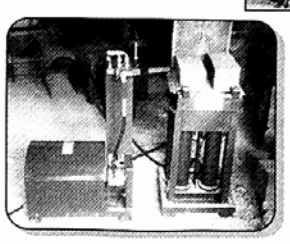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살며 걸리는 문제 근본에 맡겨 해결

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문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된 것은, 동생이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암으로 진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렇게 고통을 호소해 오는데 제가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 제가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동생을 빨리 일어서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도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살릴 수 있겠죠. 먹이는 것에서부터 의사의 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모두 죽는 줄 알거든요. 전부 가차없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벌써 '이제 나는 즉었구나, 식구들도 다 죽었구나.' 하고 미리 생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런데 암이다 암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떠나서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그냥 한 군데로 몰아 넣어 가면서, 먹는 거라든가 간호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잘 해 주면 달라질 수도 있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암이다 백혈이다 해서 다 죽게 된다고 하는데도 내 안의 근본을 믿고 공부하면서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마음 공부를 해서 집념이 강하니까, 모두 그렇게 이끌어 주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 해도 또 그것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40%다 한다면 60%, 70%는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대치가 돼요. 가만히 보면요. '아휴! 그까짓 것 아무리 해 보면 뭘해. 이제는 죽는다는데 기다리고나 있을 뿐이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병원에 가시더라도 '내 한마음 주인공으로 인해서 병이 나기도 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다.' 하고 말기면 악성이라 해도 양성이 된단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 병도 생명이 있고, 병도 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영계에서 올 수도 있고, 세균에서 올 수도 있고, 업보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해야만이 악성이 무너지고, 마음 자체가 변해서 돌아가니까 악성이 없어지면서 양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빨리 치료가 되고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게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익하게 일체 만법을, 생활을 이끌어 주는 자체는 여러분의 주인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하는 도리를 평소에 가르쳐 줘야 해요. '우리 집은 모두들 괜찮으니까' 이러지 말구요.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편안하게 살다가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것을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배워서 미리미리 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게 대치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자기를 이끌고 갈 때 벌써 잘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를 애들한테도, 하다 못해 감기가 들더라도 '이 감기 낫게 하는 건 주인공밖에 없다. 네 주인공한테 관해.'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은연중에 어린 애들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른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고 나가게 된다구요. 그건 어른이 가르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제 밥 제가 먹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모가 해다 줘서 먹는 게 되죠.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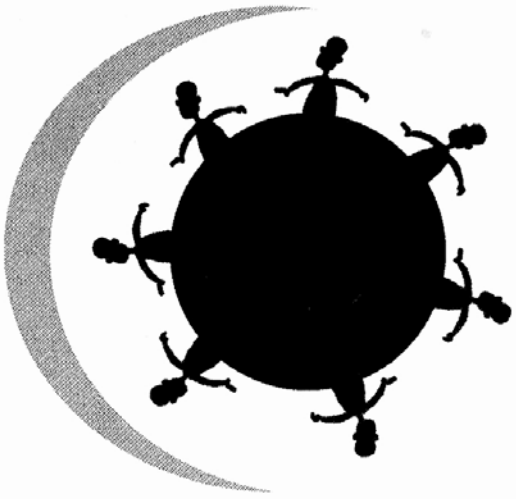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관해야겠지만, 주위 가족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정말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밝혀 주는 것은 나를 형성시켜 놓은 그 자리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자를 이끌어 주세요.

천차만별 세상이 생긴 까닭

문 제 생각에는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도 한마음 자리, 또는 주인공이라는 우주의 섭리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써 아주 완전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것에서 어찌하여 이런 우주가 생기고 미물이 생겨서 윤회가 생기고 또 업보가 생기고 또 부처도 생기고 중생도 생겨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웃고 울며 돌아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래 아주 맑은 거울에 왜 때가 끼었으며 또 그 때를 다시 벗겨내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 근원적인 문제를 질문하셨네요. 본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육조 선사께서 "틀이 없는데 거울이 어디 있으며 거울이 없는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테가 없어서도 아니고 있어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하면 없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하면 있는 데 치우치기 때문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마치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먼지 앉을 사이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무(無)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사량적인 마음은 이런 게 어떠니 저런 게 어떠니, 내가 했느니 내가 줬느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업보가 되고 또는 유전이 되고 윤회에 끄달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긁어서 부스럼을 내고 아프다고 울고, 또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고 관한다면, 이것은 본래로 일치되어 있는 한마음의 부(父)와 자(子)가 상봉할 수 있는 계기를 삼지 못하게 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심봉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프로펠러라고 따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하면은 그냥 그 사람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듯이, 또 프로펠러라고 부르면 그 프로펠러 속에 심봉이 들어 있듯이, 물질적인 것은 심봉이 보이지만, 이 색신 속에는 심봉이라는 것이 내놓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뵐 수도 없으면서도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여여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공 자리 밝아 먼지 앉을 새 없어
닥쳐오는 모든 걸 '나'로 보고 놓아라

그래서 팔자 운명이 붙을 자리도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그냥 공해 버려서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마음으로 지어서, 인연을 끌어당겨서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거기다 되놓는다면 입력된 것은 다 녹아버리고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데, 본래 진리가 그런 건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죄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업이 있다고, 때가 끼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본래로 밝아 있는 근본에 자꾸 돌려놓다 보면 틀도 없고 먼지 앉을 사이도 없는 주인공의 자리를 그대로 체득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음공부중 가장 중요한 점

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짓기가 무척 힘들고 또 참다운 스승님을 만나고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불의 길에 이르기는 더욱 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벗기 전에 한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십시오.

답 부처님께서도 당신은 부처고 우리들은 중생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다는 얘깁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전자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 보니까 안타까운 거지, 내가 잘 알고 저 중생은 모자라고 불쌍하다고 하는 건 멀쩡한 거짓말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나 아님이 없다고 할 때 바로 둘이 아닌 겁니다. 수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돌아 나올 때 어떤 거는 안되어 봤을 것 같습니까? 아주 하찮은 미물, 또는 곤충에서부터 진화돼서 화하고, 화해서 진화되고 나투면서 이 세상에 출현했을 텐데 어떤 것이 안됐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가 전자에 겪쳐온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두를 봐도 남의 잘못 같지 않고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눈물이 나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눈물이지 나 혼자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의 눈물입니다. 개별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진짜로 여기저기 끄달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 내면의 털구멍, 그 한 구멍밖에는 통신처가 없다 이겁니다. 털구멍이라고 하는 자체도 방편입니다. 가르치려니까 털구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털구멍이라는 이름 없는 그 이전을 털구멍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털구멍에 들여놔도, 많은 거를 다 들여놔도 두드러지는 법이 없고, 다 끄집어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묘하고 광대해서 삼천대천세계에, 과거 현재 미래 대천 세계에, 우주 전체가 다 체가 없는 마음 속에 자리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두드러지지도 않고요. 얼른 쉽게 말해서, 물을 몇 그릇 갖다 바다에다 부어 보세요, 두드러지나. 물을 몇 그릇 떠서 써 보라고요, 물이 줄어드나. 그와 같습니다.

이 공부를 안하고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깐 그냥 이걸로만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생활을 잘하면서, 그대로 생활 자체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어디까지나 공으로 떨어지게 하지도 말고 물질로 흐르게 하지도 마라 이겁니다. 정당하게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가 참선입니다, 그대로. 그게 도심이구요.

그러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자, 또는 이것저것 다른 중요한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똥물이라고 버리고 새 물이라고 취하는 법이 없듯이, 그대로 닥쳐오는 모든 것을 다 포섭하여 나 아님이 없게 놓아 나가는 생활을 하신다면 그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진정 알게 될 겁니다.

미움과 부딪침이 많습니다

문 힘들 때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렇게 찾을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게, 답답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비추어 주는 밝은 빛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막아서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이 빛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그림자도 만나지 않았을 것을, 하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제 생각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생각의 차이로, 각자의 차원의 차이로 인한 부딪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선원과 인연 닿아 공부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반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반들과 만나서 또다시 인과를 짓고 업을 쌓아 창고에 저장하느니, 모르는 예전으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저 모습도 지난날의 내 모습이야.' '그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하고 나와 상대를 동격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네가 했으니 다시는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 라고 관하지만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그냥 하고 나가면 될 것을 왜 자꾸 따지고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대해 자폐아가 되려는 지난날로 되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용서가 안됩니다.

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닫아 버린 가슴으로 무슨 관이 되겠습니까? 내가 관을 하든지 하지 않든 태양은 떠오르고 지구는 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어디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제게 맞는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많은 분들이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었는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야, 그만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싶기도 할거고,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잘 쓸 걸 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내가 배웠지,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참 그때 모자랐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것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그 옭매인 마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좀더 마음을 어떻게 해 볼 것을 .., 하는 마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닥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왜 내가 이런 인연으로 꼬였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힘겨워 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속는 거죠, 그 모습에요. 힘들다고 하는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바다에 가 보세요. 바다는 맑은 호수처럼 조용하다가도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일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자면 바다는 조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든 파도든 다 같은 바다입니다. 그 물은 파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얼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는 성질은 어느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바닷물의 여러 다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요, 그리고 진리와 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마치 바람이 자면 바다가 조용하듯이 마음이 조용해지면 망상이 가라앉았다고 하고, 바람이 일면 바다에 파도가 일듯, 마음이 산란하면 망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와 같이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신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을 어떻게 해 나가시렵니까? 바다와 파도의 근본이 둘이 아니듯, 본래 망상과 보리도 둘이 아니므로,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놓아버려야만 진정 '나'도 없고, 분별 망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분별을 다 놓고, 놓는다는 그것도 또 놓고 푹 쉬지 못한다면, 일일이 모든 것에 끄달리게 되어서 보는 대로 분별이고, 보는 대로 망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단을 바꿔 주세요) 모든 것을 나라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당했다 하고, 내가 즐겁다고 하고, 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있는 대로 고가 착착 붙죠. 살면서 새록새록 나타나는 고통을 혼자 짊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고통은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자기 몸뚱이도 빼 놓지 않고 주인공인 거죠. 모든 것을 더불어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한 속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자기 혼자가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동체(同體) 속에서 더불어 했으니까, 나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서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잘못한 거를 해결을 해야지, 내가 혼자 산다 하고 꺼덕거리니까 '흥, 너 혼자 했으면 너 혼자 맡아라.' 이러고 그냥 다 안겨진단 말입니다. 안겨지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도리를 진실히 믿고 그대로 해 나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별하여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여 고집한다면, 언제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실천하는 무심 법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 세상, 이 통 속에 갇혀 사는 그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통을 자유자재로 굴리며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 세포 소중한 느낌 들어

문 얼마 전에 심한 심적 갈등을 겪다가 스님께 질문을 올렸었는데, 어제 문득 가슴이 찡하도록 느꼈던 그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선천적으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 없어야 참 수행

☞ 19면에서 계속

로 잡념과 욕심이 많아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과거 의식은 직장에서 저를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만 등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최근 며칠동안 직장에서의 불만과 함께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만 두려고 하니 현재 처한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만 두려는 마음조차 주인공이 이끄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되는 갈등은 결코 내면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몸을 있게 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그리고 한결같이 내 안에서 안스럽게 바라보는 주인공 생각에, 내가 너무 내 안의 소중한 존재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진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과거 의식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 너만이 이런 습을 녹일 수 있잖아.' 하고 관했었습니다. 그러면 순간 평정을 찾고 괜찮다가 다시 그런 습성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느낀 느낌은 뭐랄까 주인공을 찾는 다기보다는 내 안의 세포들을 이젠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야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를 요청하기 위한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잘 모셔야 할 주인공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한 자성불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느낌에 대한 스님 말씀 청하오며, 항상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답 그렇죠. 참 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숭배를 해가면서 해야겠지요. 바로 자기 조상이니까요. 그러니 위대하게,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진정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둘이 아닐 때에, 애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애비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애비면 그냥 애비지 왜 애비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애비라고 그러느냐? 불이법(不二法)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아래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이건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 주고, 아버지 아들이 둘이 될지언정 하나다 이겁니다. 아들이 일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 주고, 뱀이 일할 땐 스님이 뱀이 돼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고, 사자가 스님이 돼 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 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 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 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나인데 수천 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뀌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몸 속에 들어있는 그 의식들을 업신여기고,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둘이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자기 몸 속에서 지금 수 십억 개가 지금 움죽거리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부분만 없어져도 자기는 없어지는데. 그렇게 의식의 이름도 많고 생명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한마음이라는 게 제일 편리하죠. 수 십억에 달하고 그 모든 중생을 '한 마음!' 하면 바로 한데 뭉쳐지는 거니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정신이라면 정신과 마음내는 거와 움직이는 육신이 삼합이 동시에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딱 뭉쳐서 든다면, 그 하나에 모든 겹가지들이 다 따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다 해결을 하고 나가신다면 인생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항상 관하라는 말씀의 뜻

문 선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마음공부를 하는 데 있어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나 염불이나 참선 등의 방편에서 일심(一心)으로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공을 항상 관하라는 스님의 법문은,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주인공을 관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 한 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동생이 형을 보고 "형"하면 금방 형이 되죠? 그러고 부모가 부르면 또 아들이 되죠?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되죠? 자식이 부르면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건너뛰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자체가, 진리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과 몸 안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거예요.



그림 · 최주현

단 한마디라도 진실해야 힘 담겨

보리 – 망상 둘 아니니 분별 말라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관하세요. 사회에 살면서 좀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다 맡겨서, 보디가드한테 맡겨서 일을 처리해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십사시간 살아 있죠?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십사시간이 그냥, 이십사시간뿐만 아니라 자는 것도 참선, 일하는 것도 참선, 서 있는 것도 참선, 앉아 있는 것도 참선, 일거수 일투족이 다 그렇죠, 이십사시간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면서 살림하는 게 전체 참선이고 공부라는 걸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문 스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공부하고, 선원이라면 청정해야 하고,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 등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담아야 합니까? 남에게 미안한 일이 있으면 말뿐 아니라 마음으로 사과함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허우적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나를 이해해 달라고까지 한다면 지나친 것이겠지요? 미안한 것도 미안한 것이지만 나 자신을 내세워야 할 때는 내세워야 하는데 매사가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답 진실한 것은 자기만 알면 될 뿐, 누구더러 알아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 달라고 하는 것도 습이예요. 그것도 인과가 되는 것이지요. 알아 달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남이 뭘 알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바깥에서 허우적거리며 찾고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부처님께 누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괜한 소리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단 한 마디의 말일지라도 진실한 말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으로나 밖으로나 오직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마음을 지니고 진실하게 행을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계 끄달려 간절하지 못해요

문 쉽게 경계에 끄달리는 자신을 보면서 믿음의 깊이가 얕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부의 도리를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는 와중에서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구하는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제 마음이 여우와도 같아 좋은 것이 있으면 아상이 생기고 나쁜 것이 있으면 노예와 같은 마음, 중생상이 생깁니다. 물론 이조차도 주인공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아야겠지만 이토록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평소의 행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평소에 주인공을 진실하고도 간절하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가 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란 게 제게는 아직 항상 하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절실함이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조차 망상이며, 제가 공부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인지요? 화두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화두를 든 사람의 우직하게 참구하는 마음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항상 부처님과 스님을 비롯한 제대 선지식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답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가 붙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도 아니고, 이것을 안 해야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있다면, 오직 근본을 믿고 여여하게, 육신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게끔 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둘 아니게 탁 믿으세요.

그것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일체를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모두 송장들일 겁니다.

자기가 송장을 움죽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빨리 해라, 늦게 해라 할 것도 없고, 잘돼야 한다, 못돼야 한다 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사는 거니까, 이것을 절실하게 믿어야 하고 간절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거기 놓으세요. 되게 하는 것도 오직 너다 하고 놓고, 감사하게 놓으세요. 모든 게 그렇게 그냥, 마음이 급하고 급하지 않고를 떠나서 닥치는 대로 밀어 넣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세요. 거기에 진짜 묘미가 있는 겁니다. 서둘면 눈 앞이 캄캄해지는 거니까, 마음을 순일하게 가지시고 오직 진실하게 믿으세요.

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문 스님의 가르침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신통치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체를 주인공에 믿고 맡기고 관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는 하려고 하고있으나 실제 실행을 하다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좀더 나은 방법인지, 흐트러지고 시작도 끝도 없이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질문 드리오니 생활하면서 늘 실천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를 때 '불을 켜야 하나?' 하고 불을 켭니까? 안 그러시죠?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구가 모두 가설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불을 켤 뿐입니다. 방바닥에 물이 떨어졌으면 아무 소리 없이 걸레를 갖다가 닦을 뿐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먹거나 "나 물 좀 줘." 해서 그냥 마실 뿐입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붙느냔 말입니다. 내가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물에게 물어 봅니까? 내가 너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고 물어 보고 먹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마실 뿐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한다고 하면 수행이 아니지만 주인공이 한다고 하면 수행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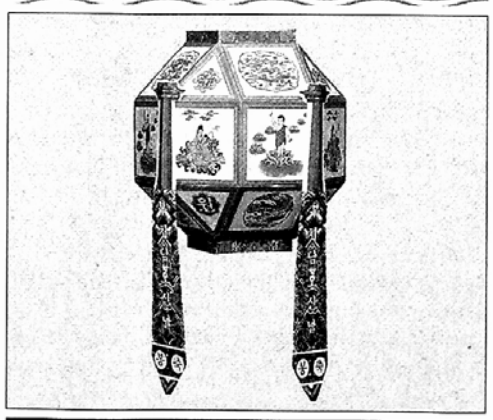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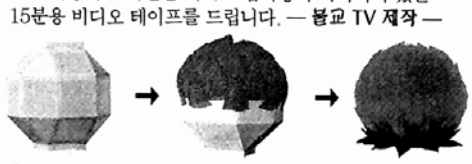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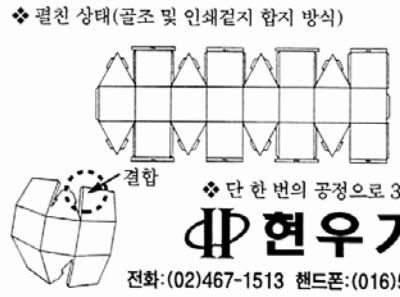
인생이 한 철이에요, 한 철! 우리가 인생 한 철을 아주 급급하게 매달려서는, 빨리 가는 길이 뭔가, 남보다 앞서는 길이 뭔가 이런 것만 살피고 산다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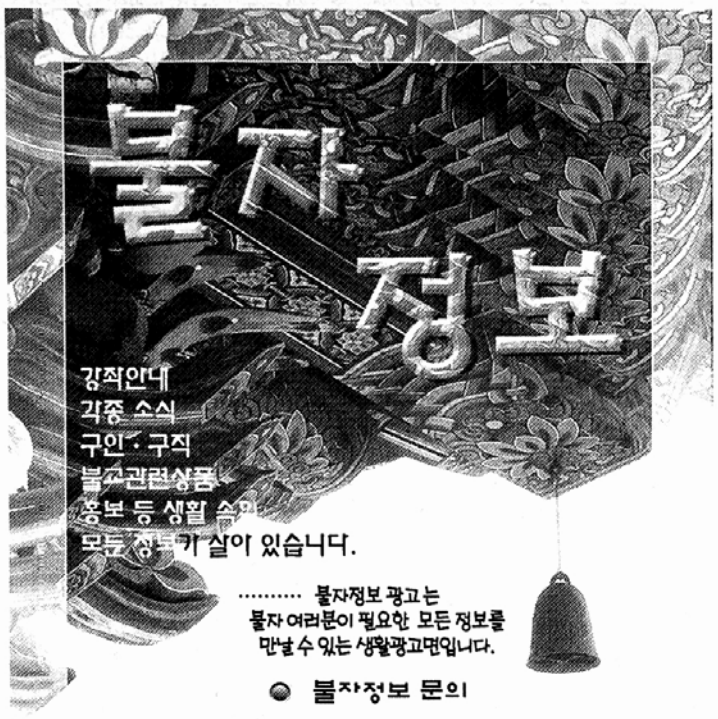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제쳐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몽땅, 자기 몸뚱이는 자불(自佛)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그냥 다 맡기고 편리하게 놓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 한 철 사는 동안 공부한 것으로 인해 세세생생 돌아가고, 세세생생 돌아가는 그 위치의 권한으로 인해 위로는 먼저 가신 조상님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다 이끌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흥락하게 살 수 있으려면 좋은 길 나쁜 길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그 자리에 놓는 마음이 되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주소록 정리작업 안내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에서는
동문회 주소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동문회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중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동문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회장 법조 합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전 화 : 02-737-0408
팩 스 : 02-720-0050
http : // www.sukrim.or.kr
회비 납부 :
국민은행 023-01-0562-081
예금주) 석림동문회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 (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전화 : 031)682-5033 FAX : 031)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동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팝송·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락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벽조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 단한번만 복용해도 중풍(中風)에 절대로 걸리지 않은 조약. 비전(1개라도 주문하시는 분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천주, 108염주, 담주, 합장주, 인감도장 특수용도장, 차량용걸이 열쇠고리 움자
농 협 150042-52-200478 이 민 택
모든 수익금은 지장선원 불상 복원 불사기금으로 쓰여집니다. 혜봉합장
053)982-6778 011)813-3679 **지장선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 한길 정진원
031)574-5585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성불사에서 정법으로 함께 수행정진할 스님이나 거사님 몇분을 모십니다
침식등은 무료제공
054)858-0134

범패모집
총등, 중등반, 시련, 상단과 중단, 퇴공,작법,짓는소리 관음의식, 귀명의식, 도량계·복청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보 환영
- 전 화 031)865-4893
- 핸드폰 011)661-9119 주 지
사찰부지 천육백평 확보
창건 하시어 평생 같이 계실 분 찾고 있습니다.

특허품 **명당 탐지기** 특별 보급기 38만원
◎ 발명신상품(특허) 스맥탐지기 12만원
※ 수험생용 베개, 방석, 건강 천연지기요 수맥방지 바닥 마감재 (1평당 6만원)
▷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053) 982-6778 / 011) 813-3679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부전스님(비구니스님)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60세 미만)
모십니다
02)877-7514

참선 선방 불사 중 재정관으로 일시 중단 됨.
경제력 있으시고 참신하신 불자님을 **평생 모십니다.**
■ 1998년도 원주시 치악산 430고지에 2000평 부지 확보
■ 99년 50평 목제 요사채 완공
■ 2000년 대웅전 30평 전통사찰 목제, 9포 7포 90% 완공
■ 현재 참선선방 150평 불사 중
■ 치악산 자락에 물맑고 경치 최고 좋음 계곡 청정수를 그대로 먹음, 교통 편리
■ 참선선방 불사에 동참하실 분은 내왕하시어 확인하시고 상담 바랍니다.
☎ 033)763-1514 H.P 011)271-0669
원주시 치악산 백운암 (무위선원)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및 출가에 뜻이 있는 신자님 모십니다.
▷인천
032)435-0478

• 평생을 같이 하실 스님 모십니다.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안 영락사
041)584-6675
041)584-6676
011)289-1635

같이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 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3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2333

경기도 화악산 줄기 산세가 우렁하고 물 세 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하실 비구니 스님을 구합니다.
017)708-0635
수 월 스 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지역 : 부산
40~50대
051)264-9621
051)263-6623
011)577-7600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17시
주 5일근무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55세
전 화 : 02) 3675-6864
※ 의욕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 50대 후반)
기도하여 함께할 분
017) 261-7905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상운사
나이 60세 미만
033)482-3382~3
011)764-3661

사찰(급)안내
• 다구시내 중심가 2층 49평 독채대문
• 법당 및 큰방2, 조리장, 화장실 샤워장
• 보증금+시설비=총250(월40만원)
전화053)255-6628
(집기일제무료,스님몸만오시면 즉시 법회됨)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
• 건물 : 1동 151평
• 가액 : 3,000만원
• 대지 : 7~8평 (시유지)
043)653-3249
031)845-0421

사찰(인법당)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국립공원 가는 길. 산밑에 위치하고 주차장은 사찰 밑으로 50m에 있음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43평(국유지 허가필)인법당 15평, 산신각, 부처님 세 분, 호신불 108분, 탱화, 사무실, 기도방 7개, 화장실 2개, 입식 부엌, 다락
• 기타 : 신도가 번성할 터, 기도 도량 즉시 입주 가능
• 매매 :4,580만원(절충 불가)
042)255-5063/017)423-0546
삼정정사 (삼론종)

사찰안내
• 위치 : 양평, 서종, 양수리 북한강 쪽 (잠실 30분 소요)
• 평수 : 대지 400평 남짓
• 건물 : 60평 인법당 20평 (건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음)
• 금액 : 3억 6천
• 특징 : 앞 계곡, 뒤산이며 연못 약수가 좋음 법당 둥 300개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011)9904-787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명당터(급) 안내
• 충남 예당 저수지 근교 10분거리 (2차선도로접)
• 평수 : 총 86,500평 대리 전답 임야 야산속 저수지 3000평 포함
• 가액 : 총 평당 25,000원
• 특징 : 옛 원님 관사 두채
011)323-3929/011)9891-39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 20평 방 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031)868-0516
016)335-8257/011)365-4408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55)526-1725
016)501-2725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 375-7063 (창건주 직접)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거리
• 법당 21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 대지 : 360평 주차장 80평 밭 173평
• 특징 : 심야보일러, 태양열 온수기 설치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음, 절뒷편 등산로, 지방문화재 3층 석탑
• 가액 : 2억 9천 (절충가능)
011) 671-5161 / 011) 673-2410
063)451-241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금호
• 부지 : 236평 인법당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방 3개 현대식 주방
• 건영 40평
• 특징 : 주차 완비 교통 편리 전망 남쪽
• 가액 : 1억 8백만원
011)501-1640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악산 줄기
• 특징 : 사찰로 짓기 명당자리, 정관 좋고 맑은 계곡 있음
• 대지 : 250평 • 전 : 350평
• 건물 : 40평 (99년 신축)
• 가액 : 1억4천만원
033)441-3360

사찰안내(전세)
• 위치 : 서울 근교 30분 거리
• 평수 : 대웅전 20평, 지각장 12평 요사채 30평 • 대지 : 256평
• 가액 : 3억(전세 1억 5천) 전세후 매입도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위전경 좋음, 개별중
031)637-0325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대지 : 38평, 실사용평수 : 45평
• 특징 : 인법당, 주변녹지, 경관수려, 교통편-전철역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5천2백만원
016)481-690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산 명당
• 부지 : 1만평, 자연녹지 주거지역 등산로
• 가액 : 평당 80만원
011)241-0408

토굴(급)안내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30평 임법당1개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300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안양 윤근스님 전화요망
033)763-9737

사찰 안내
• 위치 : 온평구 응암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철성탱화, 대북, 범종, (불단조각, 닫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엠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위 치 : 밀양	• 위 치 : 충주
• 법 당 : 45평	• 법 당 : 1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70평	• 요 사 : 20평	• 요 사 : 45평
• 부 지 : 82평	• 부 지 : 220평	• 부 지 : 770평
• 가 액 : 3억2천	• 가 액 : 3천	• 가 액 : 1억9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소재
• 대 지 : 170평 (시유지 80평 포함)
• 법 당 : 30평 (2층)
• 요 사 : 70평 (1층)
※ 뒤는 산이며, 도심포교 사찰로 건립 대단위 APT 단지 옆
※ 수원역에서 승용차 15분 거리
• 양도가 : 3억 (은행융자있음)
• 위 치 : 충북 증평 소재
• 대 지 : 400평
• 법 당 : 35평
• 요 사 : 70평 (2동)
• 양도가 : 3억
※ 50년 역사의 역사깊은 소행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3동 (30평 이상) 산신각 종각 5층탑 미륵존부처님
• 특징 : 기차역이 도보로 5분거리 버스터미널 3분거리, 경관이 좋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 561-7791
018)273-9390 / 011-753-076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실상사 미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직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좋은인연
의령 자굴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조선 선비 별장입니다. 대략 내용은 건평 18평, 대지 287평, 전답 1003평 입니다. 조용하게 정진하실 분의 토굴이나 암자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32km됩니다. 희망가액은 2억 5천만원이며, 연락주실 분은 (055)573-8972 번으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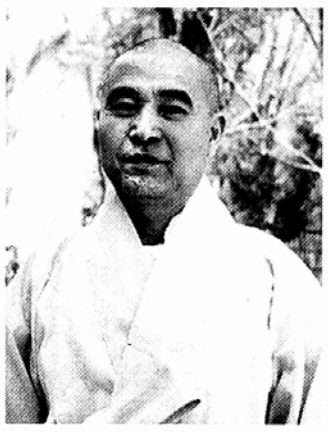
사찰안내급(도지전세)
• 충주댐 강변 불암사 3년 4五百만 도지 5년 234만원 도지
• 시설내용 : 석굴암 높이 7尺 종단7尺연장 50m 요사채 34평 2층 3층 법당 15평 석탑 5층 관세음불상 15尺 아미타불좌불 산신각 5평(도지가 및 양도가 조정가능) 종교부지 703坪外 1200坪 가액 2억 5천
043)848-1766/019)485-1766

포교당(급)안내
• 강북구 사거리 화계사 입구
• 2층 50평 바닥 전체 도시가스 시설
• 가액, 보증금 + 시설비 3천만원 월 70만원
02)988-4773
011)471-4755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종교 초월 이웃돕기 실천

의정부 사암련 지섭스님



"지역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은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며 함께 나누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 의정부시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인들이 종교이념을 초월해 손을 맞잡고 이웃사랑을 잇달아 실천해 훈훈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불우이웃 돕기 김장 담그기행사'를 펼쳐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가 하면, '종교합동 등산대회 및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종교합동 국난극복 송년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종교간 벽허물기 행사를 개최한 것.

이 행사를 주관한 의정부시사암연합회 회장인 지섭스님(홍법사 주지)은 지역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종교화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웃돕기 운동을 올해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 보시·환경정화 공동실시

푸드뱅크 · 무료진료 봉사 호응

이와 함께 지섭 스님은 '안녕하세요 · 고맙습니다 · 실례합니다 · 미안합니다'란 말을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웃간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안 · 고 · 실 · 미'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의정부시사암연합회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에 소속된 200여 사찰의 연합단체로서 경기북부지역의 불교복지 및 신행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암연합회는 자원봉사단체인 '좋은일하는사람들'을 설립해 냉동차 2대로 푸드뱅크사업을 전개하며 무의탁노인과 재가중증장애자, 저소득층, 결식가정 등에 제과점 식료품점 등을 통해 얻은 남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다.

또한 연화복지의원을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봉산 홍법사와 망월사에서 무료급식소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섭 스님은 올해 봉축기간에 지역 소방관들을 돕는 등 불교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기북부 수해예상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자원봉사연합도 창립할 방침이다. 또 의정부 지역의 각종 청소년동아리를 후원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조직도 만들 생각이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군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지섭스님은 "불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가 전제될 때 복지 · 포교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불자들의 보살행을 거듭 당부했다. (031)848-6114

의정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자성찾는 발심의 기회"

해인사등 수계법회 · 정대불사 봉행 잇달아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게 하소서"

음력 3월을 맞아 전국 주요 사찰들이 보살계 수계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특히 각 사찰의 보살계 수계법회는 그 사찰의 유서깊은 역사를 되새기거나 뜻깊은 행사와 함께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쌍계사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쌍계사 금강계단에서 '제26회 보살계 수계법회 및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30일 오후2시와 31일 새벽 4시 각각 열리며, 이어 정대불사가 진행된다.

승보종찰 송광사는 4월20일 보조국사 종재를 지내고 이에 맞춰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보살계 수계산림 을 봉행하며, 수덕사는 이달 31일 오전 10시 만공 대선사 탄신 130주년 다례제를 올린 후 만공스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연이어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주요사찰 봄철 수계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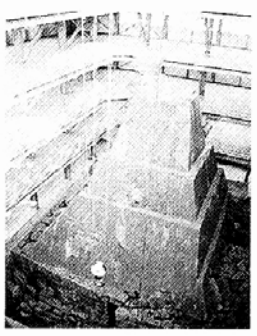
사찰명	행 사 명	일 정	연 락 처
쌍계사	보살계 수계법회 및 대장경 정대불사	3.29-3.31	055-883-1901
통도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3.29-3.31	055-382-7182
수덕사	만공대선사 다례재 및 보살계 수계법회	3.31	041-337-6565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4.6-4.8	051-508-3122
송광사	보조국사 종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	4.19-4.20	061-755-0107
백양사	보살계 함동 수계법회	4.27	061-392-7502
해인사	제4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4.2-4.3	055-931-1001
조계사	정대불사	3.27-3.29	02-732-1390

불보종찰 통도사는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29일부터 31일까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봉행하며, 범어사도 4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연다. 또 백양사는 4월27일 말사와 본사 신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살계 함동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해인사는 국난극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4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4월2일과 3일 이틀간 봉행한다.

한명우 기자

미륵사지탑 4월 해체 2007년 복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해체작업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전북 익산지구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는 석탑 해체를 위한 가설덧집(사진)과 석재 보존 처리실 설치가 최근 끝남에 따라 오는 4월 18일경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사업소는 이를 위해 99년 건축, 미술사, 보존과학, 지질학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소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해체 작업에 참여할 '미륵사지 석탑보수정비단'을 구성했다. 보수정비단은 건축, 보존처리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한다.

관리사업소는 이 석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탑이라는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해체작업을 2004년까지로 길게 잡았다고 밝혔다. 복원작업은 2007년까지 진행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부산정토회 통일정진

24일 입재 내년 11월 회향

통일염원 철야정진의 대장정이 부산에서도 시작됐다.

부산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주최로 3월 24일 부산정토회 법당에서 입재해 2002년 11월 23일까지 88주간 계속될 통일염원 철야정진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을 부산에서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산정토회는 88주간의 철야정진 기도기간중에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으로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위한 나무심기, 굶주리는 동포를 돕기 위한 통일돼지 저금통 키우기 운동 등 생활속의 실천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정토회 관계자는 "기도의 원력으로 분단의 세월을 화해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탐라불교 범패연구 · 제주불교硏 등 설립

제주불교사회문화원(원장 시몽스님)은 24일 제주불교연구소와 제주불교전통음악 연구소(범패연구소)를 개설했다.

제주불교연구소(소장 오성스님)는 사회교육 사업, 제주지역 불교 역사연구, 불교 관련 학술세미나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제주불교전통음악연구소(소장 성천스님)는 제주 범패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교육 자료집 · 교재 발간과 불교음악(범패 등) 강좌, 학술세미나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064)738-5225

김재경 기자

부처님 오신날 '성불카드' 보내세요 부산 체신청 제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체신청에서 전국 최초로 불교카드인 '성불카드'(사진)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불상, 동승 이미지 등을 이용해 만든 성불카드는 말린 꽃잎을 압화해 만든 고급 생화카드와 일반카드 8종으로 사찰에서 신도에게 보내는 행사 안내문, 신도들 사이의 인사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부산 체신청은 성불 카드 판매가에 우편요금을 포함시켜 한층 저렴하고 따로 우표를 붙이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한 성불카드는 연등, 동자승, 석굴암 부처님 등 불교적 이미지를 카드에 맞도록 디자인해 봉축의 의미와 함께 성불의 서원을 카드에 담을 수 있어 봉축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불자들과 사찰의 반응이 좋을 경우 부산체신청의 성불카드 제작 보급은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성불카드에 담아 전하는 초파일 카드 문화 보내기를 일상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평이다.



처음으로 성불카드를 제작 보급하는 부산 체신청은 사찰에서 성불카드를 대량으로 주문 제작할 경우 봉투 주소기재, 우편물 봉입, 봉합, 우편물 접수 등의 작업을 대행해 준다.

24일부터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성불카드 가격은 매당 1,000원, 500원. (051)703-4925

부산=천미희 기자

중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훈할머니 천도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의)와 훈할머니돕기후원회(회장 법타스님)는 4월 4일 오전 11시 은해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출신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숨진 훈할머니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54)335-3318

관음사서 '4·3유적' 발견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중원)경내 숲속에서 제주 4 · 3사건 당시 군 토벌대가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숙영지 등의 유적이 대량 발견됐다. 관음사는 23일 아미봉 근처의 돌담무더기에 대해 4 · 3사건위원회 전문위원팀 등에 조사 의뢰한 결과 한라산 토벌작전 당시 군이 구축했던 유적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음사는 지난 49년 2월12일 토벌대의 방화로 대웅전과 향적전 등 건물 8채가 전소됐다.

법륜종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종정 정각스님등 종단스님들은 31일 오후 3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훈련장병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3500여 훈련병이 수계를 받을 예정이다.

선각종

창종 1주년 기념법회

종정 정업스님, 총무원장 정암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6일 광주 분원에서 창종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이날 임시종회도 개최해 종회의장에 동명스님(이천 정토사 주지), 부의장에 보안(다성사), 명지(자성사)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종립불교대인 선각불교대를 오는 5월10일 개설하기로 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부니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 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나무 재배하실분!
⊙전망좋고 사업성 있는 작물을 찾고 계십니까?
국산 토종오가피나무를 심어보십시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도와드립니다.
재배설명회에 직접오셔서보고 듣고 오가피 농장도 확인하신후 결정하십시오.
오가피 건강상담 · 설명회 참가신청 ☎02)968-7711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지역 불교회관 건립 잇달아

구미-대전-창원-춘천-인천 등

"신도교육 · 문화포교 활성화 기대"

구미불교회관이 15일 개원한데 이어 대전, 창원, 춘천, 인천에서도 불교회관이 잇달아 낙성될 예정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신도교육, 지역 불교문화 활성화및 포교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대전시와 인천시를 포교거점지역으로 정하고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한 백제불교회관이 28일 오후 4시 개원식을 갖는다.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가 대전지역 포교거점으로 운영하는 백제불교회관은 70평 규모로 대전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위치해 정부종합청사불자회를 비롯해 대불청, 대불련, 어린이지도자회, 법사회 등 각 신행단체가 이 곳을 법회 및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또 '백제불교문화대학'을 설립하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인력뱅크'를 구축, '충남 · 대전 불교환경감시단'을 발족하는등 지역환경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현성)는 지난 1월 인천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광)를 구성하고 6월중에 불교회관 건립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인천시청 앞에 213평의 부지에 3~7층 규모의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불교대학 등이 들어서, 신도교육과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창원과 춘천에도 대규모 불교회관이 회향을 앞두고 있다.

천태종 원흥사(주지 유정)는 내달 10일 창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천475평 규모의 매머드 종합불교회관 낙성식을 갖고, 지역포교에 나선다.

4년여만에 완공된 이 종합불교회관의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기도실, 봉사회 · 청년회 · 학생회 방, 2층에 불교유치원, 3층에 대 · 소강당 영세민에(무료예식장으로 개방)및 요사채, 4층에 대법당이 들어선다.

지난 18일 불교회관 상량식을 거행한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가 5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3년 초 완공할 예정인 불교회관(4층)은 연건평 1200평 규모로, 종무소와 신행단체 사무실 유치원 도서실 소강당 요사채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15일 구미불교회관(4층) 개원식을 가진 구미선산사암연합회(회장 정우)도 구미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신행단체의 법회 및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법사를 위촉하는 등 재가불교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내달 10일 문을 여는 창원 원흥사의 종합불교회관 전경.

서울 노인복지센터 운영체 조계종 복지재단 선정

노인복지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운영체로 조계종 복지재단이 선정됐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21일 "서울시로부터 본 재단이 위탁체로 결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 시설은 앞으로 조계사가 맡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탑골공원과 인사동 그리고 조계사를 잇는 불교문화복지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됐으며, 노인복지시설이 없었던 복지재단으로서는 사회복지 전 영역을 고루 확보하게 됐다.

탑골공원 인근 종로구 경운동 (구)통계청 자리에 세워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총건평 2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으로 건립됐으며 진료실, 공동작업실, 자원봉사실, 체력단련실, 이 미용실, 온돌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복지재단은 우선 하루 평균 1천여명에게 제공하는 탑골공원 무료급식을 4월1일부터 복지관에서 실시키로 하는 한편, 시설 이용 노인들의 욕구를 수렴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관은 이달말이나 4월초로 예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재단은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로부터 구립 미림어린이집을 수탁했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재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해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19일 공개한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이 2백4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세출액도 2백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1년 예산 157억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한명우 기자

능엄경 언해본 등

국보급 문화재 밀매

전국의 유명 사찰 등에서 훔친 문화재를 밀매해온 전문 밀매단(본보 311호 29면 참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봉원사에서 도난당한 능엄경 언해본과 해인사 중건 발원문 등 국 · 보물급 수준의 문화재를 다량으로 밀매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문화재는 해당 사찰에서 도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사찰 문화재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능엄경 언해본과 '해인사 중건 발원문' 등 국보급 문화재를 사들여 처분하려 한 문화재 밀매상 구모(56)씨를 19일 입건하고 이들 문화재를 사려한 대구 모 병원 의사 김모씨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미륵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없었다"

통영환경연합, 시장등 고발

통영시가 미륵도시공원(52만평)을 추진하면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통영시장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98년부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현재 통영환경운동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통영시가 97년 12월 미륵도시공원을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을 당시 미륵산 곤도라 및 모노레일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99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받았어야 했는데도 올해 1월 26일 조달청 조달관보를 통해 공사입찰공고를 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군종정책 종교 편향'

김태호의원 의정활동 놓고

울산 기독교단체 '낙선운동'

김태호 의원이 국회에서 군내 특정종교편향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기독교선교연)가 반 기독교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비난성 문건을 유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독교선교연은 지난 15일 울산지회 발기인대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울산 중구 김태호 의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울산기독교연합회에 전달했다.

A4용지 5매 분량으로 구성된 문제의 문건에는 김 의원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질의내용, 선도상담백과 재발간과 관련해 문제분석과 주요현황, 대응 및 세부전략 등 12가지의 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한나라당 불자회장인 김태호 의원은 그동안 군종정책이 기독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해왔고, 종교편향 내용을 담은 〈군선도책자〉 재발간에도 노력했다.

울산기독교연합회는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태호 의원을 항의 방문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4월 15일 울산 동춘체육관에서 열릴 부활절 행사에서 유인물 2만장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지역구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 보좌관 이태호씨는 "국방부의 군종정책이 특정종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군내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편향대책위는 울산사암연합회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김태복장군 사건 신속-공정 판결하라"

대불청등 5개 단체 촉구

대한불교청년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5개 불교단체들이 사법부에 김태복 육군소장 상고심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불교단체들은 20일 포교원 4층 소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김태복 육군소장 개인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시주자의 순수한 보시정신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1년 2개월 동안 상고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사법부는 공명정대하게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국방부장관인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김태복 육군소장사건에 대한 잘못된 조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과 현 조성태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지은 군법당을 불법건축이라고 주장한 육군 황 모 대령과 당시 군검찰관 등 관련자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불교단체들은 한시적으로 '(가칭)김태복 육군소장의 공명정대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불교단체모임'(이하 불교단체모임)을 빠른 시일 내에 결성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대법원과 관련기관에 대해 면담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도 20일 김태복 육군소장 사건의 담당 주심 1부 박재윤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재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생명나눔 연합동아리' 창립

8개 대학 참여…무의촌 의료봉사 등 추진

서울지역 각 대학생들이 연대한 '생명나눔(Life Share) 연합동아리'가 발족됐다.

동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항공대, 서울산업대, 서경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8개 대학 학생 20여명은 지난 17일 생명나눔실천회 회의실에서 창립모임을 갖고 임원진 선출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합동아리는 지난 2월 만들어진 동국대 '생명나눔동아리'와 함께 대학가의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장기기증운동 활성화 및 생명나눔실천회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동아리는 이날 회의에서 매월 첫째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4월7일 고아들이 모여 사는 의정부 통일안국사에서 첫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는 한편 각 학교 축제때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7월에는 무의촌의 료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찾기'에 동아리 홈페이지 'Life Share'를 개설하는 등 대자보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교내외 홍보에 주력, 현재 30여명인 회원수를 늘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합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 신청자들로 구성돼 있다.

연합동아리 회장 장헌석군(동국대 경찰행정 4년)은 "차원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도와주세요

네식구 20만원 한달살이

부모의 경제능력 상실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엄마와 알콜중독으로 생활력이 전혀 없는 아빠를 대신해 지영(18 · 가명)이는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한달 수입은 20여만원. 다니던 학교는 벌써 중퇴했다. 중학교 2년, 초등학교 1년인 두 동생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한달 수입 20만원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 결연후원이나 도움주실 분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6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북장사 극락보전 법당 중건 모연문



웅장한 산세 힘차게 솟아오른 천주산 길상지에 자리잡은 북장사 극락보전은 여행(呂行)화상이 현종 원년(1660)에 불사를 시작하여 8년 만에 완공한 법당입니다.

본래의 법당 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부연은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 내부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 · 대세지보살상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이 불상은 경남 · 북 일원에서 제일 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塡王)이 부처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영험스러운 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사바에서 고통받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신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모셔져 있는 극락보전이 비가 새고 허물어져, 산새들은 조석으로 내려보며 울고, 지나는 참배객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따름입니다.

생각건대 법당 없는 부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복전(福田)을 짓지 않고 무슨 불과(佛果)을 얻을 것인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한줌의 흙을 쌓아 태산(泰山)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 정성과 힘을 묶어 극락보전을 다시 세우기로 부처님께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이 발원으로 신도들은 정재(淨財)로서 공덕(功德)을 심를 것이요, 수학자(修學者)들은 복전당(福田堂)을 얻을 것입니다.

청컨대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여!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을 기울어 이 거룩한 불사(佛事)에 선연(善緣)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3월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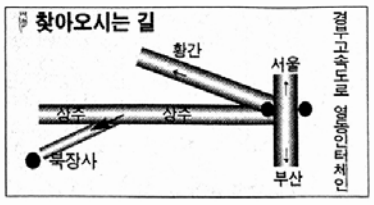
주지 효 담 합장

만동불사 및 괘불친견법회안내

극락보전 원만회향을 위해 북장사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보물로 지정돼 있는 높이 13m의 북장사 만동불사 및 괘불친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길 앙망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 고속버스
서울→상주 ※택시이용

· 기차편
김천→상주 ※택시이용

·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4377 북장사



이름 있건 없건 내 모습 아닌가

감성으로 보는 절

<5>하찮으나 귀한 생명-잡풀

자성 일깨워 주는 '잡풀화두'

세속 벗어난 이상세계 없듯 눈물닫고 사는 삶도 즐거워

절이 있는 산에 가면, 언제나 반갑게 그리고 새롭게 나에게 인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늘 즐겁다. 절로 가는 신길을 따라 냇가를 옆에 끼고 마음의 때를 씻으며 발걸음을 옮기면, 내 왼편, 오른편 그리고 앞과 뒤,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발밑에서 온통 내 마음의 손을 붙들고 인사하며 악수하는 이름 모를 나무들, 풀들 그리고 바위들이 나는 무척이나 반갑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눈길로 인사하고, 때론 손으로 쓰다듬으며 세상 속에서의 시름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마다 소리 없이 나에게 던지는, 그들의 미소는 나를 부끄럽게 하며, 무위자연의 빈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나는 원래 아는 것이 얕고 부족하지만, 특히 나무이름, 풀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꽃이름, 풀이름, 나무이름을 잘 알고, 그 내력까지 줄줄이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하도 부러워, 일부러 그런 것을 공부하려고 책을 사 보기도 하며 아무리 애써도, 막상 자연 속에 숨어 사는 그들을 보면 그 이름과 내력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풀은 풀, 나무는 나무로만 보게 된다. 그리고 누가 그게 무슨 꽃이냐고 물으면, 난 그냥 파란 꽃, 노란 꽃, 빨간 꽃, 그렇게밖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이 무슨 소용일꼬.

이름이란 사람이 사람의 소용에 따라 붙인 것일 뿐이다. 사람이 소용되지 않는 것은 이름을 붙이지 않아, 그냥 '잡' 자를 붙여 버리고 만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밖에 있게 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난 잡풀이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사람으로 치면 잡놈이란 말인데, 잡놈은 다 몹쓸 놈같이 생각하는 이 불공평한 엘리트주의가 난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 그야말로 태초엔, 애당초 이름이 없던 세상인데 사람이 저 쓸모 있는 것만 골라 사람들 편하라고 제멋대로 이름을 붙여 놓곤, 저네들이 쓸모 없다고 이름 붙이지 않은 생명은 푸대접을 해? 이름 없는 것이 무슨 죄라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잡'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이름 있는 것 중에서, 또 뽑아 내어 '유명'과 '무명'을 갈라내고 나누어 차별해야 할까? 유명한 생명은 빼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우러러 섬겨야 하고, '무명'의 생명은 거들떠보지 않으며 깔보는 사람들의 조작된 의식세계가 나는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뽑힌 자이른바 엘리트들의 세상이 되고, 뽑히지 못한 자들은 늘 짓밟히며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불공평한, 엉뚱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오로지 홀로 귀하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은 낱낱의 생명은 모두 홀로 귀하다는 생명선언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낱낱의 모든 생명은 그 하나하나가 차별 없이 다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뽑힌 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문명은 생명을 시들고 병들어 가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닐까?

꽃만 아름답다고 하면 꽃의 본질인 잎은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무명의 생명 속에 참생명의 진리가 있고, 자성의 본성이 있고, 불신의 보현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명의 생명은 더 귀하다. 적어도 생명을 가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도 얼마나 세속 속에서 가식의 때를 묻혀가며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산 속의 이름 없는 풀들 속에서 나도 생명의 본성과 신선함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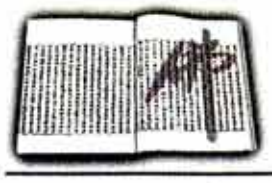
나는 세속이란 말을 좋아한다. 세속 속에 나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불가에선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만, 고해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실존'을 나는 뼈저리게 느낀다. 아픔의 세상, 괴로움의 세상, 그 세상 속에 내가 있고, 그 세상 속에 내 이웃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다. 그 속에 함께 하는 세속을, 늘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는 내 삶을, 이 세상을, 나는 '어쩔 수 없이'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 세속을 벗어나선 종교도, 이상세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세속)에 오신 뜻도 그럴 때 의미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정토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륵이 이 세상에 하생하여 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이상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이 간혹 위험한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

숲 속을 보라. 길섶을 보라. 이름 있는, 이름 없는 온갖 초목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절로 가는 산길의 숲 속은 나에게 자성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화두다.

세존께서 길에서 문득 멈추시고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이 곳에 절을 세우라 하셨다. 제석께서 '한 줄기 풀'을 뜯어 땅에 꽂으며 말씀하셨다. 절을 다 지었습니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법등 밝히자"… 관심 고조

한글대장경 봉안 어떻게

현대불교신문사가 역경원과 함께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사찰에서 한글대장경봉안 불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의 증가는 한글대장경을 모시면 사찰이 불 법 승 3보를 여법하게 갖춘 도량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싶어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해 누구나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찰측의 원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 제작한 장경각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하는 불사의 형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불사 형태 3가지를 소개한다.

한 불자 한 권의 한글대장경 봉안

사찰에서 한 불자 한 권의 한글대장경 봉안하기 운동을 벌이는 것. 이를 통해 불자들은 대장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특히 대장경은 법신불이라는 신앙적 의미를 인식하여 경전읽기가 신행생활의 기본자세임을 확고히 인식하게 된다.

한글대장경 봉안불사는 법신불을 모시는 불사이므로 지혜로운 삶을 발원하는 기도정진 불사를 겸할 수도 있다. 즉,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 기간을 정해 그동안 일정한 시간(주로 여름시간)에 지혜로운 삶을 염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 경우 인연 있는 경전을 여러 불자들이 함께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 있다.

불자들이 한 권씩 봉안한 한글대장경 318권 모두가 장엄스런 장경각에 봉안돼 사찰에 모셔지면 각종 행사와 더불어 뜻깊은 회향법회도 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 영구인등불사

장경각의 불단 아래 부분에 인등을 설치하여 영구인등 불사를 전개하는 방법이다. 장경각은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한글대장경 318권 전체가 봉안된다. 불단 아래 부분에 150 내지 200여 개의 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장경각의 인등은 한 번 켜면 영구히 관리를 해 주는 특별한 인등으로 특화시킨다. 법신불이 영가의 지혜를 밝혀준다는 의미다.

인등은 전기를 사용 하지만 전력이 미세하고 휴즈 설치가 완벽하여 화재 위험은 없다. 거기에 장경각의 마감 도장에서 방염 방충의 효과를 내는 특수 도료를 사용하므로 더욱 안전하다.

한글대장경 읽기 동아리 활동

사찰의 신도들이 10여명씩을 단위로 동아리를 구성해 대장경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읽기 쉬운 경전을 먼저 선택해 구입하여 다른 동아리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동아리의 운영은 경전의 중요한 대목을 읽고 토론하거나 지도해 주는 스님에게 특강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꾸준히 지도해 줄 스님이나 교수님이 정해지면 더욱 뜻깊은 활동이 될 것이다.

임연태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9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추천사

역사에 남을 큰 불사



석주스님
역경후원회장

1964년 7월21일 동국역경원 개원식을 거행하던 그 순간은 실로 감격적이었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큰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가슴 벅차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어느덧 37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벅찬 기대는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오늘의 감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역경불사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들의 선연이 필요합니다. 한글대장경을 사찰과 가정, 사무실에 두루 모시는 것이 불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철이 있어 가능한 또 하나의 세상! 가슴 깊이 스며드는 첼로의 선율을 만나면 첼로 줄은 단순한 철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네 가닥 철이 만드는 감동의 세상-
그 곳에 철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

You & Music with POSCO【포스코 센터 콘서트】 1월 포스코 센터 로비 2월 4회연속 감동의 클래식 향연 3월 포스코와 함께 하는 VSC 수요예술무대 4월 '세상 밝히는' 콘서트 5월 4회연속 감동의 클래식 향연 6월 감동주의 우리만의 신청곡 프로그램 7월 뮤지컬 하모니 I 8월 4회연속 감동의 클래식 향연 9월 '아리랑 지키기' 특집 콘서트 10월 4회연속 감동의 클래식 향연 11월 'America'영화와 재즈의 만남 12월 윈도잉